

선교의 길에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다

출판 G-WORLD PUBLISHER
도서종은당

www.g-world.co.kr

출판
도서
중
간
사
PUBLISHER

www.g-world.co.kr

위대한 복음 전도자
조용기 목사와 동행한

선교의 길에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다

시가끼 시게마사 지음

중간
사

●
| 추천사 |

1993년 눈이 펄펄 쏟아지던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처음 뵈었던 장로님의 모습은 제 마음 속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 주었습니다. 저와의 첫 만남이었음에도 흔쾌히 호텔에서 숙소를 제공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부족한 중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 책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주 안에서 귀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님의 저서 『선교의 길에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다』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의 세계 선교 사역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된 DCEM의 사무총장으로서 조용기 목사님의 세계 선교 사역을 지난 38년간 함께해 온 동역자이자 산 증인입니다. 또한 지금은 일본 최대의 교회인 순복음동경교회 담임목사로서, 일본 총회장으로 일본 선교의 최전방에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님은 뜨거운 선교의 열정으로 동료 목회자들에게 도전을 주는 목회자이며, 일본 일천만 구령의 선봉장이요 교회 부흥을 위해 혼신을 다해 힘쓰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러한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했던 해외 선교의 역사를 생생하게

담은 책을 출간한 것은 한국의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일본의 순복음총회 교단 소속 목회자들, 신학생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뜻깊은 일입니다.

이 책을 통해 성령님이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신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새기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님의 세계 선교 사역의 지평이 더욱 확장되기를 소원하며, 이 책이 세계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는 지침서로서 널리 읽히기를 기도합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이영훈

선교역사를 사업적 관점에서 보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향하는 복음 전파 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제국주의가 선교를 부추긴 사실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식으로 보자면 가치관의 강요이기도 하며, 후진국의 국민은 선진국의 조언을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선교를 활발히 펼쳐온 나라가 모두 당시 선진국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조 목사님의 세계선교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6.25전쟁의 상흔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초창기에 선교는 가난한 한국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고자 하는 목적이 컸습니다. 조 목사님이 선교의 시작으로 첫 발을 내디뎠던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후진국이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 목회자가 선진국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대략 2달 정도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미대륙 전역을 다니며 선교했던 여정에 대해서는 조 목사님이 몇 번인가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세계선교와 목회를 병행하면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경이로운 부흥 성장이 시작되었고, 눈 깜짝할 새에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조 목사님과 외부 행사에 나갔다 돌아오는 길이면 서강대교를 건너게 되는데, 다리 위에서 교회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1970년대에 세워진 건물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것은 성령운동의 결

실이자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브라질에서 150만 명, 인도에서는 200만 명이 운집한 대규모 성회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일반여 명이 넘는 백인들이 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는 모습은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지금이야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랐지만, 세계선교를 활발히 펼쳤던 당시에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황인종이라 불리는 아시아인의 설교를 백인이 듣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백인 목회자들이 서로 조 목사님의 제자임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더욱 감격스러웠습니다.

지금 반성하게 되는 것은, 지난 38년간의 놀라운 선교 현장을 글로 남겨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서는 어디까지나 제 기억을 하나씩 더듬어 가며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하고자 했으나 기억함에 있어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서 목격했던 그 기적의 순간을 기억에 남아 있는 그대로 기술하였기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97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범상치 않은 첫 만남을 가졌던 이영훈 목사님에게, 순복음동경교회 장로였을 때 2001년부터 3년간 담임 목사로 모실 수 있었던 것과 조 목사님의 위대한 선교 여정에 항상 든든한 지원군으로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조 목사님과 함께 선교를 다녀온 곳은 70개국 350개 도시입니다. 이전에 방문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1회로 간주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만 따져도 350만 마일이 넘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저보다 갑절은 더 다니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주께서 예비하신 만남으로 시작되어 세계선교의 동역자가 되었던 일, 무엇보다도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 주신 것을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9월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

목 차

추천사	· 00
들어가면서	· 00

1장 조용기 목사님과 첫 만남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 00
한 청년의 기도에 응답하심	· 00

2장 전 세계 향한 복음 전파 여정

얇은뱅이가 일어서다	· 00
간절함으로 만난 치료의 하나님	· 00
부다페스트 사건과 특별한 인연	· 00
외화벌이 독일 이민자들의 애환	· 00
역사상 최대 규모, 수십만 명이 주께로	· 00
36시간의 비행, 머나먼 선교의 길	· 00
남미의 중심에서 예수의 성호가 울리다	· 00
잠들어 있던 북유럽 교회 깨우다	· 00
선교 종주국서 복음을 외치다	· 00
복음의 빛을 영적 축복으로	· 00

3장 성령의 역사, 기적의 현장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 00
마사이족 전도에 목숨까지 걸다	· 00
선교의 땅끝에서 예수를 전하다	· 00
성령으로 채워진 영적 공허함	· 00
아프리카 특유 열정에 충만한 은혜	· 00
인종의 벽을 넘어 예수로 하나 돼	· 00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재현되다	· 00

4장 선교열정, 그 위대한 발걸음

개신교 1% 불모지에 성령의 불 지펴	· 00
150만 운집, 헬기 타고 강단으로	· 00
소외된 자들에게 주의 위로 임해	· 00
항공편 캔슬까지 예비하신 하나님	· 00
검은 대륙에 불어온 성령의 바람	· 00
대만교회 부흥 원동력 '4차원의 영성'	· 00
일본 '일천만 구령운동' 가능성 확인	· 00
선교는 절대 혼자 못해...	· 00

〈첨부 1〉 논문 〈조용기 목사의 교회 성장 이론과 세계선교의 연구〉	· 00
--	------

〈첨부 2〉 조용기 목사의 세계 선교 지도	· 00
-------------------------	------

〈첨부 3〉 조용기 목사의 세계 선교 연표	· 00
-------------------------	------

출판
도서
중
G-WORLD PUBLISHER
은
당

www.g-world.co.kr

1장

조용기 목사님과 첫 만남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일본에서는 흔치 않은 일인데, 나는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다. 5살 때부터 미사를 드릴 때 사제를 지원하는 역할인 시종직으로 성당 봉사를 해 왔다. 어릴 때는 성당에서 살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점점 성당과 멀어졌고, 고등학교 3학년 이후로는 거의 나가지 않게 되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유학을 가도록 이끄셨다. 당시에 유학이라고 하면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한국 대학교로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다들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 사실이다.

1975년의 일이었다. 그 당시 한국에는 남녀공학인 고등학교가 거의 없었다. 대부분 남자고등학교나 여자고등학교 출신이라 대학에만 들어가면 미팅(일본식으로 말하면 고-콘)을 즐기치게 했다. 나는 반일감정에 일일이 응대하는 것도 귀찮았고, 여자 파트너들에게 환영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미팅 제의를 항상 거절해 왔었다.

그런데 한 번은 친구들 중 한 명이 급하게 나올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대타로 합류하게 되었다. 남녀 50:50의 미팅이었다. 바로 여기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으니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 아닐

수가 없다. 이때는 공부한 기억은 거의 없고, 아내와 데이트한 기억만 있다. 4년간의 유학이었으나 한 번도 교회에 가 본 적은 없었다.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하고 일본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였기 때문에 당시 동경 요츠야에 있던 순복음동경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아내는 몇 번이고 함께 다닐 것을 권했다. 하지만 가톨릭 출신이었던 나에게 개신교는 이단과 다름이 없었다. 또 귀찮기도 해서 아내와 같이 교회에 가는 일은 절대 없었다.

이처럼 고집이 센 나를 꺾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쌍둥이 딸을 주셨다. 아내는 산후조리가 끝나자마자 바로 교회에 나갔다. 한 아이는 등에 업고 다른 한 아이는 안고서, 약 1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지하철까지 환승하면서 교회에 가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다. 한계에 다다른 어느 날 아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니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는 것만이라도 도와달라고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때부터 나도 주일마다 순복음동경교회를 가게 되었다.

교회에 갔던 첫날, 아이들을 예배실에 데려다주고 나오려 했는데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다. 당시 동경교회는 4층 건물을 빌려서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하필 출입구가 앞쪽에만 있었다. 나갈 타이밍을 놓쳐 버려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아 말없이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예배를 지켜보면서 가장 놀랐던 것이 찬양 시간이었다. 가톨릭에서는 여성들이 베일을 쓰고 조용히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순복음에서는 춤을 추듯 손뼉을 치며 찬양하고 있었다. 마음속으로 '이거

이단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다음으로 놀랐던 것은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회중과 기도할 때였다. 가톨릭에서는 기도의 책이 있고 그것을 함께 읊는 것이 보통의 기도였는데, 순복음에서는 “주여!”라고 외치면서 각자 원하는 대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 “이곳은 정말 이단이 맞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특히 더 놀란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길었다는 사실이다.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내가 다녔던 가톨릭 성당에서는 성직자의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15분 정도였고, 대개는 10분 내외로 끝났다. 그런데 이 교회 목사님은 1시간 반이나 설교를 하고 있었다.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나는 화가 치밀어 참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내가 다시 교회에 오나 봐라.” 하면서 곧바로 예배당을 뛰쳐나가지 않았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다.

그 주 토요일 저녁 9시경에 전화벨이 울렸다. 평상시라면 아내가 전화를 받았을 것인데, 그날은 공교롭게도 딸들을 목욕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받게 되었다.

보통 전화를 받으면, 일본에서는 “모시모시”, 한국에서는 “여보세요”, 미국은 “헬로”라고 하는데, 갑자기 “할렐루야~”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순복음동경교회의 한 집사님이었고, 일부러 내게 전화를 한 것이었다. 그분이 “지난주 뵈게 되어 매우 기뻐다.”라고 했지만, 속으로 ‘나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는데요’라고 생각하면서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은 채 가만히 듣고 있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후에 “내

일도 오실 수 있지요?”라고 물어오는 것이었다. 머릿속으로는 “내일은 일이 있어서 갈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려고 했으나, 나도 모르게 “예.”라고 대답하고 말았다. 결국 그 주일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날 설교는 2시간이었다.

한 청년의 기도에 응답하심

순복음동경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후 한 달 정도 됐을 무렵이었다. 갑자기 오사카의 한 회사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 고심 끝에 오사카로 옮기게 되었다.

이사를 마친 후 아내는 집 근처에 순복음교회를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대신 신오사카역 근처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조 목사님이 일본에서 텔레비전 선교를 하실 때 사회자였던 오쿠보 미도리 목사(당시는 대학에 교수로 재직 중)가 전 일본복음선교회 행정 직원들과 함께 비디오 예배를 드렸던 교회였다.

나는 이 교회를 좋아했다. 왜냐하면 비디오 예배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조 목사님이 설교를 정확하게 15분에 맞춰 끝냈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일마다 가정에 충실한 가장 노릇을 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짧을수록 좋았던 것이다.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후 한 달쯤 뒤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 선교사님이 파송을 받아 담임목사로 오게 됐다. 그 목사님은 내가 마지못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도 모르고 설교 통역을 의뢰해 왔다. 거절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때도 이상하게 허락을 하게

되었다. 주일에만 봉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수요일예배와 금요일야예배 때도 통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당시에는 봉사라고 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한번 알겠다고 수락을 했으니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야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것을 알았다. 나는 정말 뜻하지 않게 모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다. 원래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타입이었던 내가 통역을 하려면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설교를 듣게 됐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특별한 신학교였던 것이다.

맨 처음 금요일야예배에서 있었던 일이다. 강대상에는 목사님과 나 그리고 성도석에 한 여성밖에 없었다. 그래도 식순대로 예배를 드렸고 설교를 마친 후,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 제목을 꺼내면서 셋이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자고 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도란 기도서를 읽는 것이라고 알고 있던 나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자 성도 앞에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싫었던 나는 무슨 말이라도 기도식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때는 아직 개신교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조용기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그러니 깊이 생각해 왔던 것도 아닌데, 조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어 세계선교에 나가겠다는 고백이 불쑥 튀어나왔다.

그 자리에서 듣고 있던 목사님이 속으로 웃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다. 그만큼 나의 서원기도는 너무나 엉뚱했다. 당시 담임목사님도 조 목사님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했으니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기도였다. 하지만 그건 내가 난생처음으로 진지하게 드린 기도였기에 나에게서는 의미가 남달랐다.

그런데 기도의 힘은 실로 대단했다. 그 후로 나는 세계선교에 대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곧 나의 꿈이 되었다. 그렇게 금요철야예배에서 뜬금없는 서원기도를 한 지 한 달 후에 조 목사님이 오사카에 오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과의 만남을 이끌어주셨다는 것을 믿는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꿈을 꾸며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를 통해 시인한 결과, 조 목사님과의 만남이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생각하고 믿고 꿈꾸고 말하는 대로 이뤄진다는 조용기 목사의 '4차원 영성' 그대로였다.

만약 내가 순복음동경교회에 그대로 다니고 있었다면 조 목사님과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당시 순복음동경교회에는 이미 7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고, 그중에는 나 말고도 통역봉사를 할 일꾼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테니 말이다. 나에게까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사카는 그 반대였다. 때로는 성도의 수보다 강대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의 수가 더 많을 때도 있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조 목사님을 모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 목사님을 공항에서 맞이한 후 호텔까지 가는 차량 안에서 나는 목사님 옆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때 목사님은 한마디 말씀도 없었다. 내가 누구인지 소개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목사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와 위엄은 내가 감히 입을 열 수 없도록 했다.

호텔에 다 왔을 무렵, 동승하고 있던 차일석 장로님이 내게 일본어로 말을 걸어왔다. 차 장로님은 일본어도 영어도 매우 능통한 분이였다. 그 질문에 내가 한국어로 답을 하자 조 목사님이 놀라며 “어떻게 한국어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로 인해 그 자리는 그동안의 내 삶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식사 때 조 목사님이 내게 “가방 들고 세계선교에 따라오세요.”라고 말씀하셨다. 금요철야예배 때 했던 그 서원기도의 응답이 그대로 이뤄진 순간이었다.

사실 여의도순복음교회에는 훌륭한 장로들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청년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후 38년간 조 목사님의 선교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이 놀라운 일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자 섭리였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린다.

출판 G-WORLD PUBLISHER
도서종합망

www.g-world.co.kr

2장

전 세계 향한
복음 전파 여정

얹은뱅이가 일어서다

- 1994년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부흥성회

돌연 내 왼편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그것은 기쁨의 환희였다. 스타디움은 설자리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메워져 있었고, 심지어 육상경기 트랙에도 많은 인파로 가득 차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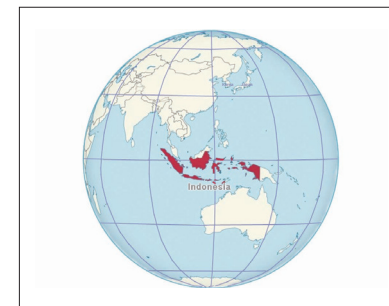
그때 맨 앞줄에 휠체어를 타고 있던 한 여인이 두 발로 일어섰다. 그리고 그 여인이 조 목사님이 서 있는 강단을 향해 걷기 시작했을 때 스타디움은 일순 조용해졌다. 일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어 보이는 빠와 가족뿐인 그 얹은 다리로 한 발 한 발을 내딛고 있는 모습을 모두들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순간이 1분이었는지 5분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러나 단언할 수 있는 것은 5만 명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걸쳐 있는 섬나라로, 수마트라섬에서 서뉴기니 섬까지 펼쳐져 있다. 수도는 자카르타.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다. 주민 대부분은 오스트로네시아 언어를 쓰는 말레이인이며, 이슬람교를 신봉한다.

1만 3466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인구 약 2억 7천만 명, 3백여 개의 종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이다. 다양한 종교가 혼재되어 있으며 그중에 87.2%가 이슬람교도이고, 개신교는 7%, 가톨릭은 2.9%, 힌두교는 1.6%, 불교는 0.72%에 불과하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섬으로는 수도 자카르타와 제2의 도시 수라바야가 있는 자와섬이 있다. 이곳의 인구는 약 1억 3천 7백만 명이다. 정치·경제의 중심지로, 이슬람 색채가 강하다. 이슬람 국가에서의 선교는 사탄의 훼방과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1994년 11월 수라바야에서 열린 성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계 속의 인도네시아 위치

먼저 선교 비자를 받는 것부터 차질을 빚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집회를 할 경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를 반드시 취득해야 했다. 일반적으로 조 목사님의 성회는 개최되기 2년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비자를 신청하기에 시간은 충분했다. 보통 성회 개최 6개월 전쯤에 비자 신청을 해 두는 것이 관례였다. 이때도 구비서류를 준비해 6개월 전에 미리 신청해 둔 상태였다.

그런데 출국 1주일 전까지도 비자 발급이 되지 않았다. 잘못하면 수라바야성회를 취소해야 될지도 모를 상황이 되었다. 성회 실행위원회 측

이 현지에서 탄원을 넣었지만, 발급을 장담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거의 포기하려고 하던 때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고위 관료 부인이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 부인이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무사히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다.

알고 보니 그 부인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 심지어 수라바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 목사님 성회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훗날 이 부인의 주거지인 인도네시아 최서단 이리안자야주 서뉴기니섬에서 성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은 참으로 기이하고 상상을 초월한 섭리 안에 있음을 몸소 체험한 일이었다.



수라바야성회에 참석한 수행원들이 단체로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고 있다

성회를 위해 CGI 이사와 세계선교위원장, 실업인선교연합회장 등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들과 동남아시아 선교회 회원들을 포함한 수십 명이 함께 자카르타를 경유하여 수라바야로 향했다.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호텔 체크인을 마친 후, 목사님은 식사도 하지 않은 채 휴식을 취했다. 장시간의 비행으로 인해 피로가 쌓였기 때문이다. 평상시였다면 으레 수행원들을 챙기는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을 텐데, 그날은 여독이 심했던 모양이었다.

해외 선교를 갈 때마다 나는 목사님이 머무는 객실 바로 옆방에 묵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 목사님 방으로 건너가자, 밤새 가위에 눌려서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 듯했고 이미 깨어 기도를 하고 계셨다.

훗날에도 여러 차례 경험했던 일이지만, 이슬람 국가나 다른 종교를 국교로 믿는 국가에서 성회가 열릴 때면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었다.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

나는 지금껏 조 목사님과 함께 70개국 350개 도시를 돌았다. 여러 번 방문한 국가나 도시를 한 번으로 썼으니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여정의 시작은 성회가 잘 개최될 수 있도록 기도로 무장하는 일이었다. 성회의 규모가 1천 명이든 100만 명이든, 기도 없이는 어떠한 성령의 역사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 목사님은 현지에 도착하면 관광은 일절 하지 않고 오직 기도에만 전념하여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다.

드디어 성회 당일이 되었다. 그날은 평일이기도 했고, 열대지방이었기 때문에 더위를 피해 성회가 밤에 열렸다. 성회 시작은 7시부터였지만, 첫째 날이라 일찍이 호텔을 나와 5시쯤 이미 축구 경기장이었던 성회 장소에 도착을 했다.

그곳에서도 목사님은 대기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다. 목사님에게 인사하고자 찾아온 내빈들의 방문도 정중히 거절하고 오직 기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잠시 뒤 대기실 밖이 어수선하길래 나가봤더니, 설교 비자를 제대로 발급받고 온 것인지 확인하러 왔다는 경찰관 두 명이 봉사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사실 그들은 누가 봐도 성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온 것이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그들을 막을 도리가 없었다. 당시에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여권을 분실할까 봐 성회 장소에는 갖고 다니지 않았던 때라 당연히 여권을 보여 줄 수가 없었다.

호텔로 되돌아가 여권을 가지고 오자니 퇴근시간과 겹쳐 길이 막혀서 성회 시작 때까지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했다. 현지 스태프들이 경찰관들을 열심히 설득한 끝에 내가 대신 여권을 가져와서 보여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허락을 받았다. 그 즉시로 나는 호텔로 향했고, 목사님의 비자를 가져와 보여 주고서야 겨우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악한 세력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회를 중단시키고 막으려 했던 것이다.

경기장으로 돌아와보니 이미 성회는 시작되었고, 찬양의 열기로 뜨겁

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나는 늦게나마 강단 위 좌석을 찾아서 앉았다. 그때 트랙까지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 가운데 맨 앞줄에 휠체어를 탄 20여 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까'라는 생각으로 둘러보고 있던 중, 한 부인이 눈에 들어왔다. 그 부인의 발은 뼈와 가죽밖에 없어 보였다. 선천적으로, 아니면 꽤 오랫동안 걷지 못한 듯했다. 순간 그 부인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걷게 되는 건 아마도 무리겠지'라는 생각이 스쳤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이윽고 설교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새로운 삶, 은혜로 사는 삶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이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변화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새사람이 된 꿈을 가지십시오. 믿으십시오.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아침마다 시인하십시오. 낮에도 시인하십시오. 저녁에도 시인하십시오. 자신에게도 말하고 하나님에게도 말씀하십시오. 사탄에게 담대히 외치십시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 예수의 피로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예수의 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실 패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외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설교 후 이어진 신유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선포했다. 조 목사님은 ‘신유 기도는 믿음의 은사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영적인 그림을 보여 주시면 그것을 믿고 그대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즉 암이 낫는 모습이라든가 장님이 앞을 보게 된다든가 하는 모습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면 목사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뿐이라는 말이었다.

그날도 류머티즘 관절염, 허리 통증 등이 고침 받았음을 선포한 후 조 목사님은 “오늘,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담대히 선언을 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내가 ‘도저히 나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있던 좌측은 쳐다보지도 않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우측 사람들만 둘러봤다. 하지만 아무도 일어서 있지 않았다. 조 목사님이 분명히 나왔다고 선포했는데, 아무도 일어서지 않으니 염려가 되었다. 그래서인지, 그 시간은 분명 1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는데 나에게는 꽤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뼈와 가죽밖에 없던 그 다리가 낫게 되는 걸 바라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믿음 없는 생각이 들었다. 목사님의 치유 선포를 비웃기라도 하듯,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너무 민망해서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버렸다.

그때, 강단 좌측 편에서 비명소리와 같은 환호성이 들려왔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 앞에 펼쳐졌다. 뼈와 가죽밖에 남아 있지 않아서 결코 기적을 바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두 다리로 한 부인이 일어서 있었던 것이다. 그 환희의 비명소리는 그 부인의 주변에 있던 가족과 친구

들이 지른 것이었다. 그들은 그 부인의 상태가 절대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에 그 상황이 더 놀라울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 부인은 느리긴 했지만, 확실히 한 걸음씩 강단을 향해 나아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던 회중의 이목도 집중됐고, 일동은 숨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단의 마지막 계단까지 모두 올라서자 회중의 환희에 찬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내 주변에 있던 이들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정말이지 성령의 감화감동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부인의 간증이 시작됐다. 3년 전에 조 목사님이 자카르타 성회를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는 소문을 접하고는, 목사님에게 기도 한 번 받아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됐으며 이를 위해 그동안 열심히 기도해 왔었고, 그 간절한 마음이 꿈이 되어 ‘기도만 받게 되면 반드시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풀어갔다. 하지만 불행히도 자신은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조 목사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조 목사님이 수라바야로 오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었다.

그녀에게 있어서 최초의 기적은 조 목사님이 수라바야에 오도록 기도했던 것이 응답된 것이었다. 그렇게 그녀는 성회가 열리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성회 장소까지 오게 됐으며, 목사님이 나왔다고 선포했을 때 주저 없이 “아멘!”을 외쳤다. 그리고 자

신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굳게 믿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일어서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꿈쩍도 할 수가 없었다. 몇 번씩 시도를 했지만 역시 무리였다. 다만 점점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듯해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보려고 시도를 했다. 그러자 무언가 큰 힘이 받쳐 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마침내 일어설 수 있었다고 간증했다. 그 부인은 몇 번씩이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린 멋진 시간이었다.

산상수훈 후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가장 먼저 그 앞에 나타난 사람은 병자였다.

“한 나병환자가 나아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대 하거늘”(마 8:2)

이 고백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하나는 예수께서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만일 나음을 입지 않게 되더라도 예수께서 자신의 구원자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다. 당시는 나병환자가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못매를 맞게 되고 그로 인해 죽임을 당한다 해도 항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걸고 신앙고백을 했던 것이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하신 대답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였다.

그 후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이 “내 하

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라며 낮게 해 주실 것을 간구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라고 흔쾌히 대답했다. 그런데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라고 답한다. 예수님은 이에 놀랍게 여기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하시며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선언하신다. 그 즉시로 그 종의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으로 가서, 그의 장모의 손을 만져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던 열병을 낮게 하셨다. 어쩌면 여성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신 최초의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모여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악령에 사로잡힌 이들에게서 악령을 내 쫓으셨다. 나병환자는 유대인이었고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으며 베드로의 장모는 여자였다. 예수께서는 남녀노소 모두, 직업이나 신분의 귀천과 지위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라면 누구라도 다 받아 주셨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마 8:17)

예수께서 제일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있었던 가나로 돌아왔을 때, 중풍병으로 죽어 가는 사람을 그의 친

구 네 명이 침상째로 데리고 나왔다. 그런데 이미 집 안은 물론이거니와 도로 밖까지 사람들로 인산인해였다. 친구 네 명은 고민 끝에 지붕을 뚫고 침상을 매달아 내릴 것을 결심하고선 행동에 옮겼다. 집안이 난장판된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이 네 명의 믿음을 보시고 이처럼 선언하셨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마 9:2)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마 9:6)

그 순간 중풍병자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간다. 친구 네 사람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께로 나아온 자들이었다.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가 다가와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와서 낮게 해 주실 것을 호소했다. 이에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다. 거기서 12년간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마지막 힘을 다하여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옷자락을 만져볼 수만 있다면 자신이 나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다가가서 고백하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었다. 그 순간 혈루의 근원이 곧 말랐고 완전한 나음을 얻게 됐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다.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라고 하자, 예수님은 “물러가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마 9:24)라고 이르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

었지만 야이로는 갈등 끝에 예수님을 믿고자 결심했다.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소녀야, 일어나라)!”이라고 선언하셨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자가 나음을 입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쓰여 있다. 수라바야에서의 기적은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음을 입는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앓은뱅이 여인을 건게 하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다.

간절함으로 만난 치료의 하나님

- 1993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성회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동서유럽 선교의 장벽도 무너졌다. 동유럽 선교의 본격적 행보로, 1993년 12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성회가 열렸다. 눈이 내리고 으슬으슬 추운 날씨였지만 올림피아스타디움에는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폴란드 등 구소련 10개국에서 1만 5천여 명이 모였고, 공산주의 억압으로부터 풀려난 해방감과 열기로 가득 채워졌다. 성회 장소에 미처 입장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삼성전자에서 옥외에 대형 TV 30대를 설치해 줄 정도였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던 성회로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 휠체어를 타고 온 남자 성도 한 명이 성회 현장에서 일어나 휠체어를 번쩍 들어 올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기적의 장면은 절대 잊을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이었다. 또 목발 짚고 왔던 사람이 깨끗이 고침 받고 너무 기뻐서 목발을 집어던지고 성회 장소를 내달렸던 그 순간도 지금까지 기억에 생생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질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이 치유를 받고 기쁨으로 간증을 했다. 50년간의 긴 냉전시대로 빈곤에 허덕이며 종교 탄압으로 힘든 세월을 살아온 동유럽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

로 인해 속박에서 풀려나고 자유함을 얻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절망적이고 어두웠던 표정의 한 성도가 성회가 끝난 후 돌아갈 때는 더없이 밝고 희망찬 모습이어서 큰 감동을 받았다.

성회에서 조 목사님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소경 바디매오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외투를 예수께 내어드리고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되고 주님을 좇게 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당시 동유럽은 정부에서 배급을 받아 생활을 했었고, 유일한 재산인 외투가 없으면 구걸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다.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민주화를 이뤘다고 하지만, 동유럽 제국의 생활 수준은 여전히 낮았고 매우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다.

30년에 걸친 세계선교를 통해 얻은 결론은 유독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그건 필연적인 결과인지 모른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간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주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복음의 본질은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다르지 않지만 그 간절함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순복음동경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는 나 또한 세계선교의 체험이 큰 힘이 되고 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부다페스트에서 본 이들 이상으로 더 간절한 소원하는 마음과 믿음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특

히 신유기도를 할 때에는 치유받던 그 성도들의 모습을 그려 가며 간절히 주의 역사하심을 구하게 되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암환자가 낫는 기적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내과 질환도 외과 질환도 많이 나음을 받았다. 모두 주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헝가리는 중부 유럽의 내륙 국가로 수도는 부다페스트이며 국민의 대다수가 마자르족이다. 사적 소유를 기반으로 한 자유시장경제체제로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서유럽의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지만 동유럽의 국가들 가운데서는 상당히 앞선 편에 속한다.



헝가리성회에 동유럽 여러 국가 성도들이 참석, 성회에는 삼성전자가 대형 TV 모니터를 후원하기도 하였다.

헝가리성회 후 바로 그다음 주에 베를린성회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주 주일에는 서울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조 목사님은 주일 설교를 녹화하여 서울로 송출했다. 목사님은 부다성을 배경으로 서서 말씀을 선포했다. 앞에는 아름다운 도나우강이 흐르고 바로 전날 내린 눈으로 인한 설경이 아름다웠다. 이때 나는 난생처음 촬영 개시를 알리는 큐사인을 해 보는 이색적인 경험을 했고, 멋진 추억으로 남았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를 위하여 도나우 강가에서 녹화하는 조용기 목사

부다페스트 사건과 특별한 인연

사실은 부다페스트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사건이라 칭하기에는 과하지만, 하나는 부다페스트의 프란츠 리스트 국제공항에서 있었던 일이다. 당시 36살이었던 나는 일본 선교 때는 조 목사님의 설교 통역을 맡았었고, 또 외국인으로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로 시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영위원 장로들과도 안면이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수행 책임자에게 몇 번씩 문의를 해도 투숙할 호텔이 어딘지 알려주지 않았다. 비행 스케줄은 조 목사님 비서실 쪽에 물어서 표를 예약했는데 호텔에 관해서는 비서실에서도 모른다고 했다. 비서실 측이 직접 문의를 해도 알려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상하게 여가면서도 투숙할 숙소가 어딘지 모른 채 출국을 하게 되었다. “목사님과 함께 가니까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비행기를 탔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경유로 루프트한자 항공을 타고 부다페스트로 향했다.

기내에서 수행 책임자에게 호텔에 대해 다시 묻자, 예약을 해 두었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하면서도 어느 호텔인지는 알려 주지 않았다. 참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조 목사님과 함께여서 옥신각신하기도 그렇고 해서 참고 있었다.

드디어 부다페스트에 도착했고, 시간이 자정 12시경이었다. 세관검사를 마치고 나와 보니, 헝가리 아이들이 아름다운 합창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환영식이 끝나고 차를 타려 하는데 자꾸만 뒤로 밀렸다. 탈 자리가 부족해서 차에 타지 못했고, 다른 차량도 없었다. 한밤중에 혼자 눈이 내리는 공항에 남겨진 것이었다.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서 가려고 했는데, 난감하게도 숙소로 예약된 호텔 이름을 몰랐던 거다. 왜 그토록 투숙할 호텔을 알려 주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당시를 생각해 보면 목사님과 친밀하단 이유로 꿀탕을 먹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그 당시엔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던 것도 아니고 해서 시내에 있는 오성급 호텔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때 마침 한국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을 걸어 보았다. 다행스럽게도 그분은 부다페스트순복음교회 성도였다. 다른 용무가 있어 공항에 와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담임 목사에게 연락을 취해 어느 호텔인지 물어봐 주었다. 친절한 그 성도는 호텔까지 나를 데려다 주었고, 덕분에 나는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사실 조 목사님의 여행 가방을 내가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목사님은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있었다. 의도치 않게 나는 조 목사님에게도 불편을 끼치고 말았다. 결국 나는 끝내 참지 못하고 수행 책임자에게 화를 냈고, 목사님에게도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 다 같이 아침식사를 마친

후에 저녁 성회 준비를 위해 각자 객실에서 쉬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열어 보니, 수행 책임자와 그 옆에 낯선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수행 책임자는 내게 낯선 그 사람과 방을 함께 써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해 왔다. 당시 내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까지 모두 자비량으로 봉사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방을 함께 쓰라니 어찌 된 일인가 싶어서 물었다.

“혹시, 호텔에 예약이 꼭 차서 방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방은 있어요. 그런데 넓은 방을 혼자서 쓰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을 같이 쓰실 그분은 도대체 누구니까.”

“워싱턴순복음제일교회 담임목사이신 이영훈 목사님입니다. 이번 부다페스트성회 강사로 오신 분입니다.”

강사로 초청받은 귀한 분에게 난생처음 보는 사람과 같이 방을 쓰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예의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의 호텔방 비용은 제가 결제할 테니 프런트에 가서서 방 하나를 달라고 하시죠.”라고 말했다. 이것이 이영훈 목사님과의 범상치 않은 첫 만남이었다. 훗날 이영훈 목사님이 2001년부터 3년간 순복음동경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할 때 내가 장로로 목사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과 이영훈 목사님이 여의도순복음교회 2대 담임목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때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수행 책임자의 이러한 행동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귀빈인 강사에게 모르는 사람과 같은 방을 쓰라고 하는 것도, 친하지도 않은 내게 그걸 강요하는 것도 정말 무례한 행동이었다. 전날 공항에서의 일도 그렇고, 그 수행 책임자는 지금까지 인생에서 내가 겪어 보지 못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당 역할은 시청률을 높여 주지만, 선교에 있어서는 이런 사람은 정말 불필요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조 목사님과 세계선교를 나갔던 것과 거기서 이영훈 목사님과 우연한 첫 만남 등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주의 이끄심이었으니 인생이 새옹지마라는 것을 제대로 실감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이영훈 목사님은 워싱턴에서부터 십수 시간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공항에 도착했는데, 마중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또 내가 겪었던 것처럼 어느 호텔에서 묵는지조차 몰라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은 공항 안내카운터에서 제일 큰 호텔이 어느 호텔인지, 어저께 많은 일행이 묵으러 간 호텔이 어느 호텔인지를 수소문하여 택시를 타고 호텔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도 이영훈 목사님과 나는 이때의 일을 종종 회상하곤 한다.

외화벌이 독일 이민자들의 애환

- 1993년 베를린성회



당시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영훈 목사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 후 최초로 열린 베를린성회

은혜 충만했던 부다페스트성회를 마치고 베를린으로 향했다. 베를린 순복음교회는 조 목사님의 세계선교 초창기에 세워진 교회로, 한국에서 이민 온 이민자들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 준 교회이기도 하다. 또 베를린 이 음악의 도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교회에 많이 모였

다. 그래서인지 훌륭한 연주와 성가대의 찬양이 펍 인상 깊었다. 축복성회를 마친 후 교회에서 성도들과 식사를 했었는데, 압도적으로 여자 성도들이 많았다. 조 목사님을 중심으로 빙 둘러앉아 모두가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졌다.

식사를 하면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거기 있는 대부분이 간호사 출신이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실업난 해소와 외화 획득을 위해 서독에 간호사를 파견했을 때 이역만리 독일로 건너왔다고 한다. 이들은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부치기 위해 타국에서 고된 근무와 인종 차별, 문화적 충격을 겪으며 많은 고생을 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가 독일인 남자와 결혼하게 되어 이곳에 그대로 정착해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그 시절 남자들은 독일 광산에 광부로 일하러 왔었다고 한다. 그들 대부분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모두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독일뿐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이주하여 외화벌이하며 살고 있었던 당시 이야기를 들으면 왜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연상되었다.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민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베를린순복음교회에는 독일인 남자 성도들도 있었는데, 모두 부인이 한국 사람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어디든 이민을 가면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저 감사할 뿐이다.

베를린순복음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봉사하고 있던 안희숙 씨는 세계 피아노 콩쿠르에서 몇 번이나 우승을 한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다. 식사를 함께했던 그날의 만남은 내게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 나중에 그가 한국에 연주회 공연차 들어왔을 때, 나도 공연 관람을 갔었다. 그는 '영롱한 음색과 천상의 노래를 담아내는 연주'라는 평을 들을 만큼 모차르트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나는 그의 멋진 연주에 깊은 감명을 받았었다.

그런데 부다페스트에서 시작된 수행 책임자와의 갈등은 독일에서도 계속되었다. 부다페스트에서도 사실은 앞서 기술한 것 외에 다른 여러 문제가 있었다. 독일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들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꽤 많았었다.

베를린에 도착해서 수행 책임자가 예약한 호텔에 가 보니, 체크인할 때까지 3시간 이상을 더 기다려야만 했다. 성가대 지휘자 안희숙 씨가 마침 그랜드호텔에 지인이 있다며 곧바로 예약과 체크인이 가능한지 알아봐 주었고 나는 목사님을 모시고 그랜드호텔로 옮겼다. 애초에 내가 묵을 객실은 아예 예약도 안 되어 있는 상태라 차라리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리 예약을 해놨던 수행 책임자 일행들은 호텔을 옮길 수가 없었으니 솔직히 썸통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만 해도 젊을 때라 괜한 시기와 질투에 똑같이 갇아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되돌아 생각해 보니 반성이 되는 일이다.

역사상 최대 규모, 수십만 명이 주께로

- 1994년 CGI마드라스성회



마드라스(Madras)는 지금의 첸나이(Chennai)의 이전 명칭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타밀나두의 주도이다. 인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지만 Mumbai처럼 화려하거나 벵갈루루처럼 떠들썩하지 않아 다른 대도시와 비교하면 수 수한 느낌이다.

마드라스는 인도 남동부에 위치한 항구도시다. 본래 이름은 첸나이였다. 마드라스라는 이름은 1639~1640년에 영국 동인도 회사가 요새 겸

무역기지를 건설했던 어촌 마드라스파트남의 준말이다. 그 이름을 따서 도시명을 마드라스로 변경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도시 명칭은 마드라스였다. 그런데 1996년 식민지 시절의 잔재라 하여 본래 이름인 첸나이로 다시 바꿨다. 이곳은 인구 700만 명으로, 남아시아의 디트로이트라고 불릴 정도로 자동차 산업과 정보기술 산업이 발달한 도시로 유명하다.

종교는 84.3%로 힌두교가 압도적으로 많다. 인도 전체의 힌두교 신자 비율인 79.8%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편이다. 그에 비해 인도 전체 크리스천의 비율은 2.3%에 불과한데, 마드라스는 7.6%나 된다. 이슬람교는 7.9%로 전국 평균인 14.2%보다 낮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가 선교하던 곳이자 순교한 곳이기도 한 배경 때문이다. 조 목사님과 함께 도마가 세웠다는 교회에도 찾아가 함께 기도했던 것이 어제 일처럼 눈에 선하다.

마드라스성회는 그곳의 거의 모든 교회라 할 수 있는 500여 교회가 인도 복음화라는 목표 아래 함께 힘을 모아서, 상상을 초월한 대규모 집회로 만들어 냈다. 인도 정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 허가를 내 준 대중집회이기도 했다.

해변가에서 열린 성회라 참석자들은 모래 언덕을 의자 삼아 앉았다. 3일간 개최된 성회로, 연일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총동원 인원은 200만 명 이상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양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로운 성회였다. 평일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3일 동안 저녁에 성회가

진행됐다. 많은 성도들이 성회에 참석하기 위해 멀리서부터 몇 시간씩 걸어서 왔다. 이처럼 복음을 향한 그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성회에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힌두교도나 이슬람교도까지 대거 참석했다.

하루 70만 명이 모인다는 것은 상상으로도 그리기 힘든 엄청난 규모다. 대도시 인구 전체를 한곳에 모아 놓은 것과 같으니 말이다. 실로 구름 때 같았다. 오후 세미나는 사전 등록한 교역자들에 한해서만 참가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 전역에서 2만 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참가했다.

인도는 원래 살인적인 더위로 유명한 나라다. 그런데 세미나 장소가 천막 지붕으로 된 곳이라 마치 찜통 안에 들어 있는 것처럼 폭폭 찼다. 게다가 나는 양복을 갖춰 입고 있었기 때문에 더위를 견디기가 더 힘들었다. 그러니 양복을 입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조 목사님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정말 땀을 비 오듯 흘리고 있었다.

그런데 사실 저녁 성회에 모인 참가자 70만 명이라는 숫자는 사람이 일일이 셀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성회 장소의 면적에 한 평당 앉을 수 있는 인원수를 곱해서 추산한 숫자다. 하지만 꽤 밀집해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70만 명이 훨씬 더 넘었을 것이다. 그 더위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 부딪히는 사람들 사이엔 볼케지수와 짜증이 올라가서 싸움이

나도 여러 번 났어야 했다. 하지만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그 속에서는 놀라운 기적과 감사가 쏟아졌다. 인구가 많다는 것이 엄청난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했던 성회였다.

조 목사님은 저녁 성회에서 말씀을 전한 후, 결신 시간을 인도했다. 그때마다 연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주최 측에서는 이 성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3일간 10만 명이 넘는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가 결코 과장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현장에서 그 기적의 순간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 감히 증언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신유 기도 후에는 끝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러 나와서 도중에 끊어야 할 정도였다. 앓은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등 실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치유의 역사들이 셀 수도 없이 일어났다. 그야말로 기적의 현장이었다.

마드라스성회에서는 내가 평생 잊을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았다. 특히 첫째 날 성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는 공포의 한순간을 보내야 했다.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조 목사님의 옷이라도 만지고자 우리가 탄 자동차 주위로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뒷좌석에는 조 목사님과 CGI 차일석 장로님이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내가 앉아 있었다. 수십만 명의 군중에 둘러싸여 차가 앞으로 도통 나아갈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군중에게 압도되는 일은 두려움 그 자체였다. 난 차 유리창이라도 깨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다. 뒷좌석과 달리 조수석에서는 전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위압감이 더 컸다.

어떻게든 사람들을 뚫고 차가 조금씩 움직였는데 이러다 사람이라도 치게 되면 어쩌나 싶은 걱정이 됐다. 그러던 중에 경찰들이 왔고 그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빠져나오기가 1시간이나 더 걸렸던 것은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다음 날인 성회 둘째 날도 이동 중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걱정이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운 것이 조 목사님은 눈에 띄지 않도록 소형차를 타고 이동하고, 원래 목사님이 타기로 한 메르세데스 벤츠에는 내가 타기로 했다. 누구의 제안이었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우려대로 둘째 날에도 많은 군중들이 몰려왔다. 사람들은 내가 조 목사님인 줄 알고 달려들었다. 자세히 잘 살펴보면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밀듯 모여왔다. 그러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싶다는 나름의 각오를 다졌던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뻗어 축복하는 기도를 했다. 물론 창문을 열지는 않았다. 그러니 사람들은 조 목사님에게 기도 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성회 장소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오기까지 1시간 반이나 걸렸다. 이 일을 교훈 삼아, 훗날 인도에서 성회를 할 때면 차량을 보호해 주는 수백 명의 가드를 세워 에스코트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게 되었다.

CGI는 Church Growth International의 약자로,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서 일어난 성령운동을 전세계로 넓히기 위해, 당시 세계 각지에서 성도 수 2천 명 이상 되는 대형교회의 목회자들 중심으로 매년 서울에서 대성회를 개최하고 세계를 돌며 성회를 열고 교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일을 주된 사명으로 세워진 조직이다. 당시에는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이 참가하는 큰 조직으로, 많은 교역자가 벤치마킹을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가 새로운 비전을 품고서 돌아가 세계 곳곳에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데 큰 몫을 했다.

마드라스성회 역시 CGI의 이사장으로 있는 마드라스 뉴라이프 하나님의 성회교회(Madras New life Assemblies of God Church)의 D.모한 목사가 중심이 되어 힘을 합한 결과로 맺은 풍성한 열매이기도 했다. 인도의 많은 교역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심어 준 매우 의미가 깊은 귀한 성회였다고 할 수 있겠다.



마드라스성회 환영 인사



마드라스성회에 모인 사람들, 연인원 200만여 명이 참석해 인도 최대 개신교 집회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조용기 목사와 마드라스성회 수행진 모습

28년 전의 일이지만, 3일간 동원된 인원만 200만 명 이상이고 성회 기간동안 10만 명 이상이 결신했다는 것은,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쉽게 믿을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었다. 어떻게 이

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요 14:12)

이 말씀에 바로 그 답이 있는 것 같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조 목사님을 통해 마드라스에 기적을 행하신 아바아버지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 드린다.

36시간의 비행, 떠나면 선교의 길

- 1994년 칠레성회



태평양 해안선이 서쪽 경계이고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와 국경을 접한다. 인구의 3/4이 메스티소이며, 스페인 정복 이전에는 인디언 종족이 거주했다. 공용어는 스페인어이고 종교는 로마 가톨릭교이 지배적이다. 정치제도는 양원제를 토대로 한 공화국이다.

서울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해 브라질 상파울루로 향했고, 거기서 다시 안데스산맥을 넘는 비행으로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장장 36시간이다. 하루하고도 만나절을 더 비행을 탔으니 조 목사님의 피로가 극에 달했던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도 공항에서의 환영식을 모두 마치고 호텔에 도착하니 그야말로 심신이 녹초가 됐다.

그래도 산티아고로 향하는 하늘길에서 봤던 장면을 잊을 수가 없다. 안데스산맥을 넘을 때 해발 6,000m급 산들이 이어지는데, 10,000m의 고도에 떠 있는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니까 장관이었다. 바로 아래 산 정상에 있

는 것 같이 느껴졌던 것 같다. 특히 우리 비행기항로에 있던 산들은 대부분 토양에 구리를 많이 품고 있었기 때문에 나무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구릿빛 풍경이 너무나 이색적이었다. 세계가 얼마나 넓고 다양한가를 깊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또 우리가 칠레에서 묵었던 호텔에 이웃나라 대통령이 체류하고 있던 탓에 경계가 매우 삼엄했고 그로 인하여 출입통제가 심해서 불편을 겪었던 일도 기억이 난다. 다들 세계선교를 쉽게 얘기하지만, 이동과 의식주 확보 등이 선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중요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동 자체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에 노출됐던 시대에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노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생각만 해도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열린 성회는 연인원 8만 명이 넘는 대성회였으며 남미 사람들의 특유한 열기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멋진 집회였고 여기에서도 많은 치유와 구원이 있고 영접하는 고백의 시간이었다.

칠레는 인구 2천만 명 미만에 국토 면적이 세계 37위의 나라다. 특이하게도 남과 북으로 얇고 긴 모양으로 남미 서해안의 대부분을 걸쳐 있다.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으며 125km에 달하는 남극을 칠레령이라 주장하고 있다.

수도 산티아고의 인구가 670만 명으로, 칠레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곳 주변에 모여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곳에서 열린 성회는 연 인원 8만 명이 넘게 모인 대성회였다. 남미 사람들의 특유한 열기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멋진 집회였다. 여기서도 많은 치유와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고백의 시간이었다. 결신의 순간에서는 회중들이 내려와 축구경기장트랙을 가득 메웠던 것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이곳에서도 작은 사건이 있었다. 성회 실행위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조 목사님과 회식을 같이 하고 싶어해서 다음날 조찬을 함께하기로 했다. 조찬은 오전 7시였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을 모시고 6시 55분쯤 레스토랑으로 갔더니, 아무도 없는 것이었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식사를 요청해 온 쪽이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혹시 어떤 다급한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잠깐 걱정이 되기도 했었다. 아니면 출근시간이라 러시아워로 인해 늦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했다. 하지만 스무 명 정도가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 자리에 단 한 사람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었다.

그래서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파송받아 사역 중인 선교사에게 물어

보니, 그는 난감해하면서 남미에서는 기본 1시간 늦는 일은 다반사라고 답을 했다. 남미에는 ‘마니아나(maniana, 또 보자)’라는 문화가 있는데, ‘내일 하자’라는 의미를 가진 ‘마니아나’는 그들 특유의 느릿느릿한 국민성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들이 도착한것도 오전 8시가 지나고 나서였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문화라니 이해가 되기도 했다. 한국이나 일본의 상식이 지구상 전세계에서 전부 통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뭔가 조급해지고 짜증이 나려고 할 때마다 ‘마니아나’라고 말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곤 했다.

1994년 3월 칠레 산티아고시의 파르케오히긴스 국립공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조용기 목사 초청 대성회가 열렸다. 이는 원주민 복음화와 성령운동 활성화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결신하는 사람들의 행렬은 끝없이 이어졌고,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성회 장소는 통곡의 장소로 변했다. 병자를 위한 기도시간에는 치유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쳤다.

“저는 오랫동안 간경화로 고생을 했어요. 몸이 붓고 아랫배에 물이 차서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도 배가 엄청나게 불렀어요. 그런데 성회에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난 후에 다 나았습니다. 하나님 이 다 고쳐 주셨어요.”

“결혼 전에 유방암에 걸렸는데 수술할 돈이 없어서 병원 한 번 가지 못

했어요. 결국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죽을 생각을 하니까 홀로 남겨질 어린 자식들이 불쌍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할 때 가슴을 만져 보니 딱딱했던 몽우리가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처럼 칠레대성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체험했다.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와 회개, 치료의 기적들이 넘쳐났던 귀한 성회였다.

남미의 중심에서 예수님의 성회가 울린다

- 1994년 파라과이 성회



남아메리카 중남부의 내륙 국가. 수도는 아순시온이며 국민의 대다수인 95%가 메스티소이다. 화폐는 과라니이고 농업·무역·서비스·경공업 등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도상국의 시장경제체제를 취하고 있다. 이 중 농업이 GNP의 1/3을 차지한다.

파라과이는 남미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700만 명 이상으로 국민의 대다수는 가톨릭 신자이다. 주된 산업은 농업, 목축업, 임업이고 인구는 적지만 축구 열기가 대단해 월드컵 단골 출전국으로 유명하다. 우리들은 칠레성회를 마친 후 파라과이 수도인 아순시온에 있는 축구경기장에서 3일간 성회를 가졌다. 수용인원은 4만 2천석이었

는데 연일 13만 명이 참가했으니, 규모가 어마어마했음을 알 수 있다.

성회 중에 조 목사님은 와스모스 파라과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대통령 궁을 방문했다. 그 자리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비롯해 전 각료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경찰 사령관 등이 배석을 했다. 여기서 와스모스 대통령은 세계적인 지도자인 조용기 목사님을 파라과이에 모시게 되어 큰 축복이라고 환영했다. 조 목사님은 파라과이 대통령에게 한국 교민들의 이민 생활에 각별한 이해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고, 이어서 파라과이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기도했다.

파라과이성회에서는 3일간 1만여 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 이곳에서도 병 고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간증자들의 줄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대장암의 고통이 사라지고, 목발 없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고, 팔을 들어 올릴 수 없던 사람을 고쳐 주시는 등 그야말로 기적의 현장이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얼마 전에 대장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세포가 뱃속 가득 퍼져 가망이 없다고 하더군요, 계속되는 통증을 견디다 못해 아예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조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성회에 참석했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순간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고쳐 주셨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4년 전에 무릎이 완전히 부서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무릎을 조

금도 굽힐 수 없어서 목발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무릎도 굽히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에는 무릎을 굽힐 수 없었어요. 목발 없이도 이제는 잘 걸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래전부터 오른쪽 어깨가 마비되어 오른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어깨부터 손목까지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이렇게 부축하지 않으면 도저히 손을 들어 올릴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 성회를 통해서 제 병을 고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오른팔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파라과이성회는 전통적으로 가톨릭이 강한 나라에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성황을 이뤘다. 주최 측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 주의 치유하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부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신념을 갖도록 만들어 준 성회였다.

또 칠레의 산티아고성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신앙 고백을 드렸다. 수많은 파라과이 성도들이 병 고침을 체험했고, 그것이 그들 가슴속에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크나큰 증거로 남아 그 후 파라과이는 물론 남미를 복음화하는 데도 큰 힘이 되었다.

잠들어 있던 북유럽 교회 깨우다

- 1994년 노르웨이 오슬로성회



노르웨이 남동쪽에 있는 오슬로 피오르드의 끝에 있으며 도시 자체가 하나의 주를 이룬다. 1050년경에 세워졌으며 1300년경 하콘 5세가 요새를 세웠다. 1624년 화재로 파괴된 뒤 요새 성벽 아래에 신도시를 세워 크리스티아니아라고 불렀다. 1925년 오슬로라고 개명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히 발전했다. 많은 위성 도시와 주거지대가 오슬로의 동부로 발전했다. 오슬로 항구는 무역·금융·산업·상업의 중심지로 노르웨이에서 가장 크고 가장 분주한 항구이다.

노르웨이 오슬로성회는 북유럽의 대표적 자연현상인 백야 기간에 열렸다. 노르웨이 인구는 538만 명이고, 수도 오슬로의 인구는 68만 명이다. 오슬로는 노르웨이의 남부 해안에 있는 도시로, 오슬로에서 스카게라크 해협에 이르는 '오슬로 피오르드' 근처에는 17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육지 대부분을 스칸디나비아산맥이 차지하고 있어 평지가 거의 없다시피 한다.

그래서 바이킹 시대에는 수없이 많은 약탈 원정을 떠났다. 그들의 후에 답게 노르웨이는 지금도 해상교역이 활발하다. 또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산악 지형을 갖고 있어 노르딕 스키로는 세계 최강국이기도 하다.

실제 가 보지 않으면 백야가 어떤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밤 10시경이 되어야 해가 지는데, 그 이후에도 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평선에 걸쳐 있다가 새벽 2시쯤 다시 해가 뜨기 시작한다. 그러니 밤이 아예 없다고 보는 게 맞다. 반대로 겨울에는 오전 11시경에 해가 떴다가 오후 3시면 해가 진다고 하니,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잘 와닿지 않을 것이다.

훗날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겨울을 겪어 봤는데, 사계절이 분명한 기후에서 자란 나에게서는 신기한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니 백야가 되면 사람들이 공원이나 거리로 나가 일광욕을 즐기고 햇빛을 만끽하려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됐다. 피오르드의 해적 박물관과 노르웨이 문화들을 접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

스펙트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오슬로성회는 연인원 2만 명이 모였

다. 조 목사님은 기도와 성령운동에 대해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고, 잠들어 있던 북유럽의 많은 크리스천들과 교회를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피오르드는 빙하가 깎아 만든 u자형 골짜기에 바닷물이 들어와 형성된 좁고 긴 만이다. 오늘날 노르웨이의 남서 해안선이 복잡한 것은 약 200만 년 전부터 여러 번 빙하로 뒤덮이며 침식을 받아 형성된 피오르드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송네피오르는 길이가 200km가 넘고,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은 깊이가 1,300m를 넘는다.



오슬로 피오르드에서 발견된 3척의 바이킹배(오세베르그호, 고크스타호, 투네호)의 복원품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이다. 9세기 초에 건조된 오세베르그호는 이중 가장 크고 우아하며, 아름다운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오세베르그호



밀바닥을 제외하고 모두 부식되어 버린 투네(Tune)호

선교 종주국서 복음을 외치다

- 1995년 영국민족제자화성회



노팅엄(Nottingham)은 영국 잉글랜드 동부 중부지방(Midlands, 미들랜드) 노팅엄셔 주의 주도이다.

런던과 맨체스터 사이에 위치한 노팅엄은 인구 28만의 작은 도시다. 이곳에서 영적으로 잠든 영국을 깨우기 위한 기도대성회가 조용기 목사님을 주강사로 열렸다.

이때는 영국 내에서 교역자 및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노팅엄 로열센터에서 1만 2천명이 참가한 큰 세미나로 진행됐다. 영국의 성공회, 구세군,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등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 열린 영국 개신교 사상 최대 집회로, 입장권을 유료로 판매했는데도 불구하고 6주 전에 완전히 매진될 만큼 큰 성황을 이루었다. 여기서 조용기 목사님은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로 말씀을 전했다.

“한국 사람들은 영국을 매우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영국 선교사가 제일 먼저 한국에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써 한국은 인구의 30% 이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를 생각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가 열매를 맺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밤도 70만 명 이상의 한국 성도들이 영국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영국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해야만 영국이 삽니다. 기도를 해야만 영국의 가정이 삽니다. 기도는 사업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조 목사님은 병든 사회를 치유하고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길은 오직 기도뿐이라고 설교했다. 교회 성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하며 세미나 참가자들은 그 열기에 휩싸여 도전을 받고 마음을 새롭게 했다. 그리고 조 목사님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여! 세 번 외치고 영국을 위해 기도하자.”라고 제안했고 영국의 교회를 위해, 병들어가는 영국의 사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영국의 변화와 영국의 교회가 살아나도록 기도

했다.

당시만 해도 백인이 동양인의 설교를 그것도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열심히 듣는 모습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도 조선에 복음을 전해 주었던 토마스 선교사의 나라 영국에서 이제는 조 목사님이 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니 더욱 대단한 일이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수행자로서 나는 조 목사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노팅엄성회에서도 사소한 사건이 터졌다. 우리 측에서 요구한 적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성회를 개최하는 주최 측은 강사에 대한 예의로 숙소를 마련할 때, 최대한 넓은 객실로 예약을 하곤 했다. 내가 머물 방도 주최 측에 대신 예약해 달라고 부탁하되 결제는 내 자비로 해 왔다. 런던에서도 똑같이 하고는 현지에 도착해서 조 목사님 방을 체크인하려고 객실 키를 받았는데, 가 보니 방이 굉장히 작은 데다 침대도 싱글베드였다. 속으로 '이런 게 영국인들의 국민성인가'라고 생각하며 목사님의 짐을 풀고 정돈을 도와드린 후 내 방으로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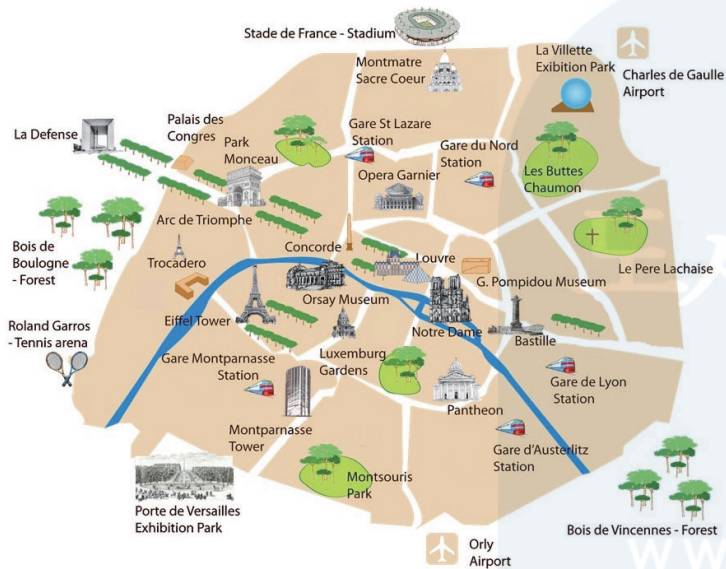
그런데 내 방은 스위트룸 정도 되어 보이는 넓은 객실이었다. 알고 보니 프런트에서 객실키를 바꿔서 줬던 것이었다. 곧바로 목사님에게 객실을 옮기자고 말씀드렸지만, “이대로도 괜찮다.”라며 체크아웃하실 때까지 그 방에서 계속 머무셨다.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처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는 것이 목사님의 스타일이었다. 그래서인지 목사님은 지금껏 한 번도 객실 문제로 불만을 토로한 적이 없으셨다.



조용기 목사는 영국 노팅엄에서 '95영국민족제자화성회'를 인도하였다.

복음의 빛을 영적 축복으로

- 1995년 프랑스 개신교 오순절95대성회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이며 유럽 최대의 대도시권 가운데 하나로, 2천여 년 전 센 강에 있는 섬에 세워진 도시다.

프랑스 개신교 오순절95대성회는 파리의 교외, 개선문 서쪽에 위치해 있는 생 마르탱 홀이란 곳에서 치러진 성회였다. 5천 명을 수용하는 홀이었는데, 3일간 연인원 1만 5천명이 넘게 모인 집회였다.

성회에서 조 목사님은 “100년 전, 프랑스 선교사가 전해 준 복음의 빛

을 영적인 축복으로 갚기 위해 왔다.”라며 “프랑스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한국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진리를 제가 전할 차례이다. 저도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결신자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영적 황무지와 같은 프랑스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신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성회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신유 기도 시간에 조 목사님이 “팔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나왔다.”라고 선포했다. 그러자 한 성도가 “팔꿈치에 이상이 있어 닿기만 해도 아파서 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했다. 그런데 목사님이 나왔다고 선포하자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됐다. 기도 시간에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라고 고백했다. 신유의 기도로 성령 충만한 열기가 더해졌고, 수많은 간증자들이 나왔다.

“오늘 아침까지도 위염과 두통으로 고생했습니다. 조금 전 기도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지금은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성회에 참석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무엇인가 늘 눌러 지내는 기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마귀에 눌린 사람이 치료되었다고 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치료하셨어요. 지금은 구름에 뜬 것 같이 상쾌하고 정신도 맑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6주 전, 위출혈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이 성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낫는 것을 보고 저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전혀 통증이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방광염으로 6년이나 시달려야 했고요. 늘 속옷이 젖어 있고 가족들도 저를 싫어했어요. 소변 보기도 힘들고 이런 제가 싫어졌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치료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리에서 열렸지만 프랑스 전역에서만 아니라 186개국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왔고, ‘기도’에 대해 깊이 배우는 세미나이기도 한 성회였다. 하루에 한 시간 이상 기도하자는 말씀에 “아멘!”이라 화답하는 회중들로 인해 깊은 감동을 받았다. 또 성회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한 적 있다는 사회 목회자가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들처럼 큰 소리 외쳐 기도하자.”라고 제안을 하자 모든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뜨겁게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 성도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 오늘 배운 대로 매일 30분 이상 기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기도에 힘쓰겠다.”라고 다짐했고, 또 다른 성도는 “그동안 기도 훈련을 많이 했지만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의심이 많았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지 못했다. 오늘 목사님의 기도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오랫동안 기도할 자신이 생겼다.”라고 고백했다. 성회를 통해 프랑스인들에게 신선한 성령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이 그들 가슴속에 성령의 불씨가 되어 크게 타오르게 됐다.

이곳 파리에서도 성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백인들이었다. 이때도 역시 조 목사님이 자랑스럽게 여겨졌던 순간이었다. 성회 중에 프랑스 교역자들이 조 목사님을 초청하여 만찬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목사님은 프랑스어로 인사말을 전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처럼 조 목사님은 때로는 웃음과 환호로, 때로는 박수갈채와 눈물로 프랑스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조용기 목사는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의 교외에 있는 생 마르탱대홀에서 ‘펜테코스트95’성회를 인도하였다.

파리성회 때는 목사님이 평상시와는 다르게 루브르미술관을 가 보고 싶다고 하셔서, 성회 일정 중간에 시간을 내서 다녀왔다. ‘평상시와 다르게’라고 쓴 이유는 목사님이 해외 선교 일정 중에 관광을 일절 하지 않았

기 때문이다. 말씀에 집중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내가 70개국 350개 도시를 수행하는 동안 이런 원칙에서 벗어난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러니 공항과 호텔 그리고 집회 장소 이외의 다른 곳을 방문했던 적이 거의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미술관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는 무척 놀랐다. 루브르미술관에 도착하여 곧바로 티켓을 구입하고 목사님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곧장 그쪽으로 찾아갔다.

모나리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작품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그림 앞까지 다가가는 데 10여 분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된다. 드디어 그림 앞에 섰을 때 목사님은 한 동안 말씀이 없는 채로 바라보신 후 이제 나가자고 하셨고 우리는 그대로 다른 그림이나 미술품을 보지 않고 호텔로 돌아왔다. 이때 동행한 일행들이 당황스러웠던 건 더 말할 것도 없었다. 루브르미술관 역사상 입장해서 10분만에 나온 관람객은 아마도 우리들뿐이지 않았을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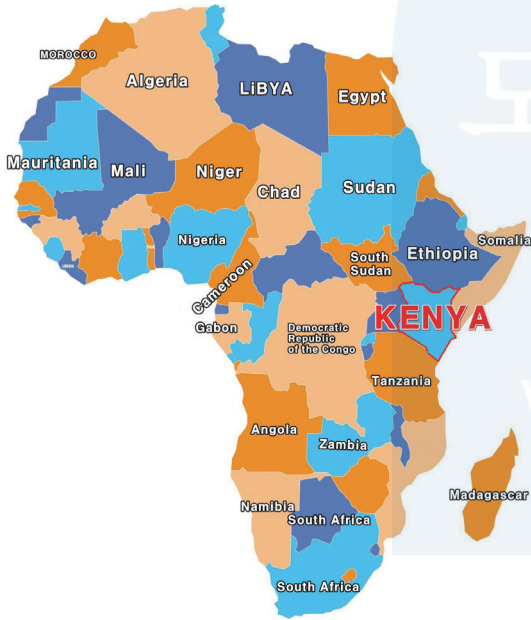
이렇게 조 목사님은 외골수적 기질이 있으면서 동시에 행동파이기도 했다. 나는 목사님의 이러한 기질 덕분에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지금처럼 부흥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3장

성령의 역사, 기적의 현장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 1995년 조용기 목사 초청 케냐대성회



케냐는 아프리카의 인도양에 면한 국가이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있는 울파크에서 연인원 100만 명이 모이는 전무후무한 대성회가 열렸다. 조용기 목사를 주강사로 초청한 95성령폭발 아프리카 케냐대성회는 3일 동안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아프리카 사람들 특유의 리듬감이 넘치는 춤과 함께 드러지는 찬양으로 성회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다.



케냐의 수도는 나이로비이며 화폐는 케냐 실링이다. 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의 개발도상국으로 실업이 큰 문제이며, 정부의 지출 확대와 관련하여 인플레이션이 잦다.

성회 장소에 모인 수십만 명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한복을 입고 선보인 여의도순복음교회 라성가대의 아름다운 율동 찬양과 풍물놀이팀의 열띤 공연은 현지인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함께 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들과 강단 위의 목회자들도 격식을 따지지 않고, 온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했다. 분위기에 휩싸여 함께 들쭉이며 모두가 밝은 얼굴로 찬양했던 광경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았다. 그리고 조 목사님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어제 일처럼 떠오른다.

조 목사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했다.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슬픔은 떠나가고 실패나 좌절도 물리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결신의 시간에는 매일 수만 명이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고, 병자를 위한 기도 시간에는 아픈 곳에 손을 얹었고 눈물로 기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를 쫓아냈고 장님이 눈을 뜨고 목발 없이 걷게 되는 등 병 고침의 간증이 이어졌다.

한 여인은 “전에는 앞을 전혀 보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라고 고백했고, 또 다른 여인은 “목 근처에 혹 같은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깨끗이 사라졌다.”라고 감사했다. 통증으로 손을 들 수조차 없었던 여인도, 천식으로 숨을 크게 쉴 수 없던 여인도, 척추를 다쳐 온몸이 마비되었던 남성도 모두 주님께 병 고침을 받고서 기쁨과 감격으로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있는 울파크에서 진행된 성회

케냐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이 영어를 구사할 줄 안다. 인구는 5천 3백만 명으로, 영연방의 정회원국이기도 하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는 마사이족의 부족어로 ‘찬물의 땅’이라는 뜻이다.

나이로비 인구는 440만 명으로 적도에서 가까우며 해발 1,600m라서 아프리카 전역에 비하면 비교적 서늘하다. 나이로비에서는 한국 파라다이스그룹이 운영하는 사파리파크호텔에서 묵었기 때문에 식사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다.

그런데 성회를 마친 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한 분이 수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전도한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된 마사이족을 방



케냐성회는 연인원 100만 명(3일간 성회)을 넘기는 성회로, 구름같이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많은 병 고침과 기적을 체험했다.

문하게 되었다. 편도로 7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조 목사님을 필두로 하여 실업인선교연합회와 아프리카선교회 회원 150여 명의 선교단이 대이동을 하게 됐다. 목사님과 나는 박스카로, 선교단은 6대의 미니버스로 나눠서 타고 목적지로 향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우선 이동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다. 조 목사님이 갑자기 ‘성령대망회’를 열겠다면서 미니버스 1호 차에 탑승을 했다. 다음 휴게소까지 가는 약 1시간가량을 찬양과 기도, 말씀과 예언으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는 2호 차, 3호 차에도 1시간 간격으로 버스를 환승하며 앞에 차와 같이 성령대망회를 이끄셨다. 그리고 버스 내 모두가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게 됐다. 이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휴게소에서는 모두가 한껏 들뜬 분위기 속에 받은 은혜를 나눴고, 다음 순서인 버스 성도들의 기대감은 한껏 더 고조되고 있었다. 그런데 5호 차까지 하시고 목사님도 지치셨는지 더는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6호 차에 탑승하고 있던 성도들의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급기야 울먹이기는 사람들까지 나왔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꼭 앞의 차량들처럼 목사님과 함께 성령대망회를 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서야 겨우 상황이 정리가 되었다. 그 약속은 지켜졌지만, 그 이후로 그와 같은 성령대망회가 열린 적은 오늘날까지 한 번도 없었다.

마사이족 전도에 목숨까지 걸다

다음은 마사이 부족 마을에 도착해서 족장으로부터 큰 환영을 받으면서 겪게 된 엄청난 해프닝이다. 마사이족은 귀빈을 맞이할 때에는 염소 젖을 짜서 그것에 피를 섞어 내어주는 것이 풍습이었다. 조 목사님을 맞이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내놓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 짐승의 피를 마시는 일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더욱 위험한 건 위생상 문제가 컸다는 점이다.

마사이족의 집은 토분과 풀을 개어서 굳히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아프리카는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항상 토분을 덧대나가야 했다. 냄새가 심하게 날 법도 한데 강한 햇볕에 건조가 되기 때문에 그리 심하게 나진 않았다. 그런데 이 작업을 주로 여자들이 한다는 게 문제였다. 이 날도 족장 부인이 손님맞이를 한다고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그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손을 닦지도 않은 채, 토분이 묻은 그 손으로 염소 젖과 피를 섞어서 내놓았던 것이다. 나는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몰래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귀빈이신 목사님은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나는 당연히 그 음료를 거절하실 줄 알았다.

그런데 선교사가 울먹이면서 “이것을 마시지 않으면, 이제 겨우 마음



마사이족은 동부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와 탄자니아의 건조한 초원 지대에 살고 있는 종족이다. 흑인종에 속하며 유목 생활을 하고 있다.

문을 열기 시작한 이들을 전도한 그 동안의 수고가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그것을 마시게 된 것이었다. 이 일로 인해 목사님은 2주 동안 설사를 하게 됐다. 같이 있다가 그 자리를 피했던 나는 정말로 죄송해서 몸 둘 바를 몰라 했다. 아직까지도 그 죄송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마사이족은 평균 173cm의 큰 키에 고수머리이다. 피부색은 짙은 갈색이며 말은 마사이어를 사용한다.



집은 진흙과 쇠뿔을 반죽해 만든다.



마사이족 어린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조용기 목사

마사이족 방문을 마친 후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인 사바나 한가운데에 위치한 숙소로 체크인을 했다. 5m 간격으로 사방이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동차로 진입하려면 첫 번째 문이 열리고 그 문을 통과하면 다시 그 문이 닫히고 두 번째 문이 열린다. 그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간 후 더 이상 쫓아오는 동물들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조금 더 들어가다가 차에서 내리게 된다. 대개 사람이 동물원에 가서 우리 안에 있는 동물들을 구

경하는데, 이 호텔로 갈 때에는 그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동물들이 구경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창 15:5)

6시쯤 저녁식사를 마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7시간이나 되는 긴 육로 여정으로 인해 쌓인 여독을 풀기 위해 일찍 잠을 청하려 침대에 누우려는 순간에 누군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목사님께서도 너무 피곤해서 잠이 오지 않으니 산책을 가자고 하셨다. 산책이라고 해도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일이었다. 킁킁한 밤에 밖으로 나가면 동물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울타리 안쪽으로 걸으며 산책을 했다. 그래도 적당히 넓은 면적이라 슬슬 걸을 만했다.

한 바퀴를 다 돌고 난 후에 수영장 있는 쪽으로 가서 목사님과 함께 걸터앉았다. 의자가 하늘을 올려다보기 좋은 구조였다. 그곳에서 목사님과 나는 숨이 멎을 정도로 경이로운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무심코 올려다 본 하늘에 다이아몬드처럼 박힌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주변에 불빛이라곤 찾을 수 없는 초원이라 밤의 어둠이 더욱 짙었고 그만큼 별이 더 빛날 수밖에 없는 하늘이었다. 그 광경에 감동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었다.

조 목사님은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이 본 그 밤하늘이지 않을까.”라

고 감동하며 눈물을 지었다. 나도 이 아름다운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눈물이 절로 흐르고 있었다. 실로 뭇별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다. 조금만 발을 들고 손을 뻗으면 금방이라도 별을 칠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다.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참 아름다워라’ 찬양을 올려드렸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숨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아멘.”



케냐기린 호텔



사바나 지역의 한 호텔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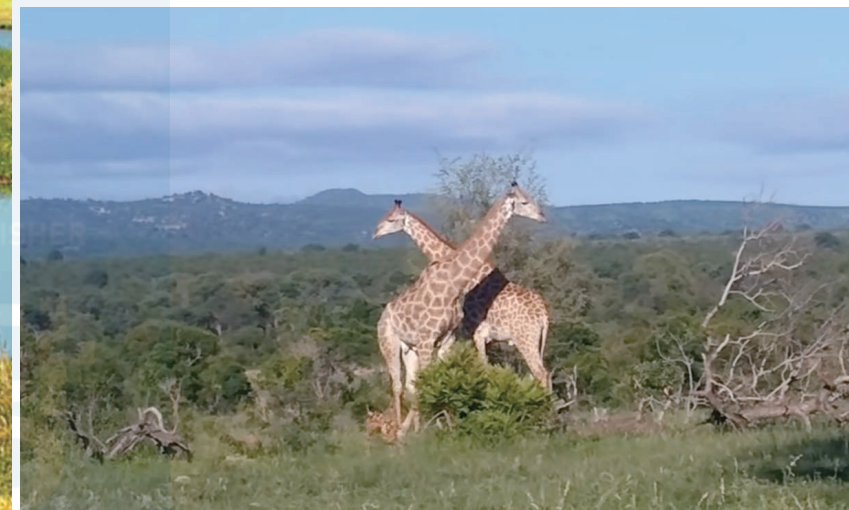
아프리카 선교사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수년간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성도 수는 두 명에 불과했다. 도무지 부흥이 되지 않자 자신에게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고심을 하고 있었다. 그때 한 부족의 족장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몇 번씩이고 찾아가 열심히 말씀을 전했고 드디어 교회에 나오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게 되었다. 그래서 그 선교사는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0여 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교회에 나온 것이었다. 선교사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그 족장의 가족이었다. 그 족장은 아내가 40명이나 되었다. 단 하루 만에 교회의 좌석이 전부 채워지는 큰 부

흥이 일어난 것이었다. 오랜 선교의 결실을 한꺼번에 맺게 되었으니 그 선교사는 너무나 기뻐다.

그런데 선교사는 그날부터 또 다른 새로운 고민을 안게 됐다. 그것은 일부다처제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 족장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었다. 몇 번이고 아내는 한 명이어야 한다고 설명을 해도 족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선교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그 족장은 자신이 지금의 40명 아내 중 한 명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버리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냐고 되물어왔다. 그것이 그들의 생계와 연관된 문제라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그냥 40명의 아내를 두고 살라고 할 수도 없어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족장이 그것을 수용하고 단 한 명의 아내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훗날 알게 된 웃지 못할 기막힌 이야기는 그 족장이 40명의 아내와 모두 이별을 하고, 새로운 아내를 들였다는 것이었다.



선교의 땅끝에서 예수를 전하다

- 1996년 지저스2000 이스라엘대성회 및 평화대행진



중동(Middle East)은 지중해 동쪽부터 페르시아 만까지의 영역을 포함하는 아시아의 서부지역이다. 좁게는 서아시아의 국가들부터 넓게는 북아프리카의 국가들까지 포함한다.

서력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원 1년이라 부르며, 탄생 이전의 해를 기원전 1년이라고 부르는 개념이다. Before Christ(이하 BC)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을, AD는 Anno Domini(라틴어) 즉 '주의 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AD를 After Death라고 종종 오인하기도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를 가리킨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사실이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탄생은 BC(기원

전) 4년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것은 누가복음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구조사가 기원전 4년에 행해진 것과 마태복음 2장에 있는 유아학살령을 낸 헤롯왕이 죽은 것이 기원전 4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것은 1996년이 예수께서 태어나신 지 2000년이 되는 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는 'JESUS 2000'을 기획했다. 순복음교회 성도 3천 명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기획했고, 그와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조 목사님을 강사로 성회를 열기로 한 것이었다.

성도 3천 명이 동시에 이스라엘로 떠나는 것인 만큼 메가 이벤트가 아닐 수 없었다. 때문에 항공편과 호텔 그리고 이동 수단까지, 대규모로 확보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 특히 이스라엘이 중동과 긴장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빈번하게 왕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조 목사님과 우리들 주요 멤버 약 400명은 대한항공 보잉 747-400편을 전세 내어 이스라엘 텔아비브공항으로 곧장 향했다. 다른 성도들은 밀라노, 로마, 파리, 런던, 홍콩, 싱가포르 등 여러 루트를 경유하여 텔아비브로 왔다.

그야말로 민족 대이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이탈리아 밀라



이스라엘은 지중해 동쪽 끝에 위치한 중동의 국가. 남북 길이가 약 400km, 동서 길이가 가장 넓은 곳이 121km에 이른다.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국민 대부분이 유대인이며 종교는 77%가 유대교이다.

노에서는 철도를 통해 파리로 이동한 팀도 있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든 비행 편에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타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했다. 항공편은 물론 한정된 예산 안에서 숙박 시설을 확보하는 것 또한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4성급 정도의 호텔로 예약을 할 수 있었기에 모두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했다.

하지만 여행에는 늘 변수가 있기 마련이다. 3천 명이 동시에 가는 여행이니 문제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건 어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도착한 날 밤은 각종 컴플레인들이 폭풍우처럼 불어닥쳤다. 조 목사님의 요청에 따라 나도 장로회장과 함께 그 밤 내내 호텔을 돌며 성도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했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정말 굉장한 행사였던 것만은 틀림없다.

조 목사님과 한국에서 온 3천 명의 성도들, 31개국에서 모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형제자매, 순복음 교단 1만 명 그리고 CGI 보드 멤버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컨벤션센터 중앙홀과 4개의 부속홀에서 예수 탄생 2000년을 축하하는 대축제를 열었다.

이날 조 목사님은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예수 탄생 2000년을 계기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세계 복음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자.”라고 강조했다. 말씀 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거리를 행진했다. 홀에서부터 국회의사당 그리고 로즈파크까지의 평화 대행진이었다.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서 행진에 참가한 사람들의 표정에는 기쁨이 흘러넘쳤다.

이 ‘JESUS 2000 예루살렘 대축제’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그동안 ‘선교의 땅끝’이라고 불릴 정도로 선교가 불가능했고 개신교의 접근이 어려웠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국제 규모의 개신교 행사를 보란 듯이 치러냈다는 것이었다. 행사에 함께한 많은 사람들은 개신교의 불모 지역으로 터부시 돼 온 이곳에서 힘찬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사실에 감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물론 ‘JESUS 2000’으로 이스라엘 정부가 개신교의 선교를 인정했던 건 아니었다. 그들은 예루살렘 홍보에 이득이 되고 관광 수익 증대가 목적이었지만, 그래도 여의도순복음교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연 동시에 세계 각국에 예수 탄생 2000년을 널리 알렸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예루살렘 대축제와 평화의 대행진 이외에도 참석자 전체가 예수의 사역 현장을 둘러보는 성지순례가 3일간 진행됐다. 베들레헴 성탄교회, 십자가의 길인 돌로로사, 골고다 언덕, 거룩한 무덤교회를 시작으로 성서에 기록된 많은 곳을 방문해 예수님 시대를 목상했다. 예루살렘 성전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옆에 있는 작은 교회는 돌로 만들어졌는데, 이곳 성당의 울림이 굉장해서 동행했던 모두가 다 함께 찬양을 드리며 감동의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 투어 가이드 못지않게 성경에 해박한 여러 목회자들과 동행을 함께했기 때문에 유적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와 유래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 더욱 감격스러운 시간들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이었던 것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성찬 예배를 드린 일이었다. 31개국 5천여 명의 대회 참가자들이 갈릴리 호수 야외

예배당에서 성찬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다시금 되새기고 선교 사명을 다짐했다. 조 목사님은 설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자만 5천여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며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역동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태양 빛이 호수면에 반사되어 더욱 거룩한 분위기가 연출됐고 감사와 기쁨으로 성찬을 나누며 평안에 둘러싸이는 거룩한 시간이 되었다.

사실 예루살렘은 도시 전체가 성지나 다름이 없다. 이스라엘 최후의 보루 마사다 등 일일이 다 언급하기 어려울 지경이라 그것은 전문 서적에 맡기기로 하고 사해에 대해서만 언급해 보고자 한다. 사해의 서쪽 해안은 요르단에 속하며 동쪽 해안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특수한 위치다. 해발 430m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고 수원이 요단강뿐인 아주 독특한 호수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마다 수량이 줄어들고 있어 33%의 염분 농도를 지니고 있다. 해수 염분 농도가 3.4%이라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쉽게 위로 떠오른다. 이것은 증발량이 수분의 공급량을 웃돌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가라앉지 않고 호수면에 둥둥 떠 있을 수가 있어 독서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고농도 염분 때문에 세균을 제외하고는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한다. 말 그대로 죽은 바다, ‘Dead Sea’라고 불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같은 수원을 가지고 있는 갈릴리 호수가 항상 풍족하며 맑은 물로 밝게 빛나고 많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비해 사해는 그 반대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하자면 갈릴리 호수는 받은 물을 풍족하게 흘려보내기 때문에

생물들이 살아 있는 호수가 된 반면에 사해는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죽은 바다가 된 것이다. 신앙도 이와 같아서 받은 은혜를 더 많은 이웃들에게로 흘려보내지 않고 받기만 하면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메시지는 몇 번이고 들은 내용이지만, 실제로 현지에 가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는 조용기 목사

올해 9월 순복음동경교회 성도들과 함께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피는 성지순례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물론 이스라엘에도 방문할 예정이지만, 이번 테마는 어디까지나 바울이기 때문에 안디옥과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리고 순교지인 로마를 순회할 예정이다. 바울과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느껴 보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바울이 왜 신약 성서 27권 중 13권을 쓰는 일이 가능했는지 그 이유도 발견해 보고 싶다.

성령으로 채워진 영적 공허함

- 1996년 핀란드 헬싱키대성회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에서의 성찬식



헬싱키는 유명한 해항이자 핀란드의 산업 중심지이다. 핀란드 남쪽 끝에 있는 이곳은 훌륭한 천연 항구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발트 해가 만입되어 이루어진 핀란드 만에 접한다.

이번에도 백야에 해당하는 계절에 핀란드 헬싱키를 방문하게 됐다. 핀란드 인구는 550만 명으로, 수도 헬싱키에는 최남단 근방까지 포함해서 14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언어는 핀란드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본어나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우랄어족에 속해 문법과 발음 형태도 우리의 언어와 비슷해 놀랐다. 백인인데도 어쩐지 동양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단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핀란드의 야티넨 목사가 중심이 되어 유럽에서 교역자들을 모아 세

미나를 열고 저녁에는 대중 집회가 3일간 개최되었다. 북유럽에서만 4만 명이 동원됐다는 것은 가히 놀랄 만한 일이었다. 북유럽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도 정신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사회적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교회마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옹호하며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성회에서는 낮에 교역자들이 도전을 받고, 저녁에 치유와 성령 세례를 받는 이들이 속출했다. 마지막 날에는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성령 체험을 간증했다. 성회가 끝난 후 한참이 지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귀가하지 않고 간중에 귀를 기울이며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던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복음이 회복하고 있어 기독교의 변화가 절실한 북유럽에 조 목사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 공허함을 달래 주었고,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점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프리카 특유 열정에 충만한 은혜

- 1996년 모리셔스성회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스카렌 제도 중앙에 있는 독립된 섬나라이다. 면적은 2,040 km로 세계 최대의 인구조밀 지역에 속하며, 2020년 기준 평균 622명/km의 인구밀도를 기록했다. 농업에 기반을 둔 발전도상의 혼합 경제체제이며 농업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설탕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

모리셔스 공화국은 인도양 마스카렌 제도에 있는 섬나라다. 과거 화산 폭발로 인해 생성된 섬으로 추정된다. 수도는 포트루이스로 127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영국 연방에 속한 나라이다. 네덜란드령, 프랑스령, 영국령을 거쳐 1968년에 독립한 다민족 국가이기도 하다. 인도계 주민이 7%를 차지하고 있는 탓에 힌두교도가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넘는다. 그리스도교는 29%(가톨릭 26%, 개신교 3%), 이슬람교가 17%이다.



핀란드 헬싱키성회 모습(FGTV영상 캡처)

모리셔스는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천혜의 휴양지로 지구상에 남아 있는 마지막 지상 낙원이라고 불린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경치로 '인도양의 귀부인'이라고도 하지만, 솔직히 나는 이 말에 과장이 좀 섞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건 어찌면 여느 때와 같이 목사님과 내가 관광을 전혀 하지 않아서, 천국과 같은 풍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지 모른다. 모리셔스까지는 서울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편도 20시간을 비행해야 다다를 수 있는 먼 여정이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리셔스는 섬 전체가 온통 사탕수수밭으로 뒤덮여 있었다. 모리셔스는 전에 영국의 식민지였기에 당시 영국인들이 인도인들을 데려와 사탕수수밭 일꾼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인도인이다.



모리셔스 성회는 연인원 5만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성회였다.

당시 모리셔스의 GNP는 겨우 1,900달러로, 국민들 대부분이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다. 모리셔스 제2의 도시인 로즈힐에서 역사상 최초로 개신교 군중집회가 개최되었다. 모리셔스의 목회자들이 직접 서울까지 와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성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여 성회가 성사된 것이었다. 성회는 포트루이스 경기장과 로즈힐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주변의 작은 섬사람들까지 와서 연인원 5만 명이 참석해 작은 도시가 온통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성회가 열릴 때면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거리도 텅 빈 도시로 변했으며 상가들도 문을 닫았고 거리를 오가는 차량도 줄어들었다. 성회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조 목사님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모리셔스 공화국에서 말씀을 전하는 조용기 목사

여러분과 나의 패역을 용서해 주셨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난과 저주, 실패를 대신 지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이 찢겼습니다.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로 값을 지불하셨고, 예수께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와 질병, 가난과 실패의 겉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이러한 겉옷을 벗어 버리십시오.”

이날 주님을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영접한 결신자들이 조 목사님 앞으로 모여 들었다. 불신자들이 대거 참석해 결신의 시간에는 줄을 지어 강대상 앞으로 나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했다. 주님을 모른 채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후회하는 사람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병자를 위한 기도 시간에는 욕심으로 마음의 병이 든 사람들이 병 고침의 이적을 직접 체험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쏟아졌다.

“저는 소아마비였는데 오늘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다리를 다쳐서 3달 반 동안 걷지 못했는데 이 성회에서 기도할 때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다리도 멀쩡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4개월 전에 손가락이 부러져 움직이지 못했는데 지금은 움직여

도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를 완전히 고쳐 주셨습니다.”

“저는 호흡 장애로 숨쉬기가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셔서 지금은 이렇게 숨도 잘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심장과 폐를 치료하기 위해 2개월 동안 영국에 가 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회에서 주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병원도 여러 군데 다니고 약도 무척 많이 먹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오늘 저는 완전히 나았습니다.”

아프리카 특유의 찬양 열기가 넘쳐던 모리셔스대성회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했던 성회로 기억된다. 아프리카 작은 섬나라 모리셔스에서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과 저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빛이 되었다. 모리셔스대성회를 통해 주님의 말씀은 복음의 메아리가 되어 아프리카 곳곳으로 전해지고 또 전해졌다. 모리셔스의 정부 고위 관리도 공식적으로 참가해 성회가 시작될 때 상기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모리셔스 그리스도 교회 전체가 이 작은 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처음이라며 조 목사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것이 다음 날 현지 조간 톱기사로 게재되기도 했다. 이것만 봐도 모리셔스에서 이 성회가 얼마나 큰 이슈였는지 잘 알 수 있었다.

당시 모리셔스에 한국 교포가 딱 한 명 살고 있었다. 인도인과 결혼한 간호사였는데, 조 목사님을 위해 김치와 한국식 반찬을 만들어 오는 등

정성을 다해 섬겼다. 한국에서 모리셔스를 봤을 때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섬이었다. 그런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함께 조 목사님을 수행했던 여의도순복음교회 실업인선교연합회 임원들이 감사하고 감개무량하다며 눈물을 흘렸던 것도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사실 성회는 한 번 불고 지나가는 폭풍과도 같다. 중요한 것은 이 폭풍이 지나간 후 현지에 있는 교회가 성회를 통해 결신한 사람들을 얼마만큼 잘 케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성령의 바람이 크게 불어와 한껏 복음의 열기를 고조시켰는데, 제대로 케어하지 못해 이내 식어 버리고 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기에 안타까울 때도 많았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곱씹게 했던 성회이기도 하다.

이때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서두에서 기술했다시피, 모리셔스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할 뿐 아니라 참치 어장으로도 유명하다. 참치가 모리셔스의 수출 총액의 10%를 차지할 정도다. 그래서 성회가 끝난 후 시간이 좀 남아 우리 수행원들이 보트 두 척을 렌트하여 참치 잡이에 나섰다. 모처럼 조 목사님도 함께 나가게 되었다. 나도 같은 배에 승선했다. 다들 300kg짜리 참치를 잡을 생각으로 들떠 있었지만, 출항한지 10분 만에 모두 뱃멀미를 하기 시작했다. 모두들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멀미가 심해서 낚싯대를 던져 보지도 못한 채 바로 배를 돌려서 항구로 돌아와야 했다. 정말로 조 목사님과 나는 관광과는 인연이 없는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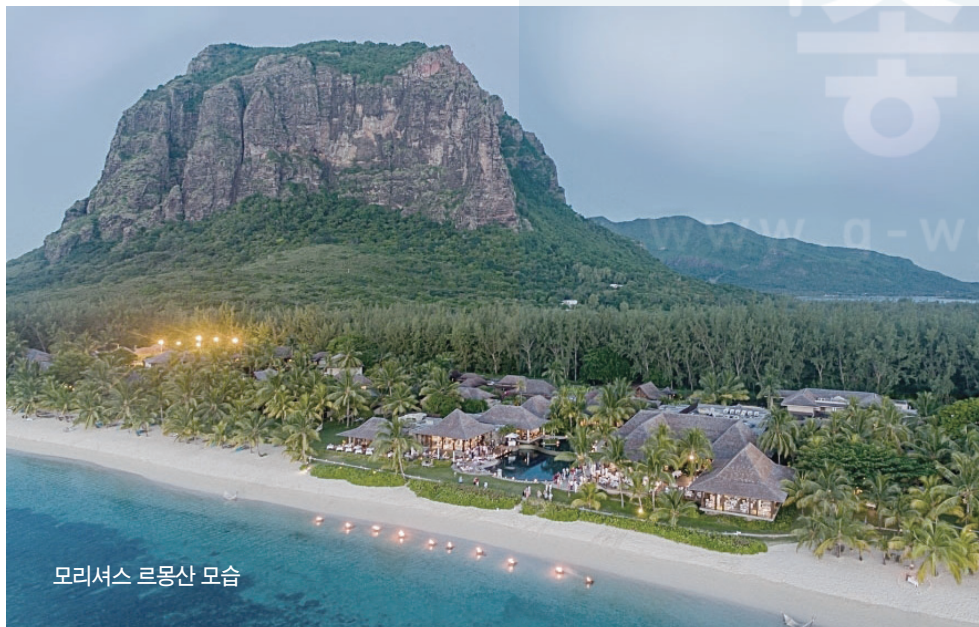
나머지 다른 한 척은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 돌아왔다. 저녁 식사 때 장로님들이 조금 전에 잡았다는 참치가 요리로 나왔다. 나는 원래 생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기쁘게 먹었다. 그런데 지금도 의문으로 남아 있는 게 하나 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라 사진 찍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직접 낚아 올린 참치와 사진 한 장 정도는 남겨 뒀어야 하지 않을까. 쉽게 잡을 수 없는 귀한 참치를 낚았는데 어느 누구도 사진을 찍어 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나 혼자만의 생각이긴 하지만, 실은 낚시 성과가 없었고 식사 때 나온 참치는 시장에서 사 온 거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했다.



모리셔스 해안 모습



모리셔스 블랙리버 협곡



모리셔스 르몽산 모습

인종의 벽을 넘어 예수로 하나 돼

- 199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대성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행정 수도는 프리토리아, 입법 수도는 케이프타운, 사법 수도는 블룸폰테인이며 화폐 단위는 랜드다. 20세기 내내 인종 분리 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를 펼쳐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넬슨 만델라의 지도 아래 흑인 다수당이 승리하면서 1994년 이후 정책 폐지에 이르렀다.



요하네스버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최대 도시이며, 동시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금광업의 중심지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구가 가장 조밀한 지역이다. 과거에는 인종차별 정책으로 인해 유색 인종은 서부와 남서부의 특정 지역에만 거주할 수 있었다.

우리는 모리셔스에서 하늘길로 5시간 여정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로 향했다. 요하네스버그는 그 나라 안에서도 가장 큰 도시로, 인구가 1천만 명이 넘는다. 아프리카 전체에서도 4번째 큰 도시로 꼽힌다.

아프리카 최고의 금융가이자 증권가의 중심지이며 금광 회사의 본사가 대부분 이곳에 있다. 18세기까지 원주민이 살던 땅이었으나 금광과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면서 골드러시가 일어났다. 영국의 강력한 점령 정책으로 현지인과의 마찰이 잦았다. 아직까지도 유색인종 격리 정책으로 그 폐해가 남아 있다. 기후는 표고 약 1,700m에 위치하고 있어서 연평균 최저기온 10도, 최고기온 20도로 매우 살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CGI 보드 멤버인 테오윌마런스 목사의 초청에 의해 크리스천 패밀리 교회와 요하네스버그 세계 무역센터홀에서 성회를 갖게 됐다. 이 교회는 1979년 남편 테오 목사와 아내 비버리 목사가 개척한 교회로, 남아프리카 최대 교회였다. 우리들이 방문했을 때에는 1만 명 규모의 교회였는데, 40년 동안 500개가 넘는 크리스천 패밀리교회가 아프리카 전역에 세워졌다. 신학교도 50여 개나 세웠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부흥이었다. 현재 성도수는 지교회를 포함해 15만 명 이상이며 신학교를 통해 2만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

크리스천 패밀리교회는 예배당 자체가 십자가 형으로 되어 있었다. 강대상은 십자가가 교차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후좌우로 회중이 모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이때 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면을 향했다가

다시 후면을 향하고 또 좌우를 번갈아보면서 매우 분주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비버리 목사가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회중이 성령에 감화되어 말씀 하나하나를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모습이 교회의 큰 부흥을 예감하게 했다. 그리고 그 목사 부부가 조 목사님을 무척이나 존경하고 있었고, 그 마음 씀씀이에 감동받았던 기억도 난다.



크리스천 패밀리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조용기 목사

성회가 열린 무역센터 홀에는 2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서 있을 공간이 없을 정도였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회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했고 영육 간에 치유를 받았다. 고침 받게 된 것을 간증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나오는 바람에 주회 측에서 도중에 중

단을 시켜야 했을 정도였다. 아프리카 최남단에서 열린 성회는 인종의 벽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하나가 되어 모였다. 이처럼 조 목사님에게 주어진 큰 사명에 그저 감동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뜨거운 대륙 아프리카에 성령의 불꽃이 더 뜨겁게 타올라 가난과 저주에서 놓여남을 받고 우리나라처럼 선교대국이 되기를 꿈꾸는 시간이었다.



무역센터에서의 성회 모습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재현되다

- 1996년 인도 뭄베이(뭄바이) 성회



1995년까지 '뭄베이'로 불렸던 뭄바이는 영국 식민지 시절 콜카타와 함께 이름을 알렸던 도시다. 인도의 금융·상업 중심지이자 제1의 항구로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가운데 하나이다.

인도 뭄바이는 12월에도 최저 온도가 25도, 최고 기온은 35~38도를 웃

돌아 매우 무더웠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 갈 때에는 항상 비행기의 현지 도착 시간이 밤 11시 전후였고, 현지 출발 시간도 새벽 2~3시경이었다. 이 성회 때도 밤에 도착해 공항에 내렸을 때 묘하게 먼지가 많았던 기억이 난다. 뭍베이는 영국의 통치하에 있을 때 붙여진 지명으로 현재는 원래 사용했던 지명 '뭍바이'로 불리고 있다. 뭍바이의 인구는 1천 2백 5십만여 명이며 도시권 인구는 2천 3백만 명이 넘을 정도로 큰 도시이다. 역사가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도시로 힌두교가 69%, 이슬람교가 19%, 불교가 5%, 기독교가 4%로 집계되고 있다.

뭍베이는 나뿐만 아니라 조 목사님에게도 충격적인 체험이 있었던 도시이기도 하다. 한 번은 슬럼가에 갔었는데 그때의 일이다. 미리 얘기를 들어서 슬럼가 상황을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눈으로 접하고 보니 가난의 정도가 상상 이상이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의 안내를 받아 슬럼가로 향했다. 하지만 도착하기 전부터 길바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놀랐다. 차라리 도로 한쪽에 널브러져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다.

차가 멈췄을 때 아이들이 무섭게 달려들어 구걸을 하기 때문에 창문도 마음대로 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앉은 쪽 창문 너머로 바깥을 바라보는데, 어린 소녀 한 명이 눈에 들어왔다. 그 소녀는 그릇처럼 보이는 것에서 뭔가를 꺼내 먹으려는 것 같았다. 그 그릇 안에는 새까만 콩처럼 보이는 것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런데 소녀가 그릇 속으로 손을 넣으니까 거뭇한 것들이 흩어지면서 날아올랐다. 거무스름하게 보였던 건

다름 아니라 바로 파리 떼였다. 아무리 손을 흔들어서 파리 떼를 쫓아내도 금방 다시 되돌아 왔으니 소용이 없었다. 그 소녀는 체념한 듯, 파리 떼를 대충 밀어내고는 그릇 안에 죽처럼 보이는 것을 손으로 떠서 먹고 있었다.

그 기막힌 장면을 바로 옆에 있던 조 목사님도 함께 보고 있었다. 이들의 길바닥 삶은 위험천만했지만 사람들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살아가고 있었다. 가난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저주 그 자체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그 후에도 몇 번 더 슬럼가를 갔었지만, 그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그 지역은 여전하다고 들었다. 이것이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다. 복음을 듣지 못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 없도록 온 땅에 주의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전해야 한다.



뭍베이(뭍바이) 슬럼가의 모습



봄베이(뭄바이) 슬럼가의 모습

그런데 사실 앞서 소개했던 마드라스(첸나이)성회에서 연인원 200만 명이 운집한 성회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첫날에 티락나르운동장에 모인 5만 명을 보고 솔직히 실망을 조금 했다. 목사님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죄를 언급하면서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자유가 있다고 설교했다. 설교 후 신유 기도 때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이틀째가 되자 소문이 퍼져서 그 갑절인 10만 명이 모였다.

이날은 맹인 바디매오가 구걸할 수 있도록 증명해 주는 허가증과 같은 외투를 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 치유받은 일을 말씀하셨다. 회중의 고조되는 열기가 느껴졌다. 그리고 삼 일째에는 20만 명이 모였고, 운동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서 꿈쩍달걀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날의 말씀은 중풍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런데 그 말씀처럼 성회 장소까지 들것에 실려와서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한 중풍병 환자가 치유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다. 은혜의 열기가



인도 봄베이(뭄바이)성회모습

고조되었고, 성회 장소가 성령 충만함으로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봄베이대성회는 인도 땅에 초대교회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재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 시대 최고의 타이밍에 목사님을 만났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세계선교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린다.

봄베이에서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 인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교통 체증이 대단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인도에서 성회를 개최할 때면 주최 측에서는 항상 경찰차와 오토바이의 eskort를 준비해 주곤 했다. 봄베이 경찰의 오토바이 선도를 받았지만, 이날 차량 행렬이 늘어지게 되면서 움푹달작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앞에서 오토바이가 선도해 나가려 했으나 차들이 꽉 막혀 있어서 도저히 뚫고 나갈 수가 없었다. 20분 이상을 그 상태로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다. 교통사고라도 난 것인가 싶어서 경찰관에게 물어봤더니 맨 앞에 소가 누워 있는데, 그 소가 이동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인도에서는 힌두교의 영향으로 소가 신성한 숭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소를 죽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 힌두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은 크리슈나인데 소 치기였다. 다음으로 인기 있는 최고 신은 시바로, 그가 타고 다니는 것이 소라고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등에 흑이 있는 인도 제부(Zebu, 뿔이 길고 등에 흑이 있는 소)를 가리킨다. 그런데 물소는 미움을 받고 있어 운반을 하거나 경작용으로 부리고 중국에는 식용으로 쓰인다

고 한다. 들은 바에 의하면 물소는 악마가 타고 다니는 동물로, 기괴 대상이라고 한다. 말이 많은 인도 사람들이 소가 일어날 때까지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광경을 보자니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다. 이날 다행히 누워있던 소가 움직여 줘서 성회 장소에는 늦지 않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인도의 흑이 있는 소(제부라고 부름)의 모습. 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은 도로 위의 소들이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운행을 멈추고 기다려 준다.

출판
도서
중
G-WORLD PUBLISHER
은
따

www.g-world.co.kr

4장

선교열정,
그 위대한 발걸음

개신교 1% 불모지에 성령의 불 지펴

- 1997년 이탈리아 리미니성회



리미니는 이탈리아 북부 마레 키아강 하구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운과 어업을 주된 산업으로 하는 소도시다.

이탈리아 리미니는 아드리아해에 접해 있는 곳으로, 해운과 어업이 주된 산업인 소도시다. 인구는 15만 명으로,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리조트 도시이다. 95%의 국민이 가톨릭 신자이고 개신교는 1% 정도밖에 안 되는 복음의 불모지다. 이런 곳에 이탈리아 그리스도교연합 주최로 3일간 리미니대성회가 열리게 된 것 자체가

기적이나 다름이 없었다. 연인원 1만 명 정도였었는데, 영적으로 동면 상태에 있던 이탈리아에 성령의 불이 지펴진 의미 있는 집회였다. 실행 위원이었던 목사님들 각자가 이탈리아에서의 부흥은 꿈이 아니라고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귀중한 만남이 있었다. 성회에 참석한 마르케타 목사가 주최측과 함께한 조찬 자리에서 내년 3월에 자신이 살고 있는 시실리 섬에 와서 성회를 인도해 달라고 조 목사님께 간청을 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조 목사님이 나와 상의해 보라고 완곡하게 거절하시든가 아니면 2~3년 뒤 일정에 넣든지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는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하셔서, 9개월 뒤인 1998년 3월에 이탈리아 시실리 성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시실리성회는 나에게 있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의미가 깊은 성회였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다시 기술하도록 하겠다.

150만 운집, 헬기 타고 강단으로

- 1997년 브라질 상파울루 남미대성회



브라질 최대의 도시이며 상파울루 주의 주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빨리 증가하는 대도시이며, 세계 최대의 도시군으로도 꼽힌다.

전체 인구 1천 2백만 명에 달하고 도시권 인구는 2천만 명에 이르는 남반구 최대 도시인 상파울루는 이탈리아계와 포르투갈계, 스페인계, 독일계, 시리아계, 유대인계, 일본계가 모인 그야말로 복합 문화 도시로 알려져 있다. 나는 브라질성회 때는 조 목사님을 수행할 수 없었다. 당시에 나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최대 중요 프로젝트였던 CCMM 빌딩의 건설 본부장을 맡고 있었고, 마침 성회 기간이 가장 중요한 공사 시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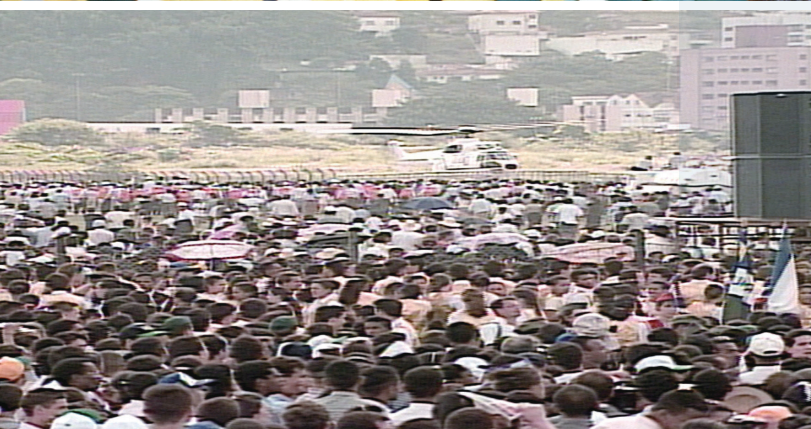


설교하는 조용기 목사

맞물려 있어서 브라질성회에 함께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다음에 적은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영상과 현지 취재를 했던 국민일보나 순복음가족신문 기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들을 모아서 기록한 것이다.



이날 성회에 참석한 군중들, 약 150만 명이 참석했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이날 조용기 목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든 탓에 강단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헬기
를 이용해야만 했다.

제2회 세계하나님의성회연합회 총회와 함께 개최된 조용기 목사 초청 남미대성회는 브라질 상파울루 이비라뿌에라 체육관과 감보지말지 경비행장에서 열렸다. 성회 기간 중에 열린 제2차 총회에서 조 목사님은 세계하나님의성회 소속 교인 3천 5백만 명의 대표로 추대되어 3대 총재에 유임되었다. 이 성회는 브라질의 페르난도 에니키 대통령을 비롯하여 남미 정재계 중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전대미문의 대성회였다.

개최 전부터 100만 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브라질 정부와 교섭하여 경비행장을 빌려서 집회를 열게 된 것이었다. 오전부터 기도회로 시작하여 저녁 성회 직전에는 1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활주로를 포함해 비행장 전체가 성회 장소로 사용됐는데, 오디오 시스템도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브라질 내 간이 화장실들을 모아와서 설치를 했다고 한다. 또 드넓은 활주로와 비행장에 1천 개가 넘는 스피커를 설치하는 데만도 5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았던 성회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끝이 보이지 않았고, 강단 위에 서서 보면 마치 바닷가에 와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고 한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파도가 일렁이는 것처럼 보일 정도란 얘기다. 성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가 TV로 방영되면서 브라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또 그전에 과테말라와 칠레, 파라과이에서 조 목사님 성회가 이미 열

렸었기에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랬으니 당연히 브라질 인근 나라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이다.

그래서 성회 장소에 모인 그 많은 인파를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조 목사님과 페르난도 대통령은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강단 플랫폼까지 헬기를 타고 갔을 정도였다고 한다. 조 목사님은 강단 바로 옆에 내려 뛰어올라가 내빈들과 인사를 나눈 후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음 속에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신앙고백을 했고,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결신을 하며 병 고침을 받았다. 그야말로 성회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성회’였고, 브라질 사람들의 가슴속에 잊을 수 없는 성령의 흔적을 남겼다.

소외된 자들에게 주의 위로 임해

- 2012년 인도 하이데라바드 평화의 축제 대성회



인도 중남부의 도시로, 본래 안드라프라데시 주 소속이었으나 텔랑가나 주가 분리되어 설치되면서 텔랑가나의 주도가 되었다. 인구는 7백만 명으로 인도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이며 벵갈루루, 첸나이와 함께 드라비다어권 남인도의 중심 도시이다.

상파울루성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한참 뒤의 일이지는 하지만 여기서 규모 면에서 필적할 만한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의 성회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이데라바드는 인구 775만 명의 도시로, 인도 중

양에 위치해 있으며 해발 500m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한낮에는 너무 더워서 열사병이나 일사병으로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곳이다. 이번 성회는 이틀간 오전 세미나 한 차례, 저녁 성회 두 차례의 빡빡한 일정이었다. 하이데라바드에서만뿐만 아니라 이웃 도시인 텔리와 첸나이, 펀자브 등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저녁 성회 참석 인원수가 100만 명이라고 발표됐었지만, 실제로는 아마 그 이상 모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계급이 다르면 한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회 장소는 최상위 계급인 제1카스트 브라만부터 신에게조차 버림받은 계급인 제5카스트 불가촉천민 달리트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계급 간에 실제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래서 서로 왕래할 수 없도록 했다. 대략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로만 헤아렸을 때 100만 명 정도로 추산했을 뿐이다. 제5카스트는 시야에서 벗어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까지 합산할 수 없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모인 계급이 바로 제5카스트였기 때문에 성회에 참석한 인원수가 100만 명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 이란 얘기다. 그렇기에 상파울루성회 때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모였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어쨌든, 역사에 남을 대성회였던 것만은 틀림이 없다.

최명우 목사의 인솔 하에 수행한 순복음강남교회의 두나미스무용팀이 훌륭한 특별 찬양 공연을 펼치고 난 이후에 회중의 기립 박수를 받으며 조 목사님이 등단했다. 첫째 날에 조 목사님은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

인이 ‘예수님만 만나면 반드시 나음을 입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에 낫게 된 일화에 대한 말씀을 하였고 둘째 날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4차원의 영성을 말씀하셨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그중에서도 천여 명의 이슬람교도들이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일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무슬림에게 있어서 개종이라는 것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만큼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설교 후 신유 기도 시간에는 간증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수가 넘쳐나서 우리들이 도중에 성회 장소를 빠져나왔을 정도였다. 둘째 날에는 성회가 끝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은혜와 축복의 여운에 잠겨 있었다.

신유의 역사 중에서도 다음의 간증은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놀라웠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몇 분 전에 조 목사님께서 신유 기도를 하셨을 때, 말씀하신 대로 제 손을 제 눈에 갖다 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눈을 떠 보자, 조금씩 주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어리요 귀머거리였던 딸이 들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 두 명의 맹인과 병어리에게 일어난 기적의 장면이 그대로 재현된 듯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는 조흥기 목사



100만여 명이 참석, 하이데라바드 역사상 가장 큰 개신교 집회로 기록되었다.





인도 하이데라바드성회에서 말씀 전하는 조용기 목사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신유의 성회였다.

이들간 치러졌던 성회에서 조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따로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12년간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라는 제목의 설교와 ‘오병이어’라는 제목의 설교를 그대로 옮겨 적어 본다.

12년간 혈루병을 앓은 여인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이다”(막 5:25-34)

당시 혈루병은 부정환 병이었고 저주의 하나로 여겨졌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외롭게 살아가야만 했다. 그리고 이 병은 보
통 오래 살 수 있는 병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간 살아오
고 있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재력 있는 남편이 있었을 것이라고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여인은 긴 투병생활로 외로웠을 뿐 아니라, 유일하게 의지가 되었던
돈마저도 점점 바닥이 나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 여인의 심경을 짐작
해 보자면, 어려서부터 대접만 받으며 살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멸시
를 받게 되었고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있었던 사람이 미움받는 존재
가 된 느낌이었을 것이다. 이미 부정적인 생각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빨리 죽어 버리고 싶다’와 같은 절망적인 생각밖에 들지 않
았을 것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혹은 하나님 따위는 없다며 하나
님을 원망하고 부정했을 것이다. 꿈과 희망 같은 건 가질 여유도 없었
고 그러한 단어가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찾아왔다. 몰락한 자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과 동시에 재회로 기쁜 마음이 부딪혔을 것이
다. 그 친구가 약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었고 돈을 가지고 온 것도 아
니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즉 복음을 전해 주었
다. 그것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보게 하고 말
할 수 없었던 사람의 입을 열었으며 앓은뱅이였던 사람을 일으키고
중풍병자도 낫게 했다는 소식과 바로 그 예수가 잠시 후 여인의 집 앞
을 지날 것이라는 소식이었다. 이 복음을 듣게 된 순간에 그 여인은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라며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제 가
족과도 함께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되살아난 것이었다.

원래 그대로였다면 일어서는 것조차 어렵고 힘들었는데, 꿈과 희망
을 갖게 된 그 여인은 혼신의 힘을 다해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다. 때
마침 예수님과 군중들이 지나고 있던 참이었다. 그 여인에게는 군중
속을 헤치고 들어갈 힘이 남아 있지 않았다. 그래서 기다시피 해서 예
수님께로 다가갔고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나는 나을 것이라고 외치
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 즉시로 여인이 나음을 받게 되었다.

조 목사님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꿈을 갖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
으며 입술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4차원의 영성 원리를 설교했
다. 그러므로 하이데라바드에서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
침을 받게 된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르겠다.

오병이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
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
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
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

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요 6:1-14)

남자만 5천 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남자만 그곳에 모였을 리 없고 교회의 상황상 압도적으로 여성이 더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아내와 어머니, 아이들까지 계수하면 적어도 2만 명 내지는 3만 명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다고 추산할 수 있다. 날이 저물어가 하루 동안의 말씀에 은혜받고 식사도 하지 못한 채 함께 있었던 회중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계산이 빠른 빌립보에게 식사를 준비하라고 명하셨다. 빌립보의 대답은 “할 수 없습니다.”였고, 같은 상황과 같은 시간에 함께 있었던 안드레는 “저는 할 수 없지만, 한 어린아이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갖고 있었기에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결국 그것으로 사람들이 만족할 만큼 나눌 수가 있었다. 나누어 주고도 무려 열두 바구니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두 제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

첫째로, 빌립보는 현실만 보고 부정적인 대답을 했다. 두뇌 회전이 빠른 빌립보는 군중 수를 가히 3만여 명이라 계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조각씩 나누어 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었다. 1데나리온은 당시 평균적인 성인의 일당이었기 때문에 약 10만 원 정도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 즉,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한데 그럴 돈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없다고 답한 것이었다. 안드레도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 다만 안드레는 2천만 원의 돈이 없는 현실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든 해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생겼고, 열심히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던 것이다. 그 결과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을 발견했고 소년의 양해를 얻어 예수님 앞에 그것을 가져온 것이었다. 빌립보의 계산에는 예수님이 빠져 있었으나 안드레의 계산에는 전지전능한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람이 눈앞의 현실만을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플러스한다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다.

둘째로, 빌립보는 군중을 먹이고 싶다고 하는 뜨거운 마음, 곧 꿈이 없었다. 그러나 안드레는 어떻게든 해 주고 싶다는 간절한 꿈이 있었기 때

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꿈은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꿈이 없는 백성, 환상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잠언 29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다. 또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지요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라고 했다. 우리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라도 꿈을 꾸어야 한다.

셋째로는, 빌립보는 없는 것만을 생각했다. 돈이 없고, 식당이 없고, 가게가 없으니 어찌할 방법도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고 또 냉정하리만큼 현실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빌립보가 주변에 없는 것만을 먼저 보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지 모르는 희망을 아예 찾으려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안드레는 주변에 도시락을 가진 소년을 찾았고 비록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했지만 그 도시락이 있음에 감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병이어를 기적으로 바꿔 주실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께서 함께 계심에 감사했다. 그 결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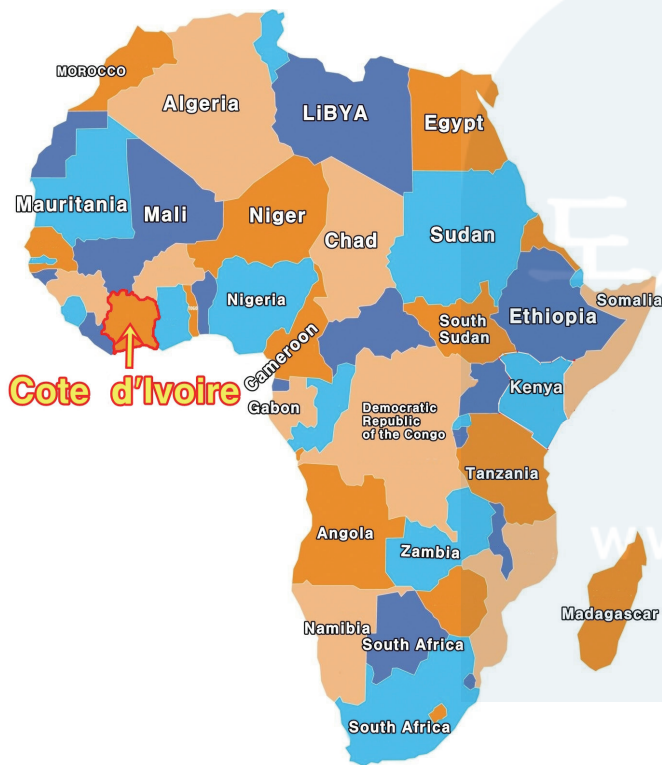
그러므로 기적을 바라다면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는 일부러 시작해 보자. 그리고 주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품고서 그 꿈이 주님 안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와 동시에 입술을 통해 반드시 이뤄진다고 선포를 해 보자.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일말의 의심도 없이 온전히 믿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4차원의 영성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없을 것이고 이루지 못할 꿈이 없다는 것을 믿어 보자.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에는 아직도 카스트제도가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카스트제도에서 브라만(사제)과 크샤트리아(왕족, 무사), 바이샤(평민), 수드라(노예)라는 4개의 계급 외에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계급이 바로 제5계급인 달리트(불가촉천민)다. 하이데라바드 성회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지만, 가장 많이 구원받은 계급이 바로 불가촉천민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예수께서 가장 약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구원의 성회였고, 눈물과 기쁨, 위로가 가득했던 기적의 성회였다.

항공편 캔슬까지 예비하신 하나님

- 2001년 코트디부아르성회



아프리카 서부 내륙 지역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는 상아해안국이라고도 부른다. 공식적 행정수도는 야무수크로나 아비장이 실질적 수도 역할을 한다.

2001년 8월 파리를 경유하여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장으로 향했다. 코트디부아르에는 '야무수크로'라는 별도의 법률상 수도가 있으나 실제로는 아비장이 수도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번에도 26시간이나 되는 긴 여정이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당시 코트디부아르의 로런 바그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성회에 참석해 회중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정도였다. 이틀 동안 열광적인 기도와 찬양이 들려졌던 성회로, 연일 5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더욱 압권이었던 것은 이틀 동안 2만여 명이 결신을 했다는 사실이다.

조 목사님은 '새로운 자화상을 그려라'라는 제목으로, 44년간의 목회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위대한 복에 대해 설교했다. 사람의 삶은 자신이 그리는 자화상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병이 낫게 된 자신, 성공한 자신, 따뜻한 가정을 이루는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 나가라고 전했다. 성회 본부에는 신유 기적을 체험한 1천 명이 넘는 성도들의 간증이 연일 전해졌고, 그야말로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던 멋진 성회였다.

코트디부아르에서도 기적은 예외없이 일어났다. 조 목사님과 수행진들은 예정에 없었던, 바그보 대통령과 그의 관저에서 치리질 오찬 자리에 초대받게 되었다. 우리는 가나에서의 성회 일정이 연달아 잡혀 있어서 그날 오후 4시 비행기를 타고 가나의 수도인 아크라로 향할 예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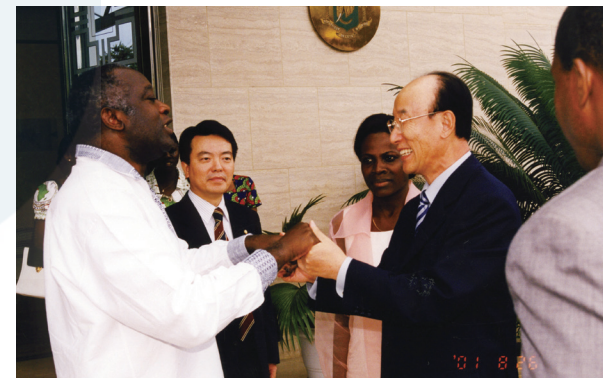


코트디부아르성회 모습

그러니 바그보 대통령과 점심식사를 함께해도 일정상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오찬 초대를 수락했다. 성회 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조 목사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는 바그보 대통령의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요청이었다. 조 목사님과 바그보 대통령이 오찬을 함께 하면서 나눴던 담소 또한 굉장히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마친 후 바
그보 대통령과 함
께 기도하는 모습



바그보 대통령과
담소를 나누는 조
용기 목사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당시에 코트디부아르와 가나를 오가는

항공편은 하루에 단 한 편만 운항 중이었는데, 수행 일원 중 한 장로님이 내게 다가와 그 항공편이 갑작스레 캔슬이 되었다고 살짝 알려 주었다. 정말로 난처한 상황이었다. 가나에서의 성회가 바로 다음날 오전에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비행기를 타고 가나에 도착해야 했다. 그런 상황에 하루 한 대뿐이었던 항공편이 취소되다니 난감할 따름이었다. 그때 바그보 대통령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무슨 일이 있느냐 물어왔다. 숨길 것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가나로 가는 유일한 항공편이 결항되어 곤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바그보 대통령은 수화기를 직접 들어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서 짧은 대화를 나누더니 마지막에 감사하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염려 마세요, 방금 가나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 전용기로 조목사님과 그 일행을 모시겠으니 가나 공항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내려달라고 부탁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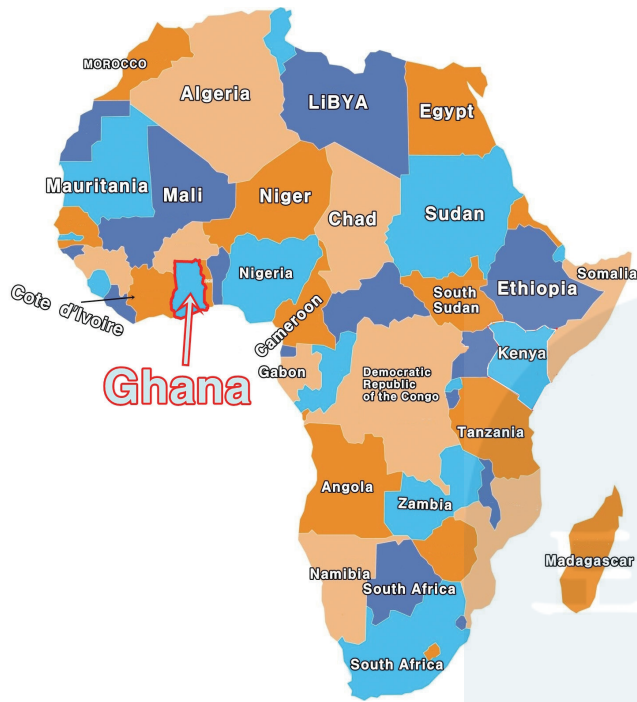
우리 일행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처음 얼마간은 어안이 빙빙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포옹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하나님께서 사전에 예정에도 없던 오찬을 준비해 주시더니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을 통해 취소될 운항 편을 대신할 길을 열어 주셨던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나 멋진 분이셨다. 우리가 타고 갔던 비행기가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전용기였으니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에어포스 원이었던 거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리는 조목사 목사



가나 존 쿠파오르 대통령과의 면담 장면



가나는 서아프리카의 기니만 해안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아크라다. 국민은 99%가 흑인이며 언어는 영어와 토착어를 사용한다. 주로 농업과 광업에 의존하는 복합경제로 이루어진 개발도상국이며 경제는 어렵다.

세계선교에 몸담고 있다 보니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야훼이레,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지킴이이며 축복이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에 걸쳐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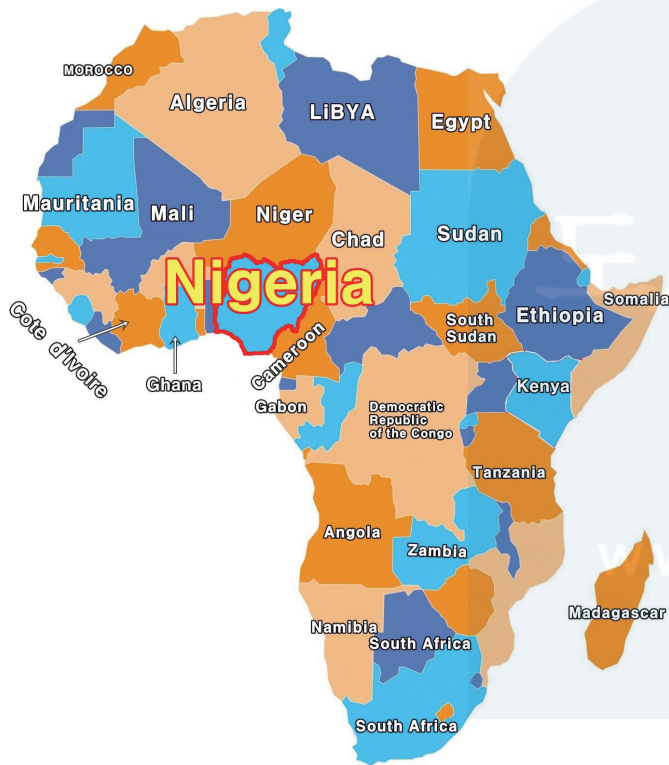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빌 1:3-8)

이 서신의 결론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였다. 우리들은 코르디부 아르에서 이 말씀 그대로를 몸소 체험했던 것이다. 할렐루야!

검은 대륙에 불어온 성령의 바람

- 2002년 나이지리아성회



나이지리아는 서아프리카 연안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 나라다.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 북쪽으로는 니제르, 북동쪽으로는 차드호, 동쪽으로는 카메룬, 서쪽으로는 베냉과 접해 있다. 건조한 기후부터 적도 주변의 매우 습한 기후까지 다양한 기후대를 가진다.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으며,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상당하다.



아부자는 아프리카 중서부에 있는 나이지리아의 수도로 원래 주목받지 못하던 평범한 지역이었으나 20세기 중엽 나이지리아의 독립 후 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에 의해 국토의 정중앙에 있는 이 지역이 수도로 선정되어 계획도시로 건설되었다.

2001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목사님께서 주관하셨던 기도회 참석을 계기로 연을 맺게 된 나이지리아 오레스건 올루세군 오바산조 대통령이 자신의 나라에서 성회를 열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그리고 오바산조 대통령의 영부인 스텔라 오바산조 여사가 직접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방문해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고 조 목사님을 만나서 2002년 나이지리아대성회 주강사로 공식 초청했다. 스텔라 여사는 “오바산조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조 목사님을 모시고 특별 예배를 드린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있다.”라며 “조 목사님 성회에

나이지리아 국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렇게 해서 개최하게 된 것이 바로 ‘조용기 목사 초청 나이지리아 대 성회’였다. 서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이지리아는 가뭄과 기아로 고통받는 동부아프리카에 비하면 비교적 생활 형편이 나은 편이다. 하지만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민심이 매우 불안한 가운데 있었고, 고질적인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 또 뿌리 깊은 종족 간 종교 갈등과 내전의 후유증으로 항상 긴장감이 감도는 불안한 평화가 하루하루 이어져 가고 있었다. 특히 이슬람교 율법 사이라 때문에 남부와 북부가 미묘하게 대립하며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런던을 경유해서 나이지리아의 최대 도시인 라고스(Lagos)로 향했다. 이 역시 편도로만 24시간이 소요되는 긴 여정이었다.

믿음 좋은 크리스천이었던 오바산조 대통령은 조 목사님을 나이지리아의 국민으로 초청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은 나이지리아 언론의 집중 세례를 받았다. 특히 공항 귀빈실로 조 목사님을 취재하기 위해 기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자 성회 주최 측은 기자들을 통제했다. 이에 기자들의 거친 항의가 이어졌고, 결국 기자 회견장을 더 넓은 곳으로 옮기게 되었다.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주도해서 개최하는 성회였던 만큼 기대감도 대단했다.

그리고 그 기대만큼 실제로도 성회가 치러졌던 3일간 총 1백만 명이 넘는 회중이 모였고 그중에서도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다. 성회 시간이 저녁인데도 성회 장소 주변은 아침부터 성회 인파로 붐볐다. 불안한 치안 때문에 조 목사님은 경찰차와 무장 군인의 호위를 받으며 성회 장소에 도착했다. 이번 성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나이지리아를 사로잡은 사탄의 세력들을 쫓아내고 이 땅에 부흥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조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이지리아의 희망이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나이지리아 성도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메시지로, 긍정적인 생각이 꿈을 불러오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로 선포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전했다. 그와 함께 조 목사님이 나이지리아가 세계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선포하자 큰 감동과 기쁨으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눈이 반짝였다.

그들은 전쟁으로 얼룩진 땅에 평화가 넘치기를 기도했고 갈등으로 고통받는 땅에 화합이 깃들기를 기도했다. 조 목사님이 전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메시지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을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일어서게 했다. 이번 성회로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고 복음의 대륙, 성령의 대륙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나이지리아성회 모습



이 성회에는 당시 국제연합사무총장으로 역임 중이었던 코피 아난의 부인이 직접 참석하여 조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은 후, “한국을 방문해서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또 세계감리교협의회 의장이자 이번 성회 대회장이었던 선데이 마방 감독도 “영적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설교해 준 것에 감사한다.”라며 “나이지리아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3일 동안 라고스 프레이어시티(Prayer City)에서 열린 성회를 마친 후, 조 목사님과 우리 일행들은 나이지리아의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인 수도 아부자로 이동했다. 오바산조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까지 보내주면서 대통령 궁으로 조 목사님을 초청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전용기 덕분에 공항에서 바로 대통령 궁으로 직행할 수 있었다. 과거 군사 정권 시절 나이지리아는 이슬람의 통치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궁 안에는 이슬람 사원이 있었다. 최초의 민선 대통령으로 기독교 신자인 오바산조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통령 궁에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 이 뜻깊은 교회에서 조 목사님은 정부 각료들과 그 가족, 그리고 대통령 궁내 정부 관계자들까지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일 예배를 인도했다.

성찬예배로 드러진 이날 예배에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것은 모두가 성전에 들어가고 난 후, 조 목사님과 오바산조 대통령이 입당할 때의 모습이였다. 갑자기 리드미컬한 복음성가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니 대통령이 춤을 추면서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확실히 아프리카 사람들의 리듬감이 대단했지만, 특히 잊을 수 없었던 것은 함께 있던 조 목사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려 이동하는 조용기 목사와 필자



조용기 목사와 오바산조 대통령

님도 오바산조 대통령과 함께 춤을 추면서 들어왔던 장면이었다. 예배의 분위기는 매우 열정적이면서도 모두가 경건했고, 기쁨이 넘치는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다.



대통령 관저 부속 예배당으로 입장하는 모습



관저 직원들로 이뤄진 성가대와 예배의 모습



대통령 관저 부속 예배당에서 말씀 전하는 조용기 목사

현재, 중앙아프리카는 이슬람교가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서 이전에 기독교인들이 장악하고 있던 나라도 대부분 모슬렘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있다. 나이지리아도 예외는 아니다. 그 때문에 아프리카 각지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종교적 분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중이다. 다시 한번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다시금 아프리카 대륙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할 뿐이다.

대만교회 부흥 원동력 '4차원의 영성'

- 2003년 대만 타이베이성회



대만은 중국 본토의 남동 해안에서 161km 떨어진 곳에 있는 섬나라다. 수도는 타이베이로,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며 국민의 98%는 한족으로 문맹률이 낮고 전체적으로 중국 문화가 우세하다.

나는 조 목사님만큼 대만의 기독교인들에게 사랑받는 목회자를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처음 대만을 방문했던 1980년에 대만의 크리스천 비율은 국민의 2%도 채 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7% 이상으로 부흥했고, 수도 타이베이는 9%를 웃돌고 있다. 그야말로 엄청난 대부흥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알기로는 현재 성도 수 3천 명이 넘는 교회도 열 곳이나 된다. 그에 비해 일본은 아직도 복음화율 1%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만에서 성령운동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만에는 조 목사님의 제자임을 자처하며 대형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는 60명의 목회자들의 모임인 Dr. Cho's school이 있다. 이 모임은 40년 전,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던 대만의 목회자들이 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훈련을 받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아세아성도방한 대성회라 불리는 이 영성훈련은 해마다 여름이 되면 대만을 중심으로 하여 4천여 명의 중국계 교역자와 성도들이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오산리 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을 찾아와 교회 성장의 원리를 배우고 있다. 여기

서 배운 그대로 대만에 가서 사역을 하고, 그 결실로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한 목회자들이 Dr. Cho's school을 만들게 된 것이었다. 내가 다 질투가 날 정도로 대만의 목회자들은 조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목사님도 매해 대만을 방문하여 성회를 인도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전하고 격려해 왔다. 이처럼 끈끈한 사랑으로 이어져온 결과가 바로 2003년 조용기 목사 대만 대성회였다.

대만은 전통적으로 불교와 유교, 도교 등 민간 토속신앙이 강해 대부분 가정에 제단이 있고 조상신과 우상을 숭배한다. 도심 속에도 화려한



대만(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는 타이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며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그린시티이다.

사원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성회는 대만대학교 종합체육관을 대관하여 이틀 동안 개최됐다. 연일 2만 5천 명의 성도들이 모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대만의 영적 각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 성회 준비위원장인 대만목회자연합회 장마오송 목사는 “조 목사님의 믿음과 기도, 말씀, 성령 충만함은 모든 대만 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며 ‘대만 교회들이 지난 20년간의 펼쳐온 기도운동은 모두 조 목사님으로부터 배웠고, 대만 교회들의 성령운동 기초와 믿음의 성장도 모두 조 목사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끝없이 쏟아지는 환영의 박수를 받으며 등단한 조 목사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강한 믿음과 열정적인 기도, 성령 충만한 신앙 생활이 우리를 전인적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다. 또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도 설교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못별을 보여주셨을 때 그에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 싹텄던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시각적으로 꿈을 그리며 성취되기까지 반드시 사라지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기억도 난다.

이어진 결신의 시간에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성회에 참석한 승려 한 분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놀라운 일도 벌어졌다. 그리고 조 목사님이 신유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인도한 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허리를 고치셨다.”면서 나와서 간증하라고 말씀했다.

그러자 한 성도가 나와 “목사님께서 신유 기도할 때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허리가 이렇게 움직이게 됐다.”라고 고백했고, 또 다른 성도는 “허리가 치료함을 받았다.”라며 “기도를 마치고 나서 허리가 아주 편히 잘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간증했다.

“저는 양쪽 다리의 길이가 달라서 항상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할 때 완전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사람을 봐도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좋지 않았는데 지금 사람들 얼굴이 잘 보여요.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대만 성도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충만하게 채워 주었던 이 성회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영적 회복을 이룬 귀한 시간이었다. 그들은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찾아서 기쁨이 넘쳤다. 성회의 테마가 ‘절대 포기하지 말라(Never give up)’였던 것처럼 지치지 않는 대만 성도들의 열정이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고 기억에 오래 남아 있다. 이 성회를 계기로 대만의 교회들이 믿음의 등불을 높이 들고서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향한 복음의 등대에 불을 밝혔고, 성도들이 성령의 강한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장이 되었다.



타이베이에서 영적 갱신과 부흥을 위한 성회를 인도했으며
5만여 명이 참석했고, 대만 천수이벤 총통도 참석했다.



그리고 성회 기간 중에 천수이벤 총통의 초청으로 조 목사님은 총통부를 방문하고 30여 분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양국의 경제 협력, 종교적 관심사 등에 대해 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천수이벤 총통은 “세계적 기독교 지도자인 조용기 목사님과 일행이 대만을 방문해 준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대만에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이 전해져 아름다운 축복의 섬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조용기 목사는 “총통의 지도력으로 대만 사회가 안정되고 번영하고 있다.”라며 “한국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인데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대만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 대만 교회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간절히 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조 목사님을 수행하는 일 덕분에 세계 지도자들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도 자주 생겼다. 이것이 바로 선교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선물이 아닐까 싶다.



천수이벤 총통과 회담하는 조용기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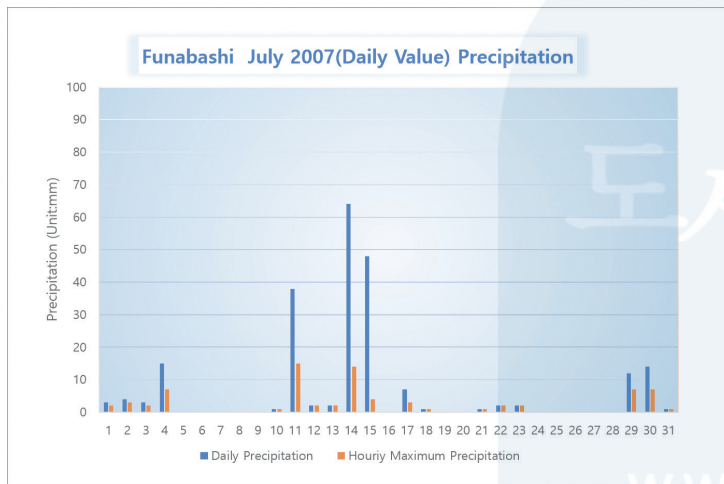


천수이벤 총통으로부터 감사의 선물을 받고 있는 조용기 목사

일본 '일천만 구령운동' 가능성 확인

- 2007년 올 재팬 지저스페스티벌

2007년 7월 16일 ALL JAPAN JESUS FESTIVAL



2007년 7월의 강수량 도표

2007년 7월 14일 일본에는 태풍이 상륙해 열도 전체를 휩쓸면서 복상을 했다. 그래서 성회 당일까지도 강사인 조 목사님이 일본에 일정대로 도착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했다. 특히 성회 장소가 있는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부근은 이미 엄청난 폭풍우권에 진입해 있었다. 당시의 강수량을 보면 알겠지만 성회 전날까지도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 내리고 있었

다.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는 대다수 항공기가 결항이 되었고 목사님이 탑승하기로 예약되어 있던 비행기도 뜨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삿포로 쪽으로 회항해서 오시는 항공편을 검토해 뒀을 정도였다.

일본항공사는 이미 서울행 비행 편 결항을 발표한 상태였는데, 대한항공은 다행히도 15일 오후부터 정시대로 운항을 하겠다고 발표해 조 목사님의 출국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었다. 나중에 일본에 도착한 목사님은 비행 중 상공에서 기체가 엄청나게 많이 흔들리는 바람에 힘들었다고 했다. 그래도 어찌 되었든 올 재팬 지저스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첫 관문은 통과한 셈이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폭풍우였다. 그렇지 않아도 비가 오면 성회에 오는 인원이 2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는데, 단순한 비가 아니라 폭풍우였으니 예상 인원의 절반가량은 오지 않을 게 불 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매시간 일기예보를 확인해 가면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이 큰 집회를 열기 위해 1년 넘게 순복음동경교회 교역자들과 성도들을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순복음교회와 일본리바이벌동맹, 재일한국기독교선교연합회, 간사이선교협력회 그리고 여의도순복음교회 실업인선교연합회 등의 협력을 얻어 준비해 왔는데 그 모든 노력이 전부 수포로 돌아갈 위기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성회 장소를 대관한 비용은 물론 성회를 준비하는 데까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쏟아 넣었던 터라 재정적 부담도 상당히 컸다.

모두 걱정하는 마음으로 내게 연락을 해 왔지만 왜인지 모르게 나는 마음이 편안했다. 그래서 염려하는 이들에게 나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일은 날이 갠 것입니다.”라고 장담을 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둘째로는 지금껏 조 목사님의 성회가 우천으로 인해 중지됐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누가 뭐라 하든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맑게 갠 하늘을 그리고 있었다.



7월 16일 오전, 한 차례의 폭풍우가 지나간 이후 마쿠하리센터 모습

그런데 정말로 성회 당일 아침은 살짝 껴 있는 구름 사이로 푸르게 갠 하늘이 보였다. 일본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순복음교회들에서 성도들을 실은 버스가 서둘러 성회 장소로 출발했다. 거리가 먼 오사카와 나고야 지역 성도들은 새벽밥을 지어 먹고 출발해 6시간에서 8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성회 장소로 달려왔다. 이번 성회에는 조 목사님의 제자교회들은 물론 일본교회와 선교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다. 이른 아침부터 성회 장소에서 봉사하는 스태프들은 기쁨으로 성도들을 맞을 준비를 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성회였다.



이벤트회장 입장을 돕고 있는 봉사자들

일본 선교는 조 목사님의 목회 인생 가운데 가장 심혈을 기울여 온 사역 중 하나였다. 복음의 불모지라 불리는 일본 땅을 향해 1976년 ‘일천만 구령 운동’을 선언한 이래로 지금까지 일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쏟아왔다. 일본에서 치러진 조 목사님의 공식적인 성회만 세어봐도 100여 차례 이상 된다. 이 숫자는 미국에서의 80여 회 개최 수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다. 이렇게 수치만으로 비교해 보아도 조 목사님이 일본의 구원을 위해 마음과 시간을 얼마나 많이 할애했는지 알 수 있다.

내가 더욱 감사한 것은 일본에서 개최되는 성회에서는 항상 조 목사님과 동행하며 주옥같은 그 말씀들을 통역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은혜받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펼쳐진 그 선교 현장에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였는지 요즘 생각해 보면 더욱 감사해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지저스페스티벌 모습



45년 전, 조 목사님이 일본 ‘일천만 구령 운동’을 선포했을 당시만 해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여겼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올 재팬 지저스페스티벌을 통해서 비로소 일본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일본 일천만 구령 운동이 조 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는 희망을 보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일본 일천만 구령 운동을 선포하고, 또 끊임없이 일본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일본 선교의 중심점이 되어준 조 목사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성회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꿈꾸고 믿고, 입으로 시인한 모든 것을 그대로 이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치상으로 보면 아직 일본 선교가 가야 할 길이 까마득하게 멀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비전을 갖게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자 성령의 인도하심이며 기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비전을 말하는 이들의 빛나던 얼굴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서두에서 언급한 ‘일본이 선교의 불모지’라는 것은, 일본 땅으로 건너와 자신의 생애를 바친 무수히 많은 선교사들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조 목사님이 일본 일천만 구령운동을 선포했을 때 속으로 비웃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마쿠하리에서 치러진 성회는 일본에서도 교회의 부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실제로 일본에서 1천 명 규모의 집회를 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의 1천 명 집회는 한국으로 치자면 1만 명 규모의 집회와 버금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올 재팬 지저스페스티벌이 열렸던 마쿠하리 이벤트홀의 7

천 석을 꼭 채우고도 넘치도록 많은 인원이 모였다는 것은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 기적이었다.

앞서 기술했다시피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100여 곳 이상 되는 교회가 동참하고 협력해 주었다. 특히 본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진행되었던 각 교회별 찬양 대회는 그야말로 압권이었다. 게다가 이 성회만을 위한 ‘탤버린 선교회가 결성되었고, 이들이 연습에 연습을 거듭해서 결국엔 무사히 무대에 올라 큰 감동과 은혜를 선사했던 기억도 새록새록 되살아난다.





각 교회별 성가대 및 율동팀

목사님이 항상 말했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의 실천이었다. 이번 성회의 열매는 실로 일본 그리스도인들의 의식개혁이었다. 목사님은 항상 전력을 다해 설교해 왔는데, 이날만은 특히 더욱 말씀에 온 힘을 실었다. 통역하고 있던 나도 그 에너지에 힘입어 더욱 대담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오직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성숙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삶을 방해하는 사탄의 시험과 환난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바뀌게 됩니다.”

2007 을 재팬 지저스페스티벌로 인해 일본 선교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열도 전역에서 모여든 성도들이 복음의 황무지인 일본이 변화되도록 눈물로 기도했다. 재일 한국인 성도는 물론 일본인 성도들도 방언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은 이웃에게 작은 피해도 주지 않으려 큰 소리를 잘 내지 않는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렇기에 일본 일천만 구령 운동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이 비전은 세상의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설교를 기다리는 조용기 목사와 필자(통역)





2007 올 재팬 지저스 페스티벌 전경



순복음동경교회 연합성가대

2022년 4월에는 삿포르신학교가 개교한다. 순복음동경교회 삿포르성전 시설을 신학교의 강의실로 삼고 그 근처 부속 맨션을 기숙사로 정비했다. 한국에서 매해 10명의 신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일본어 어학당도 겸하면서 철저한 선교사 교육을 진행하여 일본어로 유창하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다. 매일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며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신학교가 될 것이다.

현재 순복음동경교회의 모든 성도가 '100곳의 교회 개척' 비전을 품고서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며 매진하고 있다. 이 비전 또한 하늘나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믿는다. 이것이 내게 있어서 목회 비전이자 조 목사님의 제자로서 꼭 이뤄야 할 사명이기도 하다. 그래야 일본 일천만 구령 운동에 있어서 하나의 기둥이 되어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삿포르에 오실 일이 있다면 삿포르신학교에 부디 들리 주기를 바란다. 마음 깊이 환영하고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싶다.

책 말미에는 필자의 줄거인 석사학위 논문인 <조용기 목사의 교회 성장 이론과 세계선교의 연구>의 일부를 발췌해 실고자 한다. 게재한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자면, '조용기 목사님의 일본 일천만 구령 운동'에 관한 것들이다. 그야말로 논문을 발췌했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글은 아니지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배출한 휘튼대학교를 비롯해 풀러신학교와 오렐로버츠대학교, 달라스신학교, 고든-코넬신학교, 프

린스턴신학교, 리젠트신학대학원 등 미국의 저명한 대학 도서관에도 비치되어 있는 논문이니 꼭 읽어 봐 주기를 바란다.

선교는 절대 혼자 못해...

- 1998년 이탈리아 시실리성회



이탈리아 수도는 로마다. 공식어는 이탈리아어로, 국민은 이탈리아계이며 주로 로마 카톨릭교를 믿는다. 양원제를 가진 공화국이다.

앞서 기술했던 리미니성회 때 약속한 대로 목사님은 시실리섬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개최된 것이 '조용기 목사 초청 시실리성회'다. 시실리 파라 스포츠 공설운동장에 2만 명이 모인 대성회였다. 가톨릭이 강한 이탈리아에서 개신교 집회는 누구도 상상해 보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초대교회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성령 충만한 성회였다.

그런데 이 성회를 '나에게 있어 평생 잊을 수 없을 성회였다'라고 언급했던 이유가 있다. 그것은 1997년 11월 국가 경제가 어려워져 한국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한국의 경제성장이 끝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던 때에 생긴 일이라 충격이 더욱 컸다. 너도나도 해외여행을 다니고 외화를 평평 쓰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설마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었다.

당시 나는 CCMM빌딩의 건설본부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IMF 여파가 더욱 크게 다가왔다. 1달러당 900원이었던 환율이 2주 만에 2,000원을 돌파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계약을 마친 뒤에 생긴 일이라 그나마 타격이 적었지만, 엄청난 위기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일찍 IMF가 터졌다면 CCMM 빌딩 건설은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조 목사님과 선교여행에는 항상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150명 정도 되는 교역자와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수행하게 되었다. 모두가 호황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IMF 외환위기를 경험하게 된 것이었다. 지금이야말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살릴 때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모아 나라에 바쳤었다. 장로들은 스스로 당시에 순금이었던 장로 배지까지도 현금 주머니에 넣었을 정도였다. 조 목사님도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애국의 일환으로 1998년 상반기에 성도들의 선교 여정 수행을 금했는데, 이는 조금이라도 외화를 아껴 보려는

마음에서였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목사님 홀로 선교 여정을 가실 수도 없었기에 외국인이었던 나만큼은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이제 와서 말하지만, 이것은 무척 기분이 좋았던 일이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봐라, 1,500명이나 되는 장로들이 있어도 역시 결국은 시가끼 장로잖아'라며 마음속 깊이 자만한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이다. 그렇게 해서 혼자서 수행해서 가게 된 선교지가 바로 이탈리아 시실리섬이었다. 들뜬 마음으로 선교 준비를 진행했다. 마르케타 목사와 면밀하게 협의하면서 연락을 주고받았고, 확인에 확인을 거듭해 가며 시실리 선교 출발 날을 맞이하게 됐다.

당시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이 이탈리아와의 무역이었기 때문에 많게는 1년에 무려 7~8차례나 이탈리아를 왔다 갔다 했을 정도였다. 로마와 피렌체, 밀라노를 중심으로 거래를 하는 패션사업이었기 때문에 이탈리아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었다. 시실리섬에 가 본 적은 없었지만 현지인 친구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정보는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 시실리섬은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거의 아프리카에 인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맑은 날에는 섬 남부에서 아프리카가 보일 때도 있다고 했다. 기후는 온난한 편으로, 3월 말은 초여름에 가까워 매우 따뜻하다고 했다. 그래서 날씨에 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다. 출발하기 전에 목사님이 복장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도 자신 있게 여름철 복장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물론 내가 수

집한 정보로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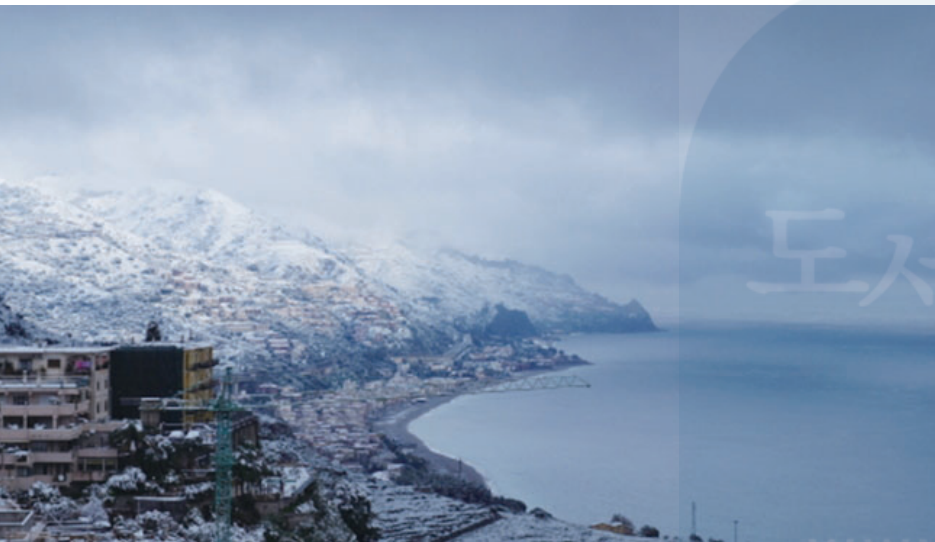


시실리섬은 이탈리아의 자치주이자 지중해 최대의 섬이다.

3월 25일 출발하여 로마에서 하룻밤을 체류한 후 오전에 이탈리아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시실리 카타니아 공항으로 향했다. 성회는 시실리에 도착한 당일 3월 26일부터 시작되어 첫째 날에는 옥외 스타디움에서 저녁에 예정되어 있었다. 로마에서도 땀이 날 정도로 더웠기 때문에 시실리는 당연히 더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비행기 창밖을 바라봤는데, 너무 놀라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더워 보이는 커닝 주변 일대가 눈으로 하얗게 뒤덮여 있는 것이었다.

나중에 들어 보니 기상 관측 역사상 유례없는 기상이변으로 눈이 내렸다는 것이었다. 현지인들조차도 이런 경험은 난생처음 있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공항에 도착하여 환영을 받은 후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남성용 바지로 방한용 내의를 사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여름철 복장이면 충분하다고 했기에 목사님은 그 말만 믿고 여름 옷만 챙겨 오셨기 때문이다. 나로 인해 자칫 감기라도 걸리게 될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탈리아 시실리섬 전경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목사님을 방으로 안내해 드린 후 바로 밖으로 나왔다. 성회가 당일 밤에 열리는 데다가 장소도 실내가 아니라 야외였기 때문에 내의를 사는 게 너무나 시급한 일이었다. 마르케타 목사에게 물어보니 당시 기온이 5도 이하라고 했다. 백화점과 양품점 등 내의를 팔고 있을 만한 가게를 전부 돌아다녔지만 이탈리아에는 원래 내의 같

은 것이 없다고 했다.

저녁 무렵이 다 되어 가니 목사님의 식사도 챙겨드려야 해서 마음이 더 급해졌다. 절체절명의 순간, 마지막에 들어간 양품점에서 여성용 팬티스타킹이 눈에 들어왔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두툼한 것으로 두 켤레를 샀다. 한 켤레는 초록색, 다른 한 켤레는 감색이었다.

곧바로 호텔로 돌아가 목사님의 낯빛을 살피며,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이 팬티스타킹을 신으시고 강단에 오르셔야 할 거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목사님의 대답은 “시가끼 장로님, 그걸 신을 바에는 차라리 감기에 걸리는 게 더 낫겠어요.”라고 하시는걸, “혹시 감기라도 걸리시면 여의도교회 장로들이 저를 죽이려 들 겁니다.”라며 설득에 설득을 거듭하자 끝내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지금 다시 떠올려 보아도 식은땀이 흐르는 일이다. 간단히 식사를 마친 후, 스타디움으로 향했다. 나 역시 여름철 복장을 하고 있던 터라 엄청 추위에 떨었던 기억이 난다.

평소라면 많은 장로들과 성도들이 수행을 했을 것이고, 그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두꺼운 옷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게 아니었다라도 내가 굳이 내의를 사러 돌아다니지 않아도 모두가 함께 해결해 주었을 것이다. 선교는 절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감하고, 조금이라도 자만한 마음을 품고 우쭐거렸던 것을 회개했다. 되돌아보면 항상 선교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라는 선교의 목적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었으며 축복이었던 것을

고백한다. 60년간 조 목사님을 들어서 사용하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조 목사님과 동시대를 살면서 신기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더욱이 세계선교의 동역자로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미숙한 나를 불평 한 마디 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마지막 때에 세계선교의 협력자로,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의 사무총장으로 쓰임 받도록 해 주신 조 목사님에게도 다시금 마음속 깊은 감사를 드린다.

1993년 말부터 1998년 전반까지 조 목사님의 세계선교 발자취를 기억을 따라 쫓아가 보았다. 5년 동안의 여정 안에서도 채 기술하지 못한 성회가 스무 개 넘게 있다. 특별히 인상 깊었던 성회들을 몇 가지 추려 기록해 보았지만, 일단 이쯤에서 펜을 내려놓으려 한다.

또한 본서 말미에는 조 목사님의 60년간 선교가 어느 정도의 여정이었는지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세계선교 연표를 남겼다. 얼마 전, 병상 중에 계시던 목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반드시 회복되어 제2의 선교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그토록 소원했던 성도들에게 아쉬움을 남긴 채로 목사님은 주님 품에 안겨 쉬을 얻게 되었다. 잠시라도 쉬는 법 없이, 전 세계를 향한 뜨거운 복음 열정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조용기 목사님은 모두가 불가능을 말할 때 넓고 큰 세상을 꿈꿨고,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며 복음을 전파했다.

이처럼 복음과 함께 세계 어디를 가든 역사상 최대, 최고라는 진기록들을 수없이 많이 남겼던 조 목사님과 함께하며 38년의 세월이 흘렀다.

26살이었던 나도 64세가 되었다. 비록 목사님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온몸을 바친 목사님의 선교 열정을 본받아 그 길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을 이어갈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제2의 선교시대가 열릴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2021년 9월

순복음동경교회 담임목사 시가끼 시게마사

- 추 신 -

선교의 기초를 가르쳐 준 CGI 보드멤버 차일석 장로님과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장거리 선교를 함께한 이병훈 장로님, 김순배 장로님, 이광영 장로님 등 역대 실업인선교연합회 회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의 선교 전우 테니스 김홍준 장로님, 유머러스했던 장로회장 박해숙 장로님 그리고 일본선교회의 임시한 장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첨부 1〉¹⁾

논문 〈조용기 목사의 교회 성장 이론과 세계선교의 연구〉

조용기 목사의 교회성장 이론과 세계선교의 연구

- 일본선교와 일천만 구령운동을 중심으로 -

조용기 목사의 '일천만 구령운동'

1) 일본을 향한 '일천만 구령' 운동의 태동

일본선교는 1968년 한 명의 여성 전도사에 의해 시작됐다. 고(故) 최자실 목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일본선교를 그 비전으로 삼았다. 1974년 최자실 목사는 순복음동경교회의 후원회장으로 헌신했던 고(故) 강은순 권사의 집에서 기도회를 열며 일본 내 순복음교단을 형성하는 초석을 놓았다. 그 후 사위인 조용기 목사에게 일본선교에 동참할 것을 권한다.

하지만 조용기 목사는 일본선교에 대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선교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1) 필자의 논문 중 일부 발췌.

불붙어야 하는데 여러 차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아직까지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었다”²⁾고 고백한다. 이렇게 일본선교에 적극적일 수 없었던 이유는 일제치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체험으로부터, 한국을 식민통치하며 온갖 고통을 안겨주었던 일본인들의 잔악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1978년 8월 일본 교역자연합회 주최로 동경 히비야공원 공회당에서 열린 목회자 세미나에서 주 강사로 초청된 조용기 목사는 강단에 올라, 어린 시절 일본인들에게 받았던 아픈 상처들이 떠올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여러분을 증오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망하기를 원합니다. (중략)

지진이 일본을 강타하고 건물들이 무너지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그저 여러분이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 일본의 침략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들을 치료해 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절대로 설교할 수 없습니다.”³⁾

그 때, 여기저기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더니 곧 앞자리의 목사들이 조용기 목사에게로 와 부모 세대의 용서를 구하는 순간, 일본에 대한 증오가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2) 30年史編集委員会, 『純福音東京教会30年史』(東京: 宗教法人純福音教会, 2007), pp.110-111.

3) 여의도순복음교회 선교백서편찬위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선교백서』, pp.41-42.

그 후에도 일본선교는 순조롭지 않았다. 오사카 대규모 성회를 앞둔 전날 밤, 잠자리에서 든 조용기 목사는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듯한 느낌에 잠을 깼을 때, 자신을 노려보며 “일본은 내가 다스리는 왕국이다. 너는 지금 내 백성을 내 손아귀에서 빼내려고 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오늘 밤 내가 너를 죽여 버리겠다”는 사탄의 음성을 듣는다. 그 순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도망가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는 네 머리털 하나도 다치게 하지 못하리라. 오늘 밤이 네 사역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는 음성과 함께 “너의 감각에 의지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의지해라. 말씀을 통해서 보고, 말씀을 통해서 들어라,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 위에 서라.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라.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음성을 듣는다. 조용기 목사는 사탄을 향해 “너 거짓의 아비 사탄아!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홀리신 보혈로 선포한다. 더럽고 악한 사탄아! 일본 땅에서 떠나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했다”⁴⁾라고 선포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대항으로, 의기양양하던 사탄은 도망치듯 물러갔다.

1978년 유럽 성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일본 복음화를 향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일본선교가 ‘훗날 아시아 전체를 변화시키는 불씨’가 될 것과 ‘일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너를 택했다’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조용기 목사는 일본선교에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며 혼신의 힘을 쏟게 된다.

일본에서의 사탄의 공격과 성령의 강한 이끌림에 의해, 체계적인 일본

4) Ibid., pp.43-44.

선교 방법을 고심하던 조용기 목사는 일본 인구의 10%를 구원한다는 목표를 세우며 ‘일본 일천만 구령운동’을 전개한다.

1979년 동경복음전도대회가 열리고 동경, 오사카 등 일본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5일 동안 성회가 개최된다. 당시 조용기 목사의 일본성회는 복음의 황무지였던 일본 땅에 최대 규모, 최대 군중이라는 놀라운 기록들을 세워나갔다. 한국과 일본을 연결한 일본선교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일본 일천만 구령운동’을 더욱 확대해간다. 매월 2, 3회 일본을 방문하여 말씀을 전하는 한편, 귀신들린 한 청년을 치유하는 신유사건으로 말미암아, 1980년에는 그 청년의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일본의 긴키(近畿)TV로 매주 일요일 오전 7시 10분부터 1시간씩 조용기 목사의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설교 메시지가 방영된다. 그 후 일본 선TV, 가나가와TV, 치바TV, 사이다마TV, 군마TV를 통해 일본 전역에 퍼지면서, 조용기 목사의 설교는 큰 호응을 얻었다. 당시 ‘행복의 초대’를 진행한 고베여학원대학(神戸女学院大学) 교수인 오쿠보(大久保)씨는 훗날 조용기 목사의 영향을 받아 목회자가 되어 현재 오사카 근교에서 교회성장의 모델이 되고 있다.⁵⁾ ‘일본 일천만 구령운동’의 일환인 일본 지저스페스티벌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2) 일본 지저스페스티벌

일본 지저스페스티벌은 DCEM이 주최하고, 일본 풀가스펠교단과 순복음동경교회회가 후원하는 복음성회로 매년 열리고 있다. ‘일본 일천만

5) Ibid., p.110.

구령운동'의 분수령이 되었던 것은 1983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불가능을 가능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동경무도관 성회'였다. 이 성회는 일본 선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조용기 목사는 '정기적으로 일본의 국가적인 행사가 개최되는 무도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고 싶었다'고 한다. 이 대회 집회위원장을 맡은 요시아마 목사는 감격에 겨워, 성회 광경을 비디오로 녹화해 로버트 솔러 목사에게 보냈고, 이에 로버트 솔러 목사는 "일본에서 이런 성령의 불길이 일어났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⁶⁾을 보였다고 한다.

조용기 목사의 '동경무도회 성회'에는 3일간 매일 1만 명 넘는 인원으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1980년부터 1989년에 걸쳐 50회, 현재까지 120회가 넘는 일본에서의 대성회가 계속 개최되고 있다. 이에 앞서, 빌리 그레함 목사가 1967년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동경무도관'에서 집회를 열어 일본선교의 불을 지핀 바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빌리 그레함 목사의 일본선교가 일시적이었다면, 조용기 목사의 '일본 일천만 구령'은 평생에 걸친 것으로 현재 진행중인 선교라는 점이다. 조용기 목사의 '동경무도관 성회'는 일본선교에 대한 새로운 선교 열풍을 일으키는 계기를 만들고, 일본 개신교사상 가장 큰 성회 중 하나가 되었다. 이듬해인 1984년 제2차 '동경 무도관성회'는 로버트 솔러 목사도 참석하는 한편, 일본 목사들이 대거 동참하였다.

“일본 일천만 구령운동과 관련해 일본선교에 큰 영향을 미친 사역이 바로 지저스페스티벌이었습니다. 동경, 나고야, 오사카, 요코하마,

6) Ibid., p. 52.

지바 등 대도시에 조용기 목사님을 모시고 한 번씩 성령의 불을 지폈습니다. 현재 일본 전체에서 가장 큰 교회는 순복음동경교회이고, 대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는 거의 다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들이 가 있는 순복음교회입니다.” - 녹취록에서⁷⁾

1980년대 조용기 목사의 일본선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라는 것으로, 우선 일본 목회자들을 변화시키는 사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꾸준히 펼친 '일본 교역자 세미나', '교회성장 세미나' 등이 이러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성회', '평신도 세미나',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의 뜨거운 예배를 체험하는 '방한 성회' 등은 일본선교의 가능성을 충분히 증명하였다.

1996년 10월 10일에서 12일에 걸친 '96 동경 지저스페스티벌'에서, 조용기 목사는 일본 기독교인들의 사명감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복음 전파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그 이듬해 '97 동경 지저스페스티벌'에서는 성령의 열풍⁸⁾을 경험한 시기였다.

1990년대 나고야의 김유동 목사, 요코하마에 이호경 목사, 지바의 김재현 목사, 우츠노미야의 김일 목사, 삿포로의 박영옥 목사, 고베의 한복남 목사, 교토의 최요한 목사 등은 순복음교회에서 파송한 일본 선교사들로, 이들은 일본 대도시에서 부흥의 불길을 거세게 일으키고 있다.

2000년대 일본선교는 많은 지성전들이 세워졌다. 순복음 동경교회 지성전 오메지마 이와노조 교회, 후지사와 지성전, 야마가타 지성전, 고후

7) Ibidl, p.111.

8) 여의도순복음교회 편, 『위대한 소명 회망목회 50년』, pp.210-211.

지성전, 센다이 지성전, 가시와 지성전, 삿포로 지성전, 요코하마 지성전 등이 창립되었다.

계속되는 일본 지저스페스티벌 중, 2002년 ‘동경 지저스페스티벌’에서 조용기 목사는 “오늘날 세계선교는 생명을 내걸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하면서 목숨을 건 세계선교, 일본선교를 주문했다. 이듬해 창립 25주년에 비로소 지금의 신주쿠 성전을 봉헌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경험했다.

2007년 일본선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조용기 목사는 ‘2007년 전 일본 지저스페스티벌’을 열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일본에는 104명의 선교사, 74개의 교회, 5,700여 명의 성도가 응집하면서 일본선교 30년의 열매를 확인하였다. 필자가 30여 년 전 조용기 목사의 성회 통역으로 인연을 맺은 이후, 조용기 목사의 세계선교, 일본선교에 동참할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3) 일본에서의 구역조직(셀조직)과 지교회의 독립

조용기 목사는 그 동안 미국의 여러 선교단체들이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간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다. 당시 조용기 목사가 일본의 복음화, 일본 교회성장에 대해 강조했을 때, 일본 목회자들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대부분의 성직자들과 선교사들이 일본은 죽었다고 말한다. 일본 목회자들은 사실 매우 낙담해 있다. 일본 목회자가 30~40명의 교인들

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주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행세할 수 있었다. 내가 처음 일본에서 교회성장 컨퍼런스를 개최했을 때, 그들에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말했다. 그들의 첫 반응은 여기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성도가 1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별로 없을 뿐 아니라 500명의 교인이 있는 교회는 일본에서 대형교회이다. 그들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만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나는 화가 났다. 그리고는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⁹⁾

이렇듯 일본선교는 일본 목회의 현장에서부터 침체된 분위기를 역력히 드러내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선교의 토양이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일본에서 교회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일본 목회자의 말에 화가 난 조용기 목사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증명하고자 했다.

나는 한 사람의 선교사를 일본에 보냈고 교회성장 원리와 구역조직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선교사님, 5년 안에 목표에 도달할 것을 원합니다. 나에게서 배운 모든 교회 성장의 원리들을 사용하십시오. 만일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면 한국으로 돌아오지 마십시오.”¹⁰⁾

선교사를 비장한 결의로 일본에 파견한 조용기 목사가 제시한 성장의 원리는 구역조직, 셀 조직이었다. 선교사는 200명을 일본선교의 첫 목표

9) 조용기, 『희망목회 45년』, p.127.

10) Ibid., p.128.

로 삼고 파송되었다. 그 해 연말 선교사가 세운 교회에 성회 강사로 조용기 목사가 초청되었다. 그 교회는 일본인과 한국인을 합쳐 250명이라는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다. 좀 전에 언급된 '일본 전체에서 가장 큰 교회가 순복음동경교회이고, 대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는 거의 다 조용기 목사의 제자들 교회'라는 이야기에서, 조용기 목사의 교회성장 이론이 일본선교에도 커다란 열매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용기 목사는 '교회성장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리고 교회성장이 다른 아닌 목표설정과 구역조직의 기반 위에서'¹¹⁾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교회성장 이론을 일본 복음화 사역에 적용함으로써 선교의 토양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결국 구역조직이 세계선교에서도 교회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조용기 목사는 일본선교를 통해 증명해 보였다.

1990년 일본 복음화를 위해 조용기 목사는 또 하나의 결단을 내린다.

“총회가 막 만들어지면서 1990년 초 당시 순복음동경교회 하나만 정식 교회였고 나머지 오사카, 나고야, 요코하마, 지바교회는 동경순복음교회의 지교회였습니다. 그때 조용기 목사님께서 ‘모든 순복음교회가 커졌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모든 지교회를 독립교회로 만들 것을 명하셨습니다. 독립교회가 되면서부터 모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 녹취록에서¹²⁾

이는 지교회를 독립, 자립시킴으로써, 일본에 뿌리를 내리고 전념할

11) Ibid., p.131.

12) 여의도순복음교회 선교백서편찬위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선교백서』, p.112.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일본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지교회 중심의 선교에 더욱 매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일본선교는 아시아 복음의 거점으로서 아시아선교가 널리 퍼지는 데 일조하였다.

4) 고베 극동순복음신학교와 일본풀가스펠 신학교

일본 복음화의 교두보적인 역할에 기여한 것은 신학교의 설립이다. 일본은 일본 현지의 신학교를 통해 조용기 목사의 영성과 시스템을 공유함으로써, 아시아 복음화의 거점으로 부상하였다.

“일본 부흥에 커다란 힘이 된 것 중 하나는 현지 신학교 설립입니다. 1970년대 말 조용기 목사님의 명으로 고베에 극동순복음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후 일본 현지인 양성을 위한 ACGI라고 하는 아시아교회성장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일본인과 한국인의 졸업생 비율은 9대 1로 일본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989년 이후에는 일본 현지에 있는 한국인 중 목회자 양성을 위해 순복음총회신학교를 조용기 목사님의 명에 의해 설립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 외에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일본 목사님의 대부분이 신학을 공부한 학교가 극동순복음신학교입니다.” - 녹취록에서¹³⁾

1964년 처음 일본선교가 시작되고, 1977년 순복음동경교회가 세워져 일본선교의 결실이 나타나면서 아시아선교 거점으로 일본선교에 적용

13) Ibid., p.111.

할 수 있는 신학교가 절실하였다. 1970년대 말 조용기 목사는 일본선교를 위해 고베에 극동순복음신학교를 세웠다. 그 후 아시아교회성장신학교(ACGI)가 설립되어 일본인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이후 순복음총회신학교로 통폐합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 최초의 현지인 신학교인 극동순복음신학교는 일본인과 한국인 선교사들의 목회자 양성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였다.

이후 1998년 일본풀가스펠신학교가 동경과 오사카에 설립된다. 이는 조용기 목사의 오중복음과 삼박자축복의 토대 위에 일본 일천만 구령과 아시아 복음화를 목적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지도자를 양성¹⁴⁾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21세기 ‘일본 일천만 구령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사회인을 위한 신학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일본 복음화를 위한 총체적인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대학 과정과 대학원 과정으로 나뉘고, 대학 과정에는 목회와 연구, 단기 코스가 운영되고 있다. 일본풀가스펠신학교는 현역 교역자들의 재훈련, 평생교육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현재 200여 명이 넘는 졸업자를 배출함으로써 일본 현지의 맞춤형 신학교로 자리 잡고 있다. 필자도 일본풀가스펠신학교 이사장으로 섬기며, 일본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다.

(중략)

14) Ibid., p.234.

6. 앞으로의 ‘일천만 구령운동’

앞에서 살펴본 일본 기독교의 상황에서 보면, 일본의 기독교는 천황제 하에서 약화되어 있었고, 종교성이 약한 민중들 안에 깊숙이 스며들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일본 일천만 구령운동’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을 변화시키고자 조용기 목사를 들어 사용한 일본의 부흥운동이었다. 당시 일본 전체 국민의 10%인 1,000만 명을 복음화해 잠자는 일본을 깨우고 회개시키자는 것이 이 운동의 취지였다.

현재(2014년 1월), 일본순복음교단의 순복음동북아일본총회 산하에는 도쿄지방회의 순복음도쿄교회 외 12교회, 도호쿠(東北)지방회의 순복음 우츠노미야(宇都宮)교회 외 16교회, 간토우(関東)지방회의 다치카와(立川)교회 외 9교회, 보소(房総)지방회의 치바(千葉)교회 외 8교회, 추부(中部)지방회 소속의 하마마츠(浜松)교회 외 6교회, 오사카지방회의 오사카(大坂)교회 외 2교회, 큐슈(九州)지방회의 후쿠오카(福岡)교회 외 6교회, 간사이(関西)지방회의 교토(京都)교회 외 13교회, 동러시아지방회의 하바로브스키순복음교회 외 2교회 등 총 9지방회 82교회가 ‘일본 일천만 구령운동’의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일천만 구령운동’은 전 아시아의 복음화의 시발점으로, 일본기독교 부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일본에 전례 없는 기독교 열풍을 일으켰다. 이러한 원동력은 오중복음과 삼박자축복이라는 순복음 신앙과 4차원의 영성이다.

조용기 목사는 일본에서 유명인이다. 방송을 통해서 그의 설교를 들

은 경우도 있고 그의 저서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의 저서 『4차원의 영성(四次元の超靈力)』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문고판으로 일본의 거대 종합 출판사인 고분샤(光文社)에서 출판되었다. 그만큼 일본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책의 서문에는 4차원의 세계를 말하면서 창세기의 첫머리를 인용하고 있다. ‘세상은 창조 때부터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지배되었고, 모든 기적의 에너지는 성령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오쿠보 목사는 표지에서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생활까지, 삶의 구석구석까지 관여하는 분임을 발견할 수 있다¹⁵⁾고 소개한다. 조용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을 통해, 일본 성도들은 하나님과 말씀을 자신들의 삶과 연관시키게 되었다.

현재 일본 교회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을 경험하면서 교회들의 역할에 고심하고 있다. 2011년 8월 29일 긴자교회(銀座教会)에서는 “현대 일본의 위기와 기독교—동일본대지진을 통해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¹⁶⁾라는 테마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런 심포지엄을 열기까지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지켜주신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눈에서 떼지 않으신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말씀을 줄곧 말해왔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었다. 이는 곧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エロイ、エロイ、レマ、サバクタニ,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울부짖음이다.

15) 大久保みどり, 『四次元の超靈力』(東京: 光文社, 1989), カバー에서 인용.

16) 日本基督教団救援対策本部 『現代日本の危機とキリスト教—東日本大震災を通して問われたこと』(東京: 日本基督教団, 2012), p.110-138 참조.

일본기독교단 총회의 부의장인 오카모토 도모유키(岡本知之) 목사는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의 물음은 ‘하나님은 계신가?’가 아니라, ‘이 동일본 대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계신가?’에 귀 기울여야 한다¹⁷⁾고 말한다. 또한 죽음은 회생이고 천벌이나 심판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회생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일본의 목사들은 동일본대지진과 원전사고를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고난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와 관련하여, 교회의 역할을 묻고 있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고난에 대해 어떻게 힐링, 치유해줄 것인가에 고민해야 한다.

조용기 목사의 일본 일천만 구령운동은 순복음의 성령운동과 오중복음과 삼박자(삼중)축복에 집중하는 사역을 통해, 기독교의 역할, 교회의 역할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조용기 목사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에 근거한 선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게 하여 개개인의 변화를 기반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기독교적 변혁을 이끌어 왔다.¹⁸⁾

조용기 목사는 일본 선교에 대해, 일본 교회의 고민에 다가서고 있다.

17) Ibid., p.110-138 참조.

18) 국제신학연구원 편,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성령운동이해』, p.83.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함께 성령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통해, 고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일본의 ‘일천만 구령운동’은 성령운동을 확산시키고 4차원의 영성을 통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확신을 주면서 그 고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일본선교는 조용기 목사의 일본 일천만 구령운동을 계승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주력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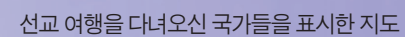
일본선교의 가장 큰 변화는 선교의 중점을 전환하는 데 있다. 앞으로의 일본 선교는 교민선교가 주축을 이루었던 일본선교에서 원주민선교 즉, 일본인선교로 전환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본어 예배를 시작으로, 종래의 통역설교에서 일본어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한다. 구역조직에 있어서도 일본인 지역장, 구역장의 양육을 강화하여 일본인들에게 친숙한 교회로 만들고자 한다. 일본인 새신자의 양육에 있어서도 일본적으로 보살핌으로써,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에 적응하도록 힘쓸 것이다. 특히 선교사에게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 일본어의 습득을 중시하여, 일본어의 소통이 불가능할 경우 목사, 전도사로서의 채용도 제한할 뿐 아니라,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 소양을 갖추는 교육에도 주력할 것이다.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주일학교를 강화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설립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청년부의 활성화와 일본정주(定住)화에도 힘을 쏟고자 한다. 한국 유학생의 경우 유학 후 귀국하는 유동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일본의 정주화를 통해, 교역자, 교직원, 교회의 리더로서 육성하고자 한다. 우선 유치원, 보육원에서 출발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라는 학교법인의 설립을 목표로 일관된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장래의 오케스트라 단원을 양

성하기 위해 음악, 악기습득 교육도 실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계 교회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일본의 모든 교회의 벤치마킹의 모델이 되도록 힘쓴다. 신도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한국계이기 때문에 커졌다’는 일본 목사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일본인 성도의 과반수 이상을 목표로 하는 교회성장에도 주력하여 일본의 모든 교회가 자연스럽게 벤치마킹을 하고 싶은 교회로 탈바꿈함으로써 이미지 쇄신을 꾀한다. 일본의 모든 교회와 목사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본 일천만 구령운동의 비전을 공유한다. 더 나아가 인적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일본의 모든 교회가 강력한 공동체로서 일본의 일치와 단결을 도모하고자 한다. 현재 순복음교회만으로도 80여 교회가 되지만 같은 지역에 있는 일본인 선교교회를 세워 활성화를 꾀함으로써, 기존의 교민선교와는 뚜렷이 구별 짓고자 한다.

조용기 목사의 세계 선교 지도





조용기 목사님은 전세계 71개국, 390곳 이상을 다녀오셨다(집계를 미처 못한 곳도 있기에 실제 방문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첨부 3〉

조용기 목사의 세계 선교 연표

1960년대

- 1964년 4월~6월 (미국)
조용기 목사의 첫 해외 선교여행
미국 하나님의성회에서 초청받아 한국 대표 목회자로 참석 후 두 달 동안 미국을 순회하며 성회를 인도
- 1964년 6월~7월 (동남아시아 다수 국가)
한 달 동안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방문하며 성회를 인도
- 1965년 (브라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성회 인도
성회 후 공항에서 여권 분실 사건 발생
- 1966년 9월 (미국)
미국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선교여행
- 1967년 4월 (영국)
영국 웨스터민스터 센트럴 홀에서 열린 기독교대학회 주최 부활절 예배에서 설교
- 1967년 6월~9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스라엘, 이란, 태국, 미얀마, 중국, 일본 등 18개국)
조용기 목사님의 두 번째 세계선교여행으로 100일 동안 18개국을 방문해 30여

개의 도시에서 성회를 인도

- 1968년 9월 (미국)
미국 순회 선교
- 1969년 9월 (동남아시아 다수의 국가)
허스튼 목사님과 함께 한 달 동안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을 돌며 성회를 인도
- 1970년대
- 1971년 4월 (프랑스)
프랑스에서 제10차 세계 오순절대회 참석
- 1975년 4월 (캐나다 및 유럽의 다수의 국가)
캐나다에 밴쿠버에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목사를 임명
같은 시기 최자실 목사는 미국으로 선교를 떠나 유럽에서 조용기 목사와 합류하여 처음으로 함께 성회를 인도
- 1975년 5월 (미국)
LA에서 제1차 순복음세계선교대회 인도
16명의 선교사와 함께 성회를 열어 결속력을 다지고 순복음북미연합회를 결성
- 1976년 3월 (미국 하와이)
하와이에서 제2차 순복음북미연합회 참석 후 순복음세계선교회 미주지구 연합회를 조직
- 1977년 4월 (호주)
호주 성회 인도

- 1977년 8월 (일본)
최자실 목사와 함께 일본 도쿄 부흥 성회 인도
- 1978년 4월 (독일)
독일 칼스루헤에서 성회 인도
- 1978년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교회성장 세미나 개최
- 1978년 8월 (일본)
일본 도쿄에서 최자실 목사와 함께 히비야 공원 교회당에서 열린 성회
- 1978년 10월 (미국)
뉴욕, 시카고, 산호세에서 한달 동안 교역자 세미나와 부흥 성회 인도
연인원 1만 2천여 명 이상 참석한 성회
- 1978년 12월 (태국, 싱가포르)
태국 기독교 전파 150주년 기념 성회 인도 및 싱가포르 성회
- 1979년 1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멕시코)
남미 부흥을 위한 성회 인도
코스타리카에서는 중남미 사상 최대의 성회로 기록됨
- 1979년 4월 (호주)
호주 전역의 교역자들을 위한 수련회를 인도해 1만여 명이 참석
- 1979년 7월 (일본)
최자실 목사와 함께 제3차 도쿄 복음전

도대회 인도 후 고베순복음교회 헌당에 배 참석

- 1979년 8월 (미국)
미국에서 열린 제28차 세계하나님의성회 총회 참석
- 캐나다 공영방송국에서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방영함
- 1979년 9월 (포르투갈, 스위스, 프랑스, 핀란드)
유럽 각국에서 부흥 성회 인도
- 1979년 10월 (캐나다)
캐나다에서 열린 제12차 세계 PWC대회 참석
80여 개국 5만 명 이상의 교역자 및 성도가 참여
- 1979년 11월 (일본)
일본 전역을 순회하며 대성회를 인도해 복음을 전함
- 1979년 12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최자실 목사와 함께 부흥 성회 인도

1980년대

- 1980년 1월 (일본)
도쿄에서 일천만 구령을 위한 부흥 성회 인도
- 1980년 1월 (대만)
대만에서 교역자 수련회 및 부흥 성회 인도

4만여 명이 참석

- 1980년 2월 (미국)
하와이에서 교역자 수련회 및 톨사의 부흥 성회 인도
국제교회성장연구위원회의 초대 총회장에 조용기 목사가 선출됨
- 1980년 3월 (일본)
일천만 구령을 위한 부흥 성회 인도
- 1980년 4월 (일본)
일천만 구령을 위한 부흥 성회 인도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된 성회
- 1980년 4월 (미국)
덴버와 버팔로에서 부흥 성회와 예배 인도
LA에서 오순절 교파인 포 스퀘어(Four Square)교단 총회의 주강사로 초청받아 설교
- 1980년 5월 (일본)
도쿄에서 제2차 순복음세계선교대회와 오사카에서 부흥 성회 인도
- 1980년 6월 (일본)
도쿄에서 일천만 구령을 위한 부흥 성회 인도 불신자들이 대거 참석해 결신한 성회
- 1980년 7월 (노르웨이, 스웨덴)
연인원 8만여 명이 참석하며 유럽지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성회로 기록됨
- 1980년 8월 (일본)

도쿄와 나고야에서 일천만 구령을 위한 부흥 성회 인도

- 일본 강끼TV와 미국 UHF-TV에서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방영하기 시작
- 1980년 9월 (일본)
오사카와 요코하마에서 리바일벌 성회 인도
- 1980 9월 (홍콩, 파키스탄)
기독교를 반대하는 국가에서 열린 의미 있는 성회
- 1980년 10월 (일본)
기독교방송 CBS '행복으로의 초대'의 일본 방영 기념 강연회 참석
- 1980년 11월 (호주)
교역자 수련회 및 부흥 성회 인도
- 1980년 11월 (일본)
오사카와 후쿠오카에서 성회 인도
본격적인 일본 일천만 구령 운동을 전개하며 오사카와 후쿠오카의 지역 복음화에 일조
- 1980년 12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각국에서 교회성장세미나와 부흥 성회 인도
- 1981년 1월 (일본)
도쿄에서 일본 일천만 구령을 위한 성회 인도
- 1981년 1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레이건 대통령 취임

- 축하식에 주강사로 초청
- 1981년 2월 (일본)
도바에서 교역자 세미나 및 부흥 성회 인도
 - 1981년 2월 (대만)
대만 장로회 연합 부흥 성회 인도
 - 1981년 4월 (미국)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교회성장세미나 인도
감리교, 루터교, 성공회, 가톨릭 교단 등이 참석
 - 1981년 5월 (영국, 핀란드)
영국 하나님의성회 총회에서 설교 후 핀란드 헬싱키에서 부흥 성회 인도
7만 2천여 명이 참석해 영국 성회 중 가장 큰 성회로 기록됨
 - 1981년 6월 (독일)
독일에서 예수81 베를린대성회와 교회성장세미나 인도
1936년 히틀러가 건립한 곳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됨
 - 1981년 6월 (일본)
서일본 그리스도 대전도성회 인도
 - 1981년 7월 (일본)
오사카에서 부흥 성회 인도
 - 1981년 8월 (일본)
최자실 목사와 함께 도쿄와 오사카에서 부흥 성회 인도

- 1981년 9월 (일본)
도쿄와 홋카이도에서 부흥 성회 인도
- 1981년 10월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부흥 성회 인도
- 1981년 10월 (프랑스, 독일, 미국)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 교역자세미나 및 부흥 성회 인도
- 1981년 11월 (미국)
LA에서 부흥 성회 인도
- 1981년 12월 (멕시코)
부흥대성회 인도, 5만여 명이 참석하여 멕시코 기독교 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
- 1981년 12월 (미국)
달라스에서 CGI 미주지역 이사회 참석
- 1982년 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부흥 성회 인도, 필리핀 기독교 사상 최대 규모의 성회
- 1982년 4월 (미국)
뉴올리언스, 오클라호마, 톨사에서 교회성장세미나 개최
- 1982년 6월 (싱가폴)
'82 싱가포르 민족복음화대성회 인도하였으며 25만여 명 참석
- 1982년 7월 (미국, 덴마크)
각국에서에서 교회성장세미나 및 주일 예배 인도

- 1982년 8월 (일본)
도쿄에서 부흥 성회 인도
- 1982년 9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3차 정기 국제교회성장 기구 회의 참석, 75개국의 CGI 대표들 참석
- 1982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교회성장세미나 및 평신도들을 위한 부흥 성회 인도
- 1982년 10월 (홍콩)
교회성장세미나 및 부흥 성회 인도
- 1982년 11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부흥 성회 인도
- 1982년 11월 (스리랑카)
교회회성장세미나 및 평신도들을 위한 부흥 성회 인도
- 1983년 1월 (일본)
도쿄에서 부흥 성회 인도
- 1983년 1월 (미국)
올란드에서 교회성장세미나 및 평신도들을 위한 부흥 성회 인도
- 1983년 3월 (네덜란드, 미국)
네덜란드와 미국에서 교회성장을 위한 부흥대성회 인도
- 1983년 4월 (미국)
하와이에서 교회성장세미나 인도
- 1983년 5월 (미국)

- LA, 덴버, 달라스에서 교회성장세미나 인도
- 1983년 7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83국제순회전도자대회 인도
 - 1983년 8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제4차 CGI 정기총회 인도
 - 1983년 8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성회 인도
 - 1983년 11월 (미국)
뉴욕에서 성회 인도
 - 1984년 2월 (미국)
하와이에서 세계교회성장대회 및 부흥 성회 인도
 - 1984년 2월 (미국)
달라스, 오클랜드, LA에서 성회 인도
침례교파와 오순절교파가 함께 모인 성회
 - 1984년 4월 (스위스)
부흥 성회 인도
 - 1984년 4월 (일본)
교토에서 부흥 성회 인도
일본에 방영되던 CBS '행복으로의 초대' 시청자 대거 참석
 - 1984년 5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제 교회성장 목회자 대회 인도

- 1984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CBS '행복으로의 초대' 시청자를 위한 성회 인도
- 1984년 7월 (미국)
휴스턴과 달라스에서 미국독립기념대 부흥성회 인도
- 1984년 9월 (페루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에서 CGI 교역자세미나 및 부흥 성회 인도
- 1984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제2회 일본선교대회 및 부흥 성회 인도
TV방송과 신문에 성회소식이 소개돼 일본 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 1984년 10월 (미국)
루이스빌에서 부흥 성회 인도 및 CGI 교회성장세미나 인도
2만여 명이 참석한 성회
- 1984년 12월 (말레이시아)
부흥 성회 및 교역자 세미나 인도
연인원 10만여 명이 참석
- 1985년 1월 (일본)
교회성장세미나 인도
- 1985년 3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달라스에서 성회 인도
- 1985년 5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성회 인도
미국 기독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미국

- 상원을 방문
CBN-TV 사장 팻 로버트슨 박사와 대담
- 1985년 9월 (미국)
라스팔마스, 마드라스에서 성회 인도
- 1985년 10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성회 인도
- 1985년 11월 (일본)
도쿄 및 후쿠오카에서 성회 인도
김장환 목사와 함께 참석함
- 1986년 1월 (호주)
호주교민을 위한 남호주 150주년 기념 성회 인도
- 1986년 3월 (미국)
몽고메리, 노스캐롤라이나, 루이지애나, 텍사스에서 성회인도
- 1986년 6월 (미국)
산호세에서 CGI 성회 인도
- 1986년 7월 (일본)
도쿄에서 부흥 성회 인도
- 1986년 10월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한국 교회의 성장과 기도를 배우자'를 주제로 열린 성회 인도
7만여 명이 참석한 성회
- 1986년 11월 (미국)
덴버, 시애틀에서 교역자 세미나 인도
- 1986년 12월 (대만)
복음화 대성회 인도, 대만 기독교 사상

- 최대규모로 열린 성회
- 1987년 1월 (호주)
아들레이드, 퍼스에서 교회성장세미나와 부흥 성회 인도
3만여 명이 참석한 성회
- 1987년 3월 (미국, 아르헨티나)
미국 LA 교민들을 위한 성회와 아르헨티나 PTL-TV 에서 성회 인도
아르헨티나에서 동양인 최초로 TV를 통해 성회를 중계
성회 후에는 아르헨티나 대통령 궁까지 평화행진을 진행
- 1987년 4월 (미국)
달라스, 산호세에서 부흥 성회 인도
- 1987년 5월 (호주)
시드니에서 교민들을 위한 부흥 성회 인도
- 1987년 6월 (일본)
도쿄, 요코하마에서 부흥 성회 인도
- 1987년 6월 (미국)
틀사, 사우스밴드에서 부흥 성회 인도
오클라호마 전지역에 성회 실태를 중계
- 1987년 9월 (일본)
오사카에서 CBS '행복으로의 초대' 시청자를 위한 성회 인도
- 1987년 10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부흥 성회 인도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과 그 가족들이

- 대거 참석
- 1987년 11월 (미국)
시카고에서 교역자수련회 인도 및 LA 베테스다 신학대학교에서 특강
- 1987년 11월 (대만)
대만 복음화를 앞당긴 성회로 평가받음
- 1987년 12월 (미국)
LA 베테스다 신학대학교에서 특강 및 플로리다와 뉴올리언스에서 성회 인도
- 1988년 2월 (미국)
워싱턴D.C.에서 NRB방송협회 정기총회 특별강연,
한국기독교방송, 극동방송, 아세아 방송 등도 함께 참석
- 1988년 2월 (미국)
달라스, 시애틀에서 부흥성회 인도
- 1988년 4월 (일본)
도쿄에서 부흥성회 인도, 일본 일천만 구령 10주년 기념 성회
- 1988년 5월 (독일)
켈른에서 교회성장 세미나 인도
독일 볼프파르트 마에기스 박사, 미국 도날드 노스롭 박사와 함께 특강
- 1988년 6월 (일본)
도쿄 부흥 성회 인도
- 1988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제2회 구원과 신유의 성회 인도

- 1988년 11월 (일본)
홋카이도에서 부흥 성회 인도
- 1988년 11월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교회성장세미나 및 부흥 성회 인도
- 1988년 12월 (대만)
가오슝에서 부흥 성회 인도
- 1989년 1월 (미국)
하와이에서 부흥 성회 인도
하와이 최대 기독교 집회로 기록됨
- 1989년 3월 (브라질)
리우데자레이루에서 부흥 성회 인도
8만여 명이 참석한 성회
- 1989년 4월 (캐나다, 미국)
캐나다와 미국에서 부흥 성회 인도
- 1989년 5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지역 교민들을 위한 부흥 성회 인도
2만여 명 참석
- 1989년 8월 (호주)
시드니에서 교역자세미나 및 부흥 성회 인도
- 1989년 9월 (싱가폴)
제15차 세계오순절선교대회 참석
10만여 명 참석
- 1989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CGI 교회성장대회 인도

수용가능인원을 훌쩍 넘는 아시아의 교역자들이 참석

• 1989년 11월 (인도네시아)

교역자세미나 인도

• 1989년 12월 (홍콩)

홍콩을 중국 복음화를 위한 전초지로 삼겠다는 목표로 열린 성회

1990년대

• 1990년 2월 (미국)

버지니아에서 제4차 세계선교회의 참석

• 1990년 3월 (일본)

순복음동경교회 부흥 성회 인도

• 1990년 4월 (미국)

오하이오, 워싱턴에서 성회 인도 및 세계지도자회의에서 설교

• 1990년 10월 (일본)

삿포로에서 부흥 성회 인도

CBS '행복으로의 초대' 방송과 공동으로 기획한 성회

• 1991년 1월 (파나마, 콜롬비아)

파나마, 콜롬비아에서 교회성장 및 특별대성회 인도

3만여 명이 참석해 남미 최대의 개신교 부흥 성회로 기록됨

• 1991년 3월 (미국, 캐나다)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및 부흥 성

회 인도

• 1991년 8월 (미국)

하나님의성회 총회 참석 및 설교
50개국의 선교사가 참석한 총회

• 1991년 10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인들을 위한 부흥 성회 인도

• 1991년 11월 (이탈리아, 스위스)

제9차 그리스도인 대성회, 스위스에서 700주년 기념 대성회를 인도

• 1991년 11월 (대만)

중산에서 대만복음화대성회를 인도

• 1992년 1월 (인도네시아)

축복 대성회 인도

연인원 45만여 명이 참석한 성회

• 1992년 2월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부흥 성회 인도

연인원 8만여 명이 참석한 과테말라 성회에는 정, 부통령이 참석

• 1992년 3월 (도미니카공화국)

축복 부흥 성회 인도

• 1992년 4월 (일본)

교토, 오사카, 나고야에서 부흥 성회 인도
일본 10개의 채널에서 CBS '행복으로의 초대'를 통해 성회를 방영

• 1992년 6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부흥 성회 인도

4만여 명 참석한 3일 간의 성회 중 하루 크렘린 궁 앞에서 노천예배로 열려 인상적이었던 성회

• 1992년 8월 (일본)

도쿄에서 교회성장세미나 인도

• 1992년 11월 (영국령 버뮤다)

열린 국제교회성장세미나 및 부흥 성회 인도

• 1993년 2월 (미국, 니카라과, 멕시코)

부흥 성회 및 교회성장세미나 인도

• 1993년 3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케냐 나이로비 성회에 120만여 명, 우호르프크 성회에 40만여 명이 참석

• 1993년 4월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교회성장세미나 인도

• 1993년 6월 (러시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복음화 대성회 인도

• 1993년 7월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성회 인도
10만여 명 참석, 4만여 명이 결신

• 1993년 8월 (영국, 독일)

각 국에서 축복 성회 인도

• 1993년 11월 (일본)

도쿄, 가와사키, 군마에서 부흥 성회 인도

• 1993년 12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부흥 성회 인도

동유럽 여러 국가 성도들이 참석
성회지에는 삼성전자가 대형 TV모니터
를 후원함

- 1994년 2월 (인도)
CGI 성회 인도
연인원 200만여 명이 참석해 인도 최대
개신교 집회로 기록됨
- 1994년 2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성회 인도
- 1994년 3월 (칠레, 파라과이)
파라과이에서 CGI 성회 인도
칠레 성회에 8만여 명, 파라과이 성회에
13만여 명이 참석
- 1994년 4월 (호주)
시드니에서 교역자수련회 및 성회 인도
- 1994년 5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부흥 성회 인도
- 1994년 8월 (러시아)
94동러시아 복음대성회 인도
연인원 3만여 명이 참석, 2만 5천여 명
이 결신한 성회
- 1994년 9월 (미국)
LA 94나성 대전도 집회 인도
- 1994년 11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부흥 성회 인도
연인원 15만여 명이 참석
- 1994년 12월 (스웨덴)

CGI 스웨덴 대성회 인도
주변 유럽국가에서 대거 참석, 9개국의
언어로 동시통역 됨

- 1995년 1월 (호주)
시드니에서 95호주대성회 인도
3만여 명이 참석
- 1995년 1월 (말레이시아)
목회자 세미나 인도
- 1995년 1월 (미국)
LA에서 성공적인 목회지도자 대회 인도
20세기 위대한 영적 지도자 중 한 사람
으로 평가됨
'권능의 시간'이라는 TV 프로그램 설교
방영
- 1995년 2월 (미국)
라스베가스 한인 성회 인도
- 1995년 2월 (인도)
뉴델리에서 CGI성회 인도
18만여 명이 참석해 뉴델리 역사상 가
장 많은 인원이 참석한 성회
- 1995년 3월 (영국)
영국 노팅엄에서 95영국민족제자화성
회 인도
- 1995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펜테코스트 95 성회 인도
- 1995년 6월 (영국, 스코틀랜드, 루마니아)
영국, 스코틀랜드, 루마니아에서 성회
인도

유럽지역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강화시
킨 성회

- 1995년 11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마린대성회 참석 및 설교
- 1995년 12월 (케냐)
100만여 명이 참석한 성회.
- 1996년 2월 (이스라엘)
예수 탄생 2000년 기념축제 성회 인도
전세계 31개국에서 모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성회에 참석
- 1996년 6월 (오스트리아, 핀란드)
핀란드에서 부흥 성회 인도
연인원 4만여 명이 참석
- 1996년 8월 (체코)
주변 동유럽 국가에서 많은 성도들이
참석
- 1996년 8월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부흥 성회 인도
연인원 4만 5천여 명이 참석
- 1996년 9월 (모리셔스)
연인원 5만여 명 참석
- 1996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부흥 성회 인도
- 1996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96동경 지저스 페스티벌 인
도, 200여 명의 결신자가 나옴
- 1996년 10월 (태국)

방콕에서 부흥 성회 인도

- 1996년 12월 (인도)
봄베이(현재 뭄바이로 바뀜)에서 부흥
성회 인도
연인원 35만여 명이 참석
- 1997년 2월 (피지)
피지 수상이 참석하여 일정에 없던 오
찬을 마련해 두 시간 동안 조용기 목사
와 환담을 나눔
- 1997년 3월 (일본)
나고야, 도쿄에서 신년축복성회 인도
- 1997년 4월 (미국)
뉴욕에서 뉴욕대성회 인도
연인원 1만 5천여 명 참석
- 1997년 4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부흥 성회 인도
- 1997년 6월 (이탈리아)
리미니에서 기도대성회 인도
- 1997년 7월 (일본)
오사카에서 97 관서 지저스 페스티벌
인도
- 1997년 9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부흥 성회 인도
연인원 150만여 명이 참석
- 1997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97 동경 지저스 페스티벌 인도
- 1997년 11월 (필리핀)

- 마닐라에서 부흥 성회 인도
- 필리핀 CBN-TV에서 인터뷰 영상을 연신 방영
- 1998년 3월 (이탈리아)
시실리에서 부흥 성회 인도
- 준비된 성회 장소에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공설운동장으로 나가 예배를 드림
- 1998년 4월 (미국)
펜사콜라에서 성회 인도
- 1991년 시애틀 성회를 통해 펜사콜라의 부흥을 예언한 후 개최된 성회라 의미가 큼
- 1998년 5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95 서일본 지저스 페스티벌 인도
- 1998년 6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부흥 성회 인도
- 1998년 9월 (일본)
도쿄에서 리바이벌 선교대회 인도
- 1998년 10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부흥 성회 인도
- 헝가리 라디오 방송국 KOSTH와 인터뷰
- 1998년 11월 (카자흐스탄)
침켄트에서 신유대성회 인도
- 성회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성도들까지 새벽열차를 타고 참석
-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중심지로 거듭난 성회

- 1999년 1월 (미국)
LA에서 부흥성회 인도 및 베데스다대학교에서 성회 인도
- 침체되어 있는 미국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킨 성회로 평가됨
- 1999년 3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부흥 성회 인도
- 4만 5천여 명이 참석
- 1999년 4월 (일본)
도쿄에서 순복음동경교회 창립21주년 기념 성회 인도 및 일본 베데스다대학교 설립
- 1999년 7월 (스웨덴)
축복 부흥 성회 인도
- 1999년 8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부흥 성회 인도, 덴마크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성회로 기록됨
- 덴마크 공영방송과 일간지에서 성회 소식을 다룸
- 1999년 10월 (일본)
예수탄생 2천년 기념 세계선교회의 진행위원으로 참석
- 전세계 150개 국가가 참석한 회의
- 1999년 10월 (일본)
오사카에서 순복음오사카교회 창립 11주년 기념 성회 인도
- 1999년 11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부흥 성회 인도

- 1999년 12월 (인도)
코타얌에서 축복 성회 인도, 연인원 35만여 명 참석
- 2000년대
- 2000년 4월 (미얀마)
양곤에서 기독교 지도자 초청 세미나 인도
- 미얀마 국군 제2병원에 의료장비 지원
- 2000년 4월 (싱가포르)
성회가 열린 실내체육관에 모두 다 수용하지 못할 만큼 많은 인원이 참석해 5천여 명의 성도가 성회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되돌아가기도 함
- 2000년 5월 (호주)
시드니에서 축복 부흥 성회 인도
- 2000년 6월 (잠비아)
10만여 명이 참석한 성회. 잠비아의 칠루바 대통령 참석해 잠비아를 크리스천 국가로 선포
- 2000년 6월 (가봉)
15만여 명이 참석해 3만여 명이 결신한 성회
- 가봉 대통령의 초청으로 대통령 궁을 방문해 그에게 복음을 전함
- 2000년 8월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제3차 세계하나님 의성회 총회 참석 및 설교

- 2000년 9월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부흥 성회 인도
- 2000년 10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제18차 세계교회성장대회 참석 및 예배인도
- 2000년 11월 (일본)
나고야에서 2000 나고야 지저스 페스티벌 인도
- 순복음나고야교회 헌당예배도 함께 드려짐
- 2001년 3월 (미국)
달라스에서 부흥 성회 인도
- 2000년 3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지역 성령화 성회 인도
- 제26차 순복음북미총회 개최
- 미 법무장관 존 애슈크로프트의 초청으로 집무실에서 환담
- 2001년 5월 (요르단)
이슬람국가인 요르단에서 1만 2천여 명이 참석해 의미 있던 성회
- 2001년 5월 (미국)
LA에서 2001 영권회복집회 인도
- 2001년 8월 (코트디부아르)
10만여 명이 참석해, 2만여 명이 결신한 성회
- 2001년 8월 (가나)
3일간의 기적의 성회 및 2001 CGI대회 인도

가나의 쿠파 대통령의 초청으로 대통령
궁 방문

● 2001년 9월 (일본)

오사카에서 펜타코스트 100주년 기념
대회 인도

● 2001년 11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순복음후쿠오카교회 성
전 헌당 예배 인도

● 2002년 2월 (인도)

푸네에서 제6회 PFI 푸네 성회를 인도
10만여 명이 참석해 2만여 명이 결신했
으며 인도 카스트 제도의 최상위층인
브라만 계급들이 대거 참석해 주목받은
성회

● 2002년 3월 (미국)

카고에서 할렐루야대성회 인도
토틸리빙 네트워크와의 인터뷰를 통해
세계최대교회로 성장시킨 배경과 향후
세계선교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힘

● 2002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제선교대회 인도 및 노스
웨스트대학교 졸업식에서 설교

● 2002년 5월 (영국)

런던에서 청년유학생들과 한인들을 위
한 성회
영국 성공회 신부들을 대상으로 교회성
장세미나를 인도

● 2002년 7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2002인도네시아 국제교
회성장 세미나 인도

5만여 명이 참석, 에클레시아순복음교
회 헌당

● 2002년 8월 (나이지리아)

200만여 명이 참석, 10만여 명 결신
올루세군 오바산조 대통령이 조용기 목
사를 국빈으로 영접해 대통령 궁에서
주일예배를 인도

● 2002년 9월 (말레이시아)

구네라트남 목사 목회 30주년 기념 예
배 인도

● 2002년 10월 (일본)

DCEM 아시아지역본부 주최 도쿄 2002
도쿄 지저스 페스티벌 인도

● 2002년 11월 (온두라스)

희망의 대성회 인도 10만여 명이 참석
해 2만여 명이 결신

● 2002년 11월 (엘살바도르)

기독교 지도자 세미나 인도

● 2002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순복음동경교회 헌당예배 인
도

● 2003년 3월 (미국)

몬트레이에서 전도집회 인도

● 2003년 7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제21차 북미 케랄라이
트 오순절대회 참석 및 설교

3만여 명이 참석

● 2003년 9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영적 갱신과 부흥을 위한
성회 인도

5만여 명이 참석, 대만 천수이벤 총통이
성회에 참석

● 2003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2003 지저스 페스티벌 인도

● 2003년 12월 (일본)

오사카에서 오카사 크리스마스페스티
벌 인도

● 2004년 2월 (미국)

하와이 역사상 가장 큰 한인집회로 기
록됨

● 2004년 3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인성회 인도

● 2004년 3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2004 토론토 미션페스트에
서 설교

● 2004년 4월 (호주)

조용기 목사의 성회를 위해 시드니 여
러 한인교회가 연합하여 준비한 성회

● 2004년 4월 (솔로몬군도)

솔로몬군도 호니아라에서 부흥 성회
인도

7만여 명이 참석해 3만여 명이 결신한
성회. 솔로몬군도 사상 가장 많은 인원
참석

● 2004년 8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부흥성회 인도

6만여 명이 운집한 몽골 개신교 사상 가
장 큰 군중집회로 몽골 대통령의 지원
아래 국가행사로 치러짐

● 2004년 8월 (홍콩)

축복 부흥 성회 인도

● 2004년 9월 (일본)

도쿄에서 2004 도쿄 지저스 페스티벌
인도
일본 내 70여 개의 교회가 연합하여 성
회를 개최

● 2004년 10월 (과테말라)

과테말라 시티에서 2004 세계교회성장
세미나 인도 및 2004 Kingdom Business
Forum 인도

과테말라 오스카 베르세 대통령이 참석

● 2004년 11월 (미국)

LA에서 신유와 기적의 축복 성회 인도

● 2004년 12월 (일본)

오사카에서 2004 오사카 지저스 페스티
벌 인도
간사이 지역 최대 집회로 기록됨

● 2005년 3월 (미국)

시애틀에서 비전 2005 국제 리더십 컨
퍼런스 참석 및 설교

● 2005년 5월 (미국)

뉴욕에서 교회성장과 성숙을 위한 컨퍼

- 런스 및 부흥 성회 인도
- 뉴욕교회협의회(CCCNY) '더 패밀리 오브 맨 메달리온'을 수여
- 뉴욕시의 브루클린과 브롱스가 '조용기 목사의 날'을 선포
- 2005년 5월 (미국)
하와이에서 킹스 캐터드랄 교회 창립 25주년 기념예배 인도
 - 2005년 6월 (홍콩)
러브 홍콩 2005 대성회 인도
4만여 명이 참석
 - 2005년 9월 (일본)
도쿄에서 2005 도쿄 지저스 페스티벌 인도
 - 2005년 10월 (독일)
베를린에서 미션라이브 컨퍼런스 2005 성회 인도
독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청년층이 대거 참석한 성회
 - 2005년 11월 (미국)
시카고 네이퍼빌에서 성회 인도
시카고 지역 전역에 성령의 불을 지핀 성회
 - 2006년 3월 (일본)
오사카에서 2006 오사카 지저스 페스티벌 인도
 - 2006년 4월 (미국)
아주사 100주년 기념성회에서 설교 및

- 베데스다대학교 개교 30주년 부흥성회 인도
- 2006년 6월 (일본)
야마토에서 교회성장특별세미나 인도
1만 3천여 명이 참석
 - 2006년 6월 (미국)
달라스에서 제24차 북미 케랄라이트 오순절 컨퍼런스 인도
2만 5천여 명의 성도가 참석
 - 2006년 9월 (일본)
도쿄에서 DCEM 교회성장세미나 인도
 - 2006년 10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2006 풍성한 영적 추수를 위한 특별성회 인도
2만여 명이 참석해 4천여 명이 결신한 성회
 - 2007년 3월 (일본)
도쿄에서 춘계일일축복성회 인도
 - 2007년 7월 (일본)
치바에서 2007 전일본 지저스 페스티벌 인도
조용기 목사의 일본선교 30주년 기념 성회
 - 2007년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제3회 DCEM 교회성장세미나 인도
 - 2007년 12월 (북한)
평양에서 조용기심장전문병원 착공식

- 과 기념예배 인도
- 2008년 3월 (미국)
시애틀에서 한인성회 인도 및 크리스천 페이스센터 예배에서 설교
 - 2008년 9월 (일본)
아키타에서 동북복음화 대성회 인도
 - 2008년 10월 (미국)
루이지아 컨퍼런스 인도
 - 2009년 5월 (일본)
도쿄에서 교단창립 60주년 기념 선교대회 인도
 - 2009년 5월 (일본)
도쿄에서 춘계축복성회 인도
- 2010년대**
- 2010년 4월 (일본)
오사카에서 춘계축복성회 인도
도쿄, 우즈노미야 등의 지역에 인터넷으로 생중계
 - 2010년 5월 (일본)
도쿄에서 사랑과 행복 나눔 특별 성회
아시아총회교회 인터넷생중계, 일본 긴시초, 카사이, 닛뽀리, 가와사키, 고이오, 핫치요지성전 위성생중계
 - 2010년 5월 (싱가포르)
2010 CGI대회 및 아시아 컨퍼런스 인도
70개국에서 3만여 명이 참석

- 2010년 8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2010 대만 목회자 4차원의 영성 컨퍼런스 인도
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교회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
- 2010년 11월 (일본)
나고야에서 순복음나고야교회 창립21주년 및 목회 30주년 기념예배 인도
- 2011년 3월 (홍콩)
2011 홍콩 지도자 대성회 인도
- 2011년 3월 (일본)
도쿄에서 순복음동경교회 34주년 기념 성회 인도
- 2011년 5월 (일본)
도쿄에서 2011 동일본 치유대성회 인도
- 2011년 8월 (싱가포르)
시티하베스트교회 22주년 기념 성회 참석 및 설교
2만여 명이 참석
- 2011년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2011 오사카 지저스 페스티벌 인도
100여 개의 교회가 참석
- 2012년 2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아부다비 축복 성회 인도
3만여 명이 참석, 아랍에미리트 왕족과 내무부장관 등 참석
- 2012년 3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성령의 임재와 치유성회
및 순복음동경교회 창립 25주년 기념예
배 인도

후쿠오카 창립 이래 최대의 인원 운집

● 2012년 4월 (싱가포르)

시티하베스트교회 창립 23주년 기념 성
회 참석 및 설교
3만여 명이 참석, 싱가포르 정부 관료
및 주싱가포르 대사 부부 참석

● 2012년 5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세계기도성회 참석 및 설교
10만여 명이 참석, 세계 최대 무슬림 국
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개신교행사
220여 개국에서 참석했고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
성회가 열린 7시간 동안 인도네시아 전
역과 세계로 동시 생중계됨

● 2012년 9월 (일본)

도쿄에서 2012 도쿄 지저스 페스티벌
인도

● 2012년 11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부흥 성회 인도
100만여 명이 참석, 하이데라바드 역사
상 가장 큰 개신교 집회로 기록됨

● 2012년 12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신띠엔 싱따오 교회 헌당
예배 참석 및 설교

● 2013년 3월 (일본)

센다이에서 2013 동북 치유대성회 인도
쓰나미 피해지역인 동북 지역에서 열린
성회

● 2013년 4월 (미국)

LA에서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성회 참
석 및 설교
미국 오바마대통령 표창을 강석희 얼마
인 전 시장이 전달

● 2013년 5월 (호주)

멜버른에서 생명의 강 컨퍼런스 인도

● 2013년 7월 (싱가포르)

시티하베스트교회에서 특별 성회 인도

● 2013년 7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교회지도자세미나 인도

● 2013년 6월 (스웨덴)

웁살라에서 유럽컨퍼런스 인도

● 2013년 8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23차 세계 오순절
대회 참석 및 설교
62개국 오순절교파 지도자 참석

● 2013년 9월 (호주)

퍼스에서 2013 세계 지도자 컨퍼런스
참석 및 설교
성회가 열린 호주 빅토리아라이프센터는
세계적인 테니스선수 출신인 마가렛 코
트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

● 2013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2013 도쿄 지저스 페스티벌

인도

● 2014년 4월 (대만)

타이퉁에서 대만 동부연합부흥대성
회 및 교역자 세미나 인도
1만 5천여 명 참석

● 2014년 5월 (일본)

도쿄에서 2014 도쿄 지저스 페스티벌
인도

● 2014년 6월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성령컨퍼런스 인도
2만여 명이 참석, 아르메니아 개신교
역사상 처음으로 연합한 기적의 성회

● 2014년 9월 (일본)

오사카순복음교회 축복성회 인도

● 2014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 지도자 4
차원 영성 컨퍼런스 인도
인근의 기독교 지도자만 3천여 명 이
상 참석

● 2014년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세계교회성장 컨
퍼런스 참석 및 설교

● 2014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시가키 시게마사 목사 안수
및 순복음동경교회 담임목사 취임예
배 참석

● 2014년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대성회 인도

4만 5천여 명 참석

● 2015년 2월 (인도네시아)

발릭파판에서 인도네시아 부흥과 치
유 대성회 인도
1만 5천여 명이 참석

● 2015년 3월 (일본)

도쿄에서 축복대성회 인도
한중일 성도들 대거 참석

● 2015년 4월 (말레이시아)

4차원영성 말레이시아성회 인도

● 2015년 4월 (대만)

타이퉁 동부연합부흥대성회 참석 및
설교
2만여 명이 참석, 청소년센터 헌당예
배 드려짐

● 2015년 5월 (일본)

도쿄에서 특별축복성회 인도

● 2015년 6월 (일본)

베를린에서 베를린성회 인도

● 2015년 7월 (일본)

도쿄에서 2015 꿈과 희망의 축복 성
회 인도

● 2015년 9월 (일본)

도쿄에서 순복음동경교회 38주년 기
념 특별 성회 인도

● 2015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순복음동경교회 축복대성

회 인도

- 2016년 1월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신년축복대성회 인도
- 2016년 2월 (호주)
호주 퍼스와 시드니에서 목회세미나 참석 및 설교
- 2016년 3월 (미국)
미국 하와이에서 목회자도자기도회 인도
- 2016년 4월 (대만)
가오슝에서 대만 축복 성회 인도
2만여 명이 참석
- 2016년 5월 (일본)
도쿄 순복음동경교회 39주년 기념 및 축복 성회 인도
음악회와 함께한 축복 성회
- 2016년 6월 (인도)
첸나이에서 인도하나님의성회 100주년 기념 성회 인도
50만여 명이 참석
- 2016년 8월 (홍콩)
마카오에서 축복 성회 인도
중국에서도 대규모의 인원이 참석
- 2016년 8월 (일본)
센다이에서 순복음센다이교회 축복 성회 인도
- 2016년 9월 (일본)
도쿄에서 순복음동경교회 축복 성회 참

석 및 설교

- 2016년 10월 (미국)
LA 베데스다 대학교 40주년 기념 축복 부흥 성회 인도
- 2017년 2월 (태국)
방콕에서 축복과 기적의 대성회 인도
1만여 명이 참석
- 2017년 3월 (일본)
야마토에서 우창회 목사 선교 20주년 기념 축복성회 인도
성도들이 금식하며 성회 준비
- 2017년 4월 (일본)
도쿄에서 순복음동경교회 40주년 기념 및 2017 지저스 페스티벌 인도
일본 목회자 대거 참석
- 2017년 6월 (싱가포르)
엠평워드21 아시아 총회를 겸한 싱가포르 성회 참석 및 설교
- 2017년 8월 (홍콩)
블레싱 홍콩 2017 미라클 컨퍼런스 참석 및 설교
- 2017년 9월 (일본)
오야마에서 은혜와 기쁨의 성회 인도
- 2018년 2월 (일본)
도쿄에서 축복 성회 참석 및 설교
- 2018년 9월 (일본)
도쿄에서 도쿄대성회 인도

• 2018년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오사카순복음교회 축복 성회 인도

• 2019년 9월 (대만)

뉴타이베이시 신띠엔 싹파오 교회에서 대만축복성회 인도

• 2019년 11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태국축복성회 인도

• 2019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순복음동경교회 축복성회 인도

선교의 길에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다

© 시가끼 시계마사, 2021

초판 1쇄 발행 2021년 00월 00일

지은이 시가끼 시계마사
엮은이 ○ ○ ○
펴낸이 이기봉
편집 좋은땅 편집팀
펴낸곳 도서출판 좋은땅
주소 서울 마포구 성지길 25 보광빌딩 2층
전화 02)374-8616~7
팩스 02)374-8614
이메일 gworlbook@naver.com
홈페이지 www.g-world.co.kr

ISBN 979-11-388-0000-0 (00000)

- 가격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파본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출판 G-WORLD PUBLISHER
도서출판 좋은땅
www.g-world.co.kr

